

2022년도 문화재위원회

제2차 순계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록

- ▣ 일 시 : 2022. 2. 22.(화) 14:00 ~ 18:30
- ▣ 장 소 : 정부대전청사 2동 207호
- ▣ 출석위원 : 윤인석(위원장), 강동진, 김문수, 김이순,
김종현, 나창순, 목수현, 이광표, 이혜은(이상 9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 고지사항

1.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법인의 상근·비상근 임직원 포함)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 위원께서는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합니다.
 -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2조 제5호에 따라 해촉 됨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아울러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에 따라 의결 방식은 분과위원장이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4.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회의내용은 기록·녹취되며 회의 결과는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목 차

【심의사항】

1	국가등록문화재 「경기도청사 구관」 현상변경(2차)	(공 개)
2	「대전 구 충청남도 경찰청 상무관」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공 개)

【검토사항】

3	국가등록문화재 「익산 송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현상 변경에 대한 검토	(공 개)
4	「기아마스타 T-600(삼륜자동차)」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공 개)
5	「초대 주미조선공사관 이상재 문서」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공 개)
6	「나주 태평사 마애보살좌상」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공 개)
7	「익산 구 호소카와 도정공장」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공 개)
8	「보성 오봉산 구들장 채석지」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공 개)
9	「유네스코회관」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공 개)

【보고사항】

10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안 보고	(공 개)
11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처리 보고	(공 개)

1. 국가등록문화재 「경기도청사 구관」 현상변경(2차)

가. 제안사항

경기도 수원시 소재 국가등록문화재 「경기도청사 구관」의 외관 보수정비 등을 하고자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기도청사 구관」에 대한 외관 보수정비 등을 하고자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으로 문화재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 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22년 제1차 근대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22.1.25.) : **보류**
 - 문화재적인 관점에서 보수정비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남측 필로티 부분은 원형에 따라 정비
 -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에 대한 대안 검토
 - 문화재에 대한 기존 구조 정밀조사를 통해 구조보강 방안 제시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경기도지사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등록문화재 「경기도청사 구관」(제688호, '17.8.8. 등록)
 -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 경기도청
- (3) 세부내용
 - 대상위치 : 당해문화재
 - 신청내용 : 당해문화재 외관 보수정비 등

1차 심의('22.1.25.)	금회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출입구 필로티 구역 벽체 해체 및 유리 커튼월 설치 - 기존 출입구 필로티 구역 일부 벽체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측 필로티 원형에 따라 일부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형된 정면 및 배면부 1층 외벽 마감 변경 (대리석, 판넬→벽돌, 창호, 디자인블럭, 타일) - 우측면 중정 진입통로 신설 - 엘리베이터 및 설비샤프트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비샤프트 설치 위치(1안: 중정, 2안: 공조실) - 중정 출입문 창문으로 변경설치 - 공조실 출입문 설치 - 옥상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 - 전단벽 설치 및 기초 보강(전단벽 설치 위치) 	<p>좌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상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 규모 조정 ※ 기존 구조 조사 결과 및 구조보강 방안 첨부

라.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 국가등록문화재의 보수정비를 통해 기록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남측 필로티 부분을 원형에 따라 일부분 정비하고, 옥상 태양광 발전장치에 대한 세부계획안 마련 및 규모를 일부 조정하고, 기존 구조를 조사하고 구조보강 방안을 보완하여 제출한 사항임
- 남측 필로티에 대한 부분적인 정비, 태양광 발전장치 대안 검토 결과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함

마. 전문가 현지조사 의견('22.1.7.) : 문화재위원 ○○○·○○○

- 도청에서 확보하여 보관하고 있는 본 문화재의 건축도서들을 잘 파악하여 최대한 원형을 복원, 유지하는 방향으로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함
- 제출된 현상변경 계획이 수립된 배경 등의 이해를 위하여 경기도청 경내의 각 건물과 공간의 기능 및 용도, 동선 계획 체계 등 설계 개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문화재 등록범위에 포함된 부분은 철거하지 말고, 존치하면서 계획 수립 필요
- 교체하고자 하는 창호는 옛 사진과 도면을 참조하여 옛 모양(프레임 레이아웃 등)을 되살릴 필요가 있음
- 1층 남측의 주진입부(필로티 부분)는 원형을 찾아 복원할 필요가 있음
- 중정에 설치 계획된 엘리베이터와 설비 샤프트는 외관을 고려하여 건물 내부에 설치하는 방안과 외부에 설치하더라도 원형을 존중한 방안 등을 강구하여 문화재 보존적인 사항을 깊게 고려한 후 결정하여야 할 것임
- 태양광 시설 설치는 경관에 적합하도록 계획 필요
- 기존 구조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내력벽체를 파악하고 내진구조체로 사용함으로써 내진벽 신설에 의한 외관변형을 최소화하기 바람

바. 의결사항

- 보류
 - 필로티는 원형에 따라 추가 보완
 - 태양광은 도청부지 내 전체적인 대체에너지 추진계획에 따른 검토 필요
 - 구조 보강은 세부자료 보완 필요
- 출석 9명 / 보류 9명

2 「대전 구 충청남도 경찰청 상무관」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가. 제안사항

대전광역시 중구 소재 「대전 구 충청남도 경찰청 상무관」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위원회 등록 검토('21.12.21.)를 거쳐 등록 예고한 「대전 구 충청남도 경찰청 상무관」에 대하여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대전광역시장

(2) 대상문화재

- 문화재명칭(안) : 대전 구 충청남도 경찰청 상무관
- 소재지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87 (선화동)
- 소유자 : 경찰청
- 수량 : 1동
- 면적 : 522.31㎡(1층)
- 건립시기 : 1963년
- 구조 : 조적조, 목조트러스 지붕

(3) 심의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4) 추진경과

- ('21.7.5.)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대전광역시 → 문화재청)
- ('21.11.12.) : 문화재 등록 검토 조사 실시
- ('21.12.21.) : 제11차 근대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 등록검토 '조건부가결'
 - 명칭은 「대전 구 충청남도 경찰청 상무관」으로 추진

(5) 등록예고 : '22.1.5. ~ 2.3. (30일간) * 의견 없음

※ 문화재 명칭 : 대전 구 충청남도 경찰청 상무관(신청명 : 옛 충남경찰서 체육관(상무관))

라.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 1963년 주한 미8군의 지원을 받아 ‘충청남도경찰학교’로 건립된 것으로 일제강점기 세워진 충남 무덕전 건물 터에 남아 있던 기단을 활용하여 건축하는 등 한국전쟁 이후의 시대적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독특한 건축적 내력이 있는 점, 또한 당시 지역사회에서 근대적 체육시설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가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판단됨.
- 문화재위원회 등록 검토('21.12.21.)를 거친 등록예고 기간('22.1.5.~2.3.) 중 이견이 없었으므로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이 타당함.
- 문화재 명칭은 ‘대전 구 충청남도 경찰청 상무관’으로 함

마.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문화재위원 ○○○('21.11.12.)

- 광복 후에 지어진 대한민국 정부의 행정기관 부속시설로서 건립 당시의 건축기술과 상황을 담고 있으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행정타운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역사적 자료로서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됨.
- 현 상태를 유지하되 내진구조 보강을 위하여 설치된 철골 구조물은 기존 유구의 건축적 질서를 깨고 있으므로 향후에 건축 질서에 합치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활용계획 수립의 기본전제로서 외벽의 창 형태 유지와 이를 통한 자연채광의 원칙, 원형의 유구 보존과 노출 등에 특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 문화재전문위원 ○○○('21.11.12.)

- 옛 충남경찰서 체육관은 충남지방경찰청의 부속 건축물로서 60여년 이상 사용되면서 지역에서의 기억과 상징성의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음. 일제강점기에 자리 잡은 충남도청과 주변 일대가 갖는 지역의 행정적, 사회적 중심으로서의 장소적 가치를 공유하는 건축물임.
- 기존 무덕관 건축물의 기단부 위에 지어진 독특한 유례와 함께 1960년대 건축물로서 개방적인 공간 구성과 주출입구 부분을 포함한 입면에서의 조형적 처리, 목조 트러스 구조 등이 잘 보존되어 있어 등록가치는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 건축물의 구조체계 및 공간 구성, 외부 마감 재료 및 세부 표현 등 전체적인 외관의 보존이 필요하며 옛 충남도청과 함께 주변 영역의 경관 보존도 필요함.

○ 문화재전문위원 ○○○('21.11.12.)

- 지역사회에서 과거 '대전 충무체육관'이 신축되기 이전까지 실내 체육시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던 상무관의 위상을 높이 평가하고 있고, 건축사적 측면에서도 1960년대 모더니즘 건축으로서의 시대적 특징이 반영되어 있어 근대문화유산으로 의미가 있음.
- 또한, 일제강점기 건축된 충남 무덕전 건물 기단을 이용하였다는 독특한 건축 내력을 통해서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등 국가등록문화재로서의 등록 가치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음.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9명 / 원안가결 9명

<붙임>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현) 옛 충남경찰서 체육관(상무관) (구) 충청남도 경찰학교
2. 용 도 : (현) - (원) 체육시설
3. 소재지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87(선화동)
4. 소유자 : 경찰청
5. 대상물 개요
 - 구조 : 조적조, 목조트러스지붕
 - 제작년도 : 1963년
 - 수량 및 면적 : 1동, 면적 522.31㎡
 - 층수(높이) : 지상 1층
6. 조사자 의견('21.11.12)

<문화재위원 ○○○>

1) 개요

- 일제강점기에 공주로부터 충청도청이 대전으로 이전해 오면서 도청사, 경찰서, 시험장, 무기고, 우체국 등이 건립되었고 광복 후에도 여러 채의 건물이 세워져 행정기관의 건물군이 조성되어 있다.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 일본 전통식 건축으로 무덕전(武德殿)이 건립돼 있었는데 한국전쟁 때 폭격으로, 목조였던 건물 본체는 파괴되고 그 터는 오랫동안 기단부만 남은 채로 1960년대까지 유지되었다.
- 본 신청 유구는 1963년에 파괴 후 방치돼 있던 무덕전의 기단부를 활용하여 그 위에 현재의 상무관 구조물을 올린 것이다. 건물의 주요 구조는 벽돌 조적조이며 지붕은 목조 트러스 위에 기와를 이었다. (조적조 벽돌은 시멘트벽돌로 추정됨) 네 군데에 있는 출입구 포지와 캐노피의 구조, 외벽 개구부에 설치된 인방(보)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 구 충남도청 본관은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어 대전광역시의 시설로 보존·활용 중이다. 충남도청이 2013년 내포 신도시로 이전하고 옛 도청 영역을 대전광역시에서 활용하면서 재정비를 시행하면서 경내에 여러 건물이 해체되기도 하고 리모델링되기도 하였다.
- 이번에 문화재 등록 신청한 본 유구는 구 충남도청 구내에 남아 있는 근대건축 중에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으며 터의 역사를 잘 간직하고 있다.
- 다중 이용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실행하던 중, 내진을 위한 구조보강이 이루어지면서 철골 기둥과 보를 설치하였다.
- 바닥은, 준공 당시의 상황을 확정할 자료가 없어 파악할 수가 없으나 최근 내진 보강을 위해 철골 기둥 기초공사 때 해체한 바닥 사진으로 미루어 보면 잡석 지정 위에 무근 슬래브를 바닥 전면에서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향후 보강 조사가 필요하다.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본 건물은, 1960년대 건축된 건물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 우선, 벽돌 조적구조로 지으면서도 외벽엔 큰 창을 두어 개방성을 가지며 체육관으로서 충분한 자연채광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 건물의 본체는 모더니즘을 표방하고 있으면서도 폭 20m, 길이 34m에 이르는 지붕을, 실내기둥 없이 철근콘크리트로 덮지 못하고 재래식의 목조 트러스 구조로 씌울 수밖에 없었던 건립 당시의 재료 수급 및 기술적 한계가 그대로 반영되었다.
- 건물본체의 외곽 하부에는 폭 1.5m의 테크가 설치돼 있는데,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추정되며 일제강점기에 세워졌던 무덕관 하부시설의 잔존 부분일 가능성도 있다.
- 외벽의 외부는 조적조 벽돌 위/모르타르 마감/페인트 (포치 부분은 스티코일 가능성 있음)이며 내부도 모르타르 마감 위 페인트이다.
- 벽의 창호 외부 아랫부분에는 갈색 모자이크 타일을 건물 전체적으로 둘러, 수평적인 띠가 건물을 감싸는 듯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전반적으로 보존상태는 좋은 편으로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다.
- 실내의 천장에는 원래, 바둑판 모양의 목재 천정이 설치돼 있었으나 내진보강 공사 때 천정을 제거하여 트러스 구조가 노출되어 있으며 개관과 기와는 새 재료로 교체되었다.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위에 적은 것과 같이 구 충남도청사 일곽은 일제강점기와 광복 후, 근현대기를 거치며 조성된 행정타운으로서 면모를 지니고 있으며 구 충남도청사는 2002년에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어 지금은 대전 근현대전시관으로 활용하고 있다.
- 구 충남도청 경내의 시설물들을 활용하여 시민문화공간, 시민공유공간 등을 설치하여 시민 소통공간을 마련할 계획을 세우고 실행공사를 하고 있다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대전시에서 기본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활용계획은 다음과 같다.

① 시민공유 공간 형태로 조성

- 시민이 사용의 주체가 되는 오픈형 시민의 홀 조성
- 전시·공연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리모델링)
- (리모델링 컨셉) 오픈형·가변형, 열린 문화공간
 - ※ 고적성 구조물 설치 지양하며 최대한 원형 유지로 문화재 가치 보존

② 시민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

- (저변확대)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프로그램 상시 운영
- (열린문화) 전문영역의 문화예술 서비스 이용자(시민)가 아닌,
도전과 창의가 발산되는 협업예술활동으로서의 역할수행
 - * 드림씨클, 컨택댄스, 마임, 힐링춤워크샵 등

○ (플렉서블스페이스) 문화블랙홀이 아닌 시민자율놀이터(난장) 역할

③ 사회혁신 복합플랫폼 ‘소통협력공간’ 과 연결

○ (공간적 연결) 근현대건물과 소통협력공간 소개 투어 프로그램

○ (인적 네트워크) 혁신활동가와 시민의 자연스러운 쌍방향 교류(컴터의 공유)로 네트워크 문화 연결
→ 사회혁신 복합플랫폼의 저변 확대

○ (자원 네트워크) 자원의 공유를 통한 프로그램별 상호 연결 운영

○ 체육관으로 사용되었던 원래의 용도와 내부 공간을 잘 활용하여 건물의 특성과 어울리는 기능을 잘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국가등록문화재인 구 충남도청사를 비롯하여 행정타운 내의 시설들을 시민 활용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근현대 유구를 보존해 온 경험을 토대로, 보다 정교하게 활용계획을 보완한다면 본 신청 건물이 가지고 있는 건축사적 의미와 가치를 잘 담은 내용들을 담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실내에 기둥 없이 지붕을 설치하여 넓은 공간을 확보하는 건축으로 체육관과 강당을 같은 유형의 건축으로 분류한다면, 구 대구사범학교 본관과 강당, 강경 중앙초등학교 강당, 구 소록도 갯생원 사무본관과 강당, 전주 신흥고 강당, 고창 고등보통학교 강당, 홍성 고등학교 강당, 청주 공립보통학교 강당, 청주 대성여자 중학교 강당, 인천 제물포 고교 강당, 대구 동인초등학교 강당, 광주 서석초등학교 체육관, 이화여대 체육관, 의릉 중앙정보부 강당 등이 이에 속한다.
- 이 중, 중앙정보부 강당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것이어서, 광복 후에 만들어진 체육시설로서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된다.

7) 등록가치의견

- 이번의 등록신청 유구는 광복 후에 지어진 대한민국 정부의 행정기관 부속시설로서 건립 당시의 건축기술과 상황을 담고 있으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행정타운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역사적 자료로서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 현 상태를 유지하되 내진구조 보강을 위하여 설치된 철골 구조물은 기존 유구의 건축적 질서를 깨고 있으므로 향후에 건축질서에 합치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아울러 활용계획 수립의 기본전제로서 외벽의 창 형태 유지와 이를 통한 자연채광의 원칙, 원형의 유구 보존과 노출 등에 특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대전 구 충남경찰청 상무관

<문화재전문위원 ○○○>

1) 개요

○ 옛 충남경찰서 체육관이 지어진 위치는 일제강점기 충남도청이 대전광역시의 중심가로인 중앙로를 마주하며 건립된 이후 그 북쪽 방향으로 1930년대 일본 목조 건축양식의 무덕관이 지어졌던 자리임.

- 무덕관 건축물이 소실된 이후 남아있던 기초와 기단부를 활용하여 1963년 그 위쪽에 충남지방경찰청의 부속 건축물로서 현재의 건축물을 신축함.
- 경찰학교 등으로 사용되었고 2013년 충남지방경찰청이 이전하기 전까지 체육시설로서 사용되면서 대전 최초의 실내체육관으로 사용됨.

2) 건축양식 및 주요 특징

- 일제강점기 무덕관 건축물의 계단과 기단부를 활용하여 조적조 벽체 위에 철근콘크리트 테두리보를 두르고 목조 트러스 구조의 지붕을 형성함.
- 동쪽 방향으로 주출입구를 두었고 내부는 기둥이 없는 넓은 단일 공간으로 구성함. 개구부 없이 벽으로 처리된 북쪽면을 제외한 3면에는 넓은 개구부를 두어 개방적으로 구성함. 동쪽 주출입구의 좌측에 부출입구를 두었고 남쪽면과 서쪽면의 중앙에도 부출입구를 설치함.
- 주출입구는 무덕관 건축물 계단 중간 부분 좌우에 기둥을 세우고 위쪽에 콘크리트보와 슬래브로 구성된 포치를 설치함. 정면은 주출입구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 구성으로 주출입구의 좌우 측면은 석재 타일로 마감하고 기단과 접하는 건축물 하부는 타일로 띠를 둘러 마감함.
- 지붕은 목조트러스 구조의 모임지붕 형태로 시멘트 기와로 마감하였고, 정면과 배면 쪽에 각 2개소의 도머창을 설치함.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창호 등이 변형되었고, 최근 보수 과정에서 지붕 마감 재료 등이 교체되었음.
- 건축물 내부에는 구조보강을 위한 철골구조의 프레임이 설치됨.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구 충남도청을 포함하여 지역의 근대기 역사 경관을 보존하려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보존관리 여건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건축물의 원형을 보존하면서 시민의 다양한 문화 활동을 위한 개방적인 시설로서 활용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소유주 및 관리자가 보존 및 활용에 대한 충분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기존 국가 등록문화재 중 체육시설의 사례는 많지 않으나, 개방된 단일 공간으로 구성되어 체육 활동 등을 복합적으로 수행한 학교 강당과 같은 사례는 다수 확인할 수 있음. 기 등록된 유사한 기능의 사례와 비교할 때 옛 충남경찰서 체육관은 장소와 지역에서의 가치와 함께 1960년대 건축물로서의 조형적, 재료적, 구조적 특성 등의 측면에서 등록할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옛 충남경찰서 체육관은 충남지방경찰청의 부속 건축물로서 60여년 이상 사용되면서 지역에서의 기억과 상징성의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음.

- 일제강점기에 자리 잡은 충남도청과 주변 일대가 갖는 지역의 행정적, 사회적 중심으로서의 장소적 가치를 공유하는 건축물임.
- 기존 무덕관 건축물의 기단부 위에 지어진 독특한 유례와 함께 1960년대 건축물로서 개방적인 공간 구성과 주출입구 부분을 포함한 입면에서의 조형적 처리, 목조 트러스 구조 등이 잘 보존되어 있어 등록가치는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 건축물의 구조체계 및 공간 구성, 외부 마감 재료 및 세부 표현 등 전체적인 외관의 보존이 필요하며 옛 충남도청과 함께 주변 영역의 경관 보존도 필요함.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이 건축물을 지칭하였던 ‘상무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등록시 문화재 명칭을 ‘구 충남경찰서 상무관’으로 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문화재전문위원 ○○○>

1) 개요

- 이번 등록 신청된 ‘옛 충청남도경찰청 체육관(상무관)(이하, 상무관으로 통칭)’은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에 소재하였던 옛 충남지방경찰청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난 2013년 충남지방경찰청이 충청남도 내포 신도시로 이전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사용되어 왔음.
- 오늘날 충남지방경찰청은 1945년 ‘충청남도 경찰부’로 발족된 후, 1946년 제3관구 경찰청(1946년)을 거쳐 1948년 도지사 산하 충청남도 경찰국으로 개칭되었으며, 1962년 충남경찰학교 설치가 결정되었고, 1974년에는 경찰국 단독청사가 준공되었음(동 청사 건물은 현존 구 충청남도경찰청 본관으로 보임).
- 즉, 상무관은 1962년 충청남도경찰학교 설치 결정에 따라 그 이듬해인 1963년에 신축된 충청남도경찰학교 건물로서 당시 주한 미8군의 지원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되며, 구체적인 기록은 확인되지 않으나 체육시설의 용도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임.
- 또한, 본래 상무관 자리는 일제강점기 군인과 경찰들이 무술을 수련하는 ‘충남(忠南) 무덕전(武德殿)’이 있었던 곳으로 한국전쟁 중 건물이 훼손된 후(1933년 12월 28일자 매일신보에는 ‘충남 무덕전 준공식’이라는 기사와 함께 내부 사진이 실려 있음) 그 자리에 상무관이 건립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지역사회에서는 상무관이 과거 ‘대전 충무체육관’이 신축되기 이전까지 실내 체육시설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등 그 위상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건축적으로도 1960년대 모더니즘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는 등 지역의 향토사 및 건축사적 측면에서 근대문화유산으로 의미가 있는 큰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이와 더불어, 문화재청에서는 2016년 근현대 체육시설 분야 목록화조사 내용을 토대로 대전광역시 등 관련단체에 등록 검토 대상으로서 통보한 바 있음.
- 하지만, 지난 2020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옛 충남경찰청 부지 일대에 대전중부경찰서와 대전세무서, 대전지방교정청 등 공공기관이 입주하는 정부 통합청사 건립을 추진함에 따라 상무관이 철거될 예정이었으나, 지역사회 및 관련단체 등으로부터 보존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로 사업대상에서 제외되어 존치키로 결정된 상태임.
- 현재, 대전광역시에서는 소유자인 경찰청(대전중부경찰서장)으로부터 동 건물에 대한 사용 승인을 받아 리모델링 과정을 거쳐 ‘시민의 별채’라는 소위, 개방형 공간(시민 홀)을 조성하여 활용하고자 관련계획의 수립과 함께 추진 중에 있음.

- 즉, 2013년 충남지방경찰청이 내포 신도시로 이전한 이후 줄곧 방치됨에 따라 부분적으로 노후화 등이 진행되어 2020.8.~2021.6.까지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구조보강 및 지붕 단열·방수 공사를 일부 진행한 상태임.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상무관이 위치한 ‘구 충남지방경찰청’ 부지에 인접하여 ‘구 충남도청사’가 자리 잡고 있고 그 영역 내에는 국가등록문화재인 ‘구 충남도청 본관’ 건물을 비롯하여 ‘구 충남도청 선거관리위원회’ 및 ‘구 충남도청 무기고’, ‘구 충남도청 우체국’ 등 여러 동의 근현대문화유산이 현존하고 있음.
- 본래 상무관 자리는 일제강점기에 건축된 ‘충남 무덕전’이 있었으나, 한국전쟁 중 건물이 소실되어 그 흔적으로서 기단만 남아 있었던 곳에 현재의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다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음).
- ‘충남 무덕전’에 대해서는 여러 기록 등을 통해서 대략적인 건축물의 형태 등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를 근거로 하면 기단 모습이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 다만, 현재로서는 기단이 철근콘크리트조의 구조체로 이루어진 것을 제외하고는 당시 기단의 잔존 상태와 상무관 공사 과정 등 건축적 상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상태임.
- 또한, 사진 속에 담겨진 무덕전의 모습에서 일본 전통목조건축의 형태를 찾아볼 수는 있으나, 실제 목구조로 지어진 것인지 아니면 당시 일본에서 유행하였던 소위, 화풍건축에서와 같이 번안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음.
- 기단은 지면에서 일정 간격을 띄워 설치되었고 전후좌우 네 면에 계단을 달아내었는데, 기단 상면에 연결된 계단 소맷돌의 결구방식으로 볼 때 계단 역시도 무덕전의 유구로 추정됨(실제로 과거 기록 사진 등을 통해서 현재 위치에 유사한 형태의 계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 장방형 평면으로 조적조 벽체 위에 철근콘크리트 테두리보를 설치하고 상부에는 목재트러스를 이용하여 우진각지붕을 구성하였으며 지붕 전·후면에는 2곳의 도머창을 설치하였음.
- 내부는 별도의 기둥과 칸막이벽 없이 하나의 통칸으로 구획되었으나, 최근 구조보강을 진행되는 과정에서 H형강의 보조기둥과 보(beam)를 다수 설치하였으며, 트러스와 개관 등의 일부 목부재와 함께 지붕 기와(건축물대장상에는 1974년 당시 도단급 즉, 합석 지붕으로 표기되어 있어 원형에 고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신재로 교체하였음. 또한, 천정에 가설되었던 반자가 모두 제거된 상태임.
- 정면 중앙부에 현관을 두고 좌측면과 배면에 각 1개소씩의 부출입구를 마련하였으며, 현관과 부출입구 상부에는 각각 포치와 캐노피를 설치하였음. 특이한 것은 현관 상부의 포치를 지지하는 기둥이 계단 내부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아마도 잔존하였던 기단과 계단 위에 포치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추정됨.
- 우측면을 제외한 다른 세 면에는 벽면 전체에 창호를 설치하여 내부 공간의 개방감을 더하고 있으며, 창호의 패턴과 형태로 보아 비교적 원형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바닥은 신축 당시의 마감재(인조석 물갈기)가 그대로 남아 있으며, 벽체는 시멘트 몰탈을 바르고 그 위에 페인트로 마감하였음.

- 현재 상무관 내에 보관 중인 현판(‘尙武館’) 뒤편에 새겨진 기록에 따르면(‘西紀一九七五年六月一八日 尙武館改修懸板 忠南警察局長金許○…’), 1975년 6월 18일에 개수(改修)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건물의 내력 등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건물의 구조와 외부 형태는 비교적 원형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되나, 활용을 위해서는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내부 공간에서 보강공사가 진행되어야 하는 만큼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진정성이 오롯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절한 계획 수립 후 추진되어야 할 것임.
- 또한, 한동안 방치되어 노후화가 전체적으로 진행된 만큼 철저한 원형 고증을 거쳐 보수공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 환경

- 지난 2020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옛 충남경찰청 부지 일대에 대전중부경찰서와 대전세무서, 대전지방교정청 등 공공기관이 입주하는 정부 통합청사 건립을 추진함에 따라 상무관이 철거될 예정이었으나, 지역사회 및 관련단체 등으로부터 보존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로 사업대상에서 제외되어 존치키로 결정된 상태임.
- 향후, 대전광역시가 소유자인 경찰청으로부터 무상사용허가를 득하여 시민공유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임.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대전광역시는 상무관을 공공 목적의 활용을 위해 ‘시민공유공간’으로 조성하고자 관련계획을 수립 및 추진 중에 있고, 이 과정에서 문화유산으로서의 진정성 유지를 위한 보존, 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공공성이 담보된 시민공유공간으로 조성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관련계획이 마련된 만큼 활용과정에서 문화유산적 가치가 훼손되는 등 보존, 관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다만, 향후 활용을 위한 보강 및 보수공사 등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과정에서 문화유산으로서의 진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고증과 함께 관련계획 수립되어야 할 것임.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이번 등록 신청된 상무관은 지난 2016년 문화재청에서 실시한 체육시설 분야 문화재 등록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목록화 조사 과정에서 등록 검토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이중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체육관 A동’ 및 ‘광주광역시 관덕정’은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었음.

7) 등록가치 의견

- 오늘날 지역사회에서는 상무관이 과거 '대전 충무체육관'이 신축되기 이전까지 실내 체육시설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그 위상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건축사적 측면에서도 1960년대 모더니즘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는 등 근대문화유산으로 의미가 있음.
- 또한, 일제강점기 건축된 충남 무덕전 건물 기단을 이용하였다는 독특한 건축 내력을 통해서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등 국가등록문화재로서의 등록 가치가 인정됨.

8) 기타

- 등록문화재 등록 명칭 부여 지침에 따라 「대전 구 충청남도 경찰학교」, 「대전 구 충남경찰청 체육관(상무관)」 등이 적당할 것으로 보임.

3. 국가등록문화재 「익산 숨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현상 변경에 대한 검토

가. 제안사항

전라북도 익산시 소재 국가등록문화재 「익산 숨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현상이 변경되어 국가등록문화재 보존·관리 방안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등록문화재 「익산 숨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도시재생사업(상생협력상가 및 상생마당 조성사업)으로 인한 건물 신축 및 근대건축자산 철거 등 현상 변경 사항과 관련하여 현지조사('22.2.9.)를 실시하고 국가등록문화재 보존·관리 방안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대상문화재

- 문화재 : 국가등록문화재 「익산 숨리 근대역사문화공간」 (제763호, '19.11.4. 등록)
- 소재지 :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12길 5 등(119필지)
- 소유자 : 익산시 외
- 면적 : 21,176.1㎡

(2) 검토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보존·관리 방안 적정성

(3) 세부내용

- 상생협력상가 및 상생마당 경관 보완계획
 - 문화재위원 등 전문가 자문으로 근대역사문화공간과 어울리는 외관으로 보완
- 가로경관회복 계획
 - 바느질 골목 : 철거된 바느질 골목 가로면 건물의 재현 및 도막포장 변경
 - 주단거리 : 철거된 근대건축자산 등 복원 및 재현

(4) 추진경과

- ('21.11.4.) : 국고보조사업 부정수급 및 집행 현장점검 결과 현상변경 파악
- ('21.11.19.) : 공간 내 현상변경 현황파악을 위한 현장 확인
- ('21.12.6.) : 공간 내 현상변경 조치계획 제출 요청(문화재청→익산시)
- ('22.2.9.) : 공간 내 현상변경 관련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 ('22.2.10.) : 공간 내 현상변경 조치계획 제출(익산시→문화재청)

라.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 「익산 숨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현대식 건축물 신축과 폭우로 훼손된 근대 건축자산 철거 등으로 인해 근대역사문화공간 경관 저해 및 등록문화재 전체적인 보존관리에 영향을 주고 있는 사항임. 이에 익산시에서 제시한 신축건물 외관 보완, 철거구간 가로경관 복원·재현 등 조치계획과 향후 근대역사문화공간 보존·관리 방안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마. 검토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문화재위원 ○○○('22.2.9.)

- 상생협력상가 신축 및 상생마당은 등록공간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신축된 건물은 공간의 크기와 분위기에 비하여 과도한 느낌을 주고 있으니 건물의 형태와 마감에 변경을 가하여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외관으로 변형하는 방안을 통하여, 역사문화공간을 유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해당 구역의 가로경관과 공간구성에서 중요한 요소였던 철거 건물들을 재현할 필요가 있으며 상생시설공간으로 진입하는 통로의 역할이 아닌 원래의 가로경관 모습을 되돌리는 장치로서 복원의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함

○ 문화재위원 ○○○('22.2.9.)

-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등록되어 있는 중요한 건축자산이 철거가 되었으므로 이미 문화재영역이 확정되어 있던 공간이 훼손되어 그에 대한 구역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근대역사문화공간의 영역의 구역 조정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사업 예산에 대한 삭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훼손된 2개동에 대해서는 유지되어 왔던 거리 자체의 경관을 훼손했기 때문에 근대역사문화공간 내의 거리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복구가 필요함.

○ 문화재전문위원 ○○○('22.2.9.)

- '익산 숨리 근대역사문화공간'을 담고 있는 등록 구역 중 이번 도시재생 관련 사업으로 공간상의 변화가 발생한 부분을 제외하는 문화재 등록구역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와 함께 앞으로도 '익산 숨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적 진정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훼손된 역사경관 및 소실된 근대건축자산 등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조치 방안 마련이 전제 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주단거리 인접 필지를 제외한 상생마당사업 지역은 등록구역에서 제외 조정
- 가로경관회복 계획은 관계전문가 검토 후 정비 추진

○ 출석 9명 / 조건부가결 9명

<붙임>

익산 솜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현상 변경에 대한 검토 의견

1. 문화재명 : 국가등록문화재 「익산 솜리 근대역사문화공간」 (제763호)
2. 등록일자 : '19.11.4.
3. 소재지 :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12길 5 등(119필지)
4. 소유자 : 익산시 외
5. 문화재 개요
 - 면적 : 21,176.1㎡
 - 개별 등록문화재 10건, 근대건축자산 17건
6. 검토사유 : '19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관련하여 익산 솜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상생협력상가 및 상생마당 조성'에 따른 가로 경관 훼손 및 현대식 건축물 신축과 폭우로 훼손된 근대건축자산 철거 등에 대해 익산 시에서 제출한 보존·관리 방안의 적정성을 검토
7. 조사자 의견('22.2.9.)

<문화재위원 ○○○>

1) 현황

- 익산 솜리 근대역사문화공간에 포함돼 있던 (현재 상생협력상가 및 상생마당 건립위치) 공간에 현대식 시설물이 신축되어 있음.
- 바느질 거리의 건물들과 주단거리의 금빛날개, 에텐교회 등의 노후 건물이 2021년 폭우로 붕괴위험에 처하여 안전을 위해 철거한 상태로 있음.
- 화교학교(등록문화재) 앞의 건축물이, 리모델링 과정에서 안전을 위한 조치로 창문을 모두 벽돌로 채워 막아 폐쇄적인 건물로 변환시켰으며 교정 남측의 담장을 철거하여 교정공간이 원형에서 변형되었음.

2) 검토의견

- 위의 상황은 문화재로서 근대역사문화공간을 등록하여 공간 내의 유구를 원형과 진정성을 확보하며 현재에 맞게 활용해야 한다는 대전제를 간과하고 관리 주체인 익산시에서 문화재청과 긴밀한 협의 없이 진행한 결과로 판단된다.
- 이러한 정황을 토대로 이미 변형이 이루어진 “익산 솜리 근대역사문화공간”에 향후 어떤 조치를 하여야 하는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시점이라 생각한다.
- 상생협력상가 신축 및 상생마당 조성:
 - 원래 빈터였던 대지의 지중(매장)유구들을 확인하여 역사성이 있는 시설들을 설치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많은 부분 교란이 일어나 있는 상태이다. 이런 상황을 사유로 등록공간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이미 신축건물이 세워졌으나 주변의 근대유구들에 에워 싸여 있는 환경과 연계하여 이 대지를 지금부터라도 역사적 공간으로 계속 관리하기 위하여 부지하부의 매장물들에 대한 파악을 통하여 지상유구들과 관련성을 찾는 일, 그리고 신축된 건물은 공간의 크기와 분위기에 비하여 과도한 느낌을 주고 있으니 건물의 형태와 마감에 변경을 가하여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외관으로 변형하는 방안을 통하여, 역사문화공간을 유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폭우로 위험한 건물 철거:
 - 안전을 위하여 해당 건물들을 철거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으나 문화재 등록공간 안에 속한 건물이 그중에는 문화재청의 예산으로 매입한 건물도 있어, 좀더 긴밀하고도 신중한 절차를 밟아 진행하였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 아울러 도시재생사업으로 구성하는 상생시설물의 영역으로 진입하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통로에 해당하는 위치에서 철거가 이루어졌다는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 해당 구역의 가로경관과 공간구성에서 중요한 요소였던 철거 건물들을 재현할 필요가 있으며 상생시설공간으로 진입하는 통로의 역할이 아닌 원래의 가로경관 모습을 되돌리는 장치로서 복원의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화교학교(등록문화재) 앞의 건축물과 교정 담장;
 - 구조적 안전을 위하여 개구부를 모두 벽돌로 막아버렸으나 아직 개구부의 경계선이 정확히 확인되어 채워진 벽돌을 제거하면 원래의 개구부 확보와 외관을 원형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로 인하여 우려되는 구조적 안전을 위해서는 다른 보강방법으로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 교정의 담장 또한 철거됨으로써 학교 영역이 에워 싸여 있던 모습을 잃게 되었다. 항일운동 기념공간과 어울리면서 이미 등록되어 있던 화교학교의 울타리의 분위기를 되찾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위의 사항들을 참고로 복원과 재현, 보강에 드는 비용은 관리 관청인 익산시의 부담을 전제로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 현재, 확인되고 논란이 되고 있는 모든 문제는 문화재청과 익산시, 그리고 익산시 내에서도 각 사업의 담당 부서들 간의 소통과 협력이 부재하여 발생한 일이므로 여러 가지 사업이 겹쳐지는 사업 대상지역에 관련된 부서들이 소통, 협력하여 융합적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구성과 운영이 강하게 요청된다.

<문화재위원 ○○○>

1) 현황

- 익산 송리 근대역사문화공간내 ‘상생협력상가 및 상생마당 조성’ 사업 사업 추진으로 근대건축자산 등이 철거됨

2) 검토의견

-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등록되어 있는 중요한 건축자산이 철거가 되었습니다. 이미 문화재영역이 확정되어 있던 공간이 훼손되어 그에 대한 구역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근대역사문화공간의 영역의 구역 조정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사업 예산에 대한 삭감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 훼손된 2개동에 대해서는 유지되어 왔던 거리 자체의 경관을 훼손했기 때문에 근대역사문화공간 내의 거리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복구가 필요합니다. 이는 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의 제천의 엽연초조합의 예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생협력상가 및 상생마당 조성’에 의한 신축건물과 광장이 ‘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과 조합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경관 조성이 필요합니다. 특히 광장에서 바라보는 경관과 광장의 역할을 잘 부여할 수 있도록 함이 필요합니다. 향후 사업 진행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세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담당 부서관의 협력과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근대역사문화공간사업에 대한 진행함에 있어서 총괄 감독이나 책임자가 있어서 사업에 대한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재전문위원 ○○○>

1) 현황

- 국가등록문화재인 ‘익산 숨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에 역사 경관을 이루고 있던 가로 경관 요소(가옥, 골목 등) 다수가 소실됨과 동시에 현대식 건축물이 신축되고, 또한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잠재적 가치가 인정되어 향후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매입한 근대건축자산(2층 상가건축)이 철거되는 등 공간상에 적지 않은 변화가 발생한 상태임.
- 즉, 익산시(도시재생과)가 추진 중인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 사업인 ‘상생협력상가 및 상생마당 조성’ 과정에서 ‘익산 숨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위치하였던 가옥(빈집) 및 골목이 사라지고 그곳에 오픈스페이스(마당)가 생겼으며, 인접한 필지에는 일정 규모의 현대식 건축이 새롭게 들어서 있음.
- 또한, 익산시(역사문화재과)는 근대건축자산으로 매입한 2층 상가건축이 지난 ‘21년 여름 장마로 인해 일부가 훼손됨에 따라 안전상의 이유로 철거하였음.

2) 검토의견

- ‘익산 숨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누구나 공감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현재 ‘종합정비계획’을 마련 중에 있는 만큼 관계부처인 문화재청과 협의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가옥 및 골목길 등으로 이어지는 경관 요소의 제거와 주변 경관을 고려하지 않은 현대식 건축물의 신축, 그리고 근대건축자산에 대한 철거), ‘익산 숨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에 적지 않은 공간상의 변화가 발생한 것은 분명한 사실임. 특히, 소실된 경관 요소(가옥)와 근대건축자산으로 인해 역사 경관이 분절되었다는 점에서 ‘면’단위 등록문화재로서의 의미가 퇴색되었으며, 회복한다 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됨.
- 게다가, 익산시(역사문화재과)에서 제시한 대로 소실된 가로 경관을 회복하고 건축자산을 그 자리에 복원한다는 것이 과연 당초의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 취지에 부합되는 것이지 신중히 생각해 볼 문제임.

- 따라서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익산 숨리 근대역사문화공간’을 담고 있는 등록 구역 중 이번 도시재생 관련 사업으로 공간상의 변화가 발생한 부분을 제외하는 문화재 등록구역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와 함께 앞으로도 ‘익산 숨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적 진정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훼손된 역사 경관 및 소실된 근대건축자산 등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조치 방안 마련이 전제 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4. 「기아마스타 T-600(삼륜자동차)」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 소장 「기아마스타 T-600(삼륜자동차)」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기아마스타 T-600(삼륜자동차)」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21.6.11.)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2.1.13., 1.26.)를 실시하고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문화재명칭(안)	수량	규격 (길이×폭×높이)	제작년대	소유자	소재지
기아마스타 T-600 (삼륜자동차)	1대	330×132×175cm	1972년	○○○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 (3) 검토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 (4) 추진경과
 - ('21.6.11.) : 문화재 등록 신청(서울시→문화재청)
 - ('22.1.13.) : 문화재 등록 검토 조사 실시
 - ('22.1.26) : 문화재 등록 검토 추가 조사 실시(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라.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 본 신청건은 1970년대 조립·생산한 화물 차량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발달 및 용달운수업의 토대를 구축한 유물임. 지난 50년간 롯데제과 대리점 운영에 활용해 옴으로써 70년대 이후 유통·판매업의 단면을 파악할 수 있는 소중한 가치가 있는 자료라고 판단됨
- 다만, 등록된 차종, 차량의 주요 활용용도 등을 감안할 때 「기아마스타 T600(롯데제과 제품운반용 트럭)」으로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됨

마.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2> 참조

○ 문화재위원 ○○○('22.1.13, 1.26.)

- 기아산업(기아자동차 전신)은 1969년 8월부터 1974년까지 기아마스타 T600을 7,742대 생산했음. 신청 대상은 1972년 생산한 차량임.
- 1972년 롯데제과가 대량 구입해 대리점주에게 지급한 차량 가운데 하나로, 제과 도매업을 하는 ○○○ 씨(1944년생)가 현재까지 50년째 소유하고 직접 운행해 온 공식 등록 차량임.
- 현재 운행되는 등록차량 가운데 가장 오래되었다는 점, 자동차산업·용달 운수·제과물류·생활사 측면에서 다양한 의미와 스토리를 지니고 있다는 점, 활용가치가 매우 높다는 점 등으로 볼 때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함.

○ ○○○○○ ○○ ○○○('22.1.13.)

- 이 자동차는 1972년에 생산된 삼륜자동차 기아마스타 T600으로 우리나라 초기의 자동차 산업 및 기술을 잘 보여줌
- 좁은 골목길 운행과 적은 기름 소비 등 한국의 상황에 잘 부합하여 용달운수업의 획기적인 토대가 됨
- 현재도 운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관련 자료와 운행 경험 등 그 자체의 역사성이 풍부하므로 자동차전시, 야외 퍼레이드 등 다양하게 활용 가능
- 비록 동일 유형의 등록문화재가 존재하나 그보다 보존성, 역사성, 활용성 등이 우수함

○ ○○○○○ ○○ ○○○('22.1.13.)

- 1973년 등록된 근거리 용달배달에 대한 대표적인 차종으로, 출고된 차종 그대로 지금까지 50년간 운영되는 유일한 차량임
- 운영하면서 소모되는 각종 부품을 현재에도 활용할 수 있는 다수의 부품을 보유하여 종합적인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상당함
- 같은 차종에 대한 2점이 문화재 등록되어 있으나, 본 차종은 다른 어떠한 차종보다 원래의 상태가 가장 뛰어나다고 판단되며, 50년간의 운행대장 관리와 지금도 운행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가장 부각되는 차종임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명칭은 「기아마스타 T600(롯데제과 제품운반용 경3륜 트럭)」으로 추진

○ 출석 8명 / 조건부가결 8명

<붙임1> 기아마스타 T-600(삼륜자동차) 사진



정면



후면



측면



조수석 사이드미러



운전석 사이드미러



화물칸 내부



실내



상표



지붕



차고



여분의 부품



엔진

<붙임2>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기아마스타 T-600(삼륜자동차)
2. 소유자 : ○ ○ ○ 3.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54길 36
4. 수 량 : 1대 5. 규 격 : 330×132×175cm(길이×폭×높이)
*배기량 577cc, 최대적재량 500, 승차정원 2명, 기통수 2기통
6. 재 질 : 금속 7. 제작년대 : 1972년
8. 조사자 의견('22.1.13., 1.26.)

<문화재위원 ○○○>

1) 개요

- 기아산업(기아자동차 전신)은 1969년 8월부터 1974년까지 기아마스타 트럭 T-600(3륜 화물차)을 7742대 생산했음. 신청 대상은 1972년 생산한 T-600 차량임.
- 기아마스타(Kia Mastar)란 상표가 선명하게 붙어 있음. 현재 최대 시속 75Km까지 운행 가능함. 전체적으로 차량이 노후했지만 보존 상태는 양호함. 기능이나 부품 등의 측면에서 원래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으며 운행에도 전혀 지장이 없음.

2) 주요 내용 및 특징

- 일본의 소형 3륜트럭 전문 업체인 도요고교(東洋工業)에서 생산한 자동차 부품을 수입해 조립 생산. 배기량은 577cc, 적재량은 500Kg.
- 기아산업은 이에 앞서 1962년 도요고교와 기술제휴를 맺고 경3륜 트럭 K-360을 조립해 생산한 바 있음. T-600은 K-360의 엔진과 배기량을 강화한 것임.
- 이번 신청 대상은 1972년에 생산한 T-600 가운데 하나임. 1972년 롯데제과가 대량 구입해 대리점주에게 지급한 것으로, 제과 도매업을 하는 신청자(1944년 생)가 현재까지 50년째 소유하고 직접 운행해 온 공식 등록 차량임. 1972년 차량 등록을 했음. 신청자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엔 대리점주가 운영비를 부담했다고 함.
- 이 차량은 1976년 화물칸을 달아 개조했음. 롯데제과 본사가 효율적인 제품 운반을 위해 일괄적으로 화물칸을 설치한 것임. 이 과정에서 운전석 지붕의 비상용 바퀴를 제거했음. 그 흔적(바퀴 고정장치)은 남아 있음.
- 당시 롯데제과 대리점주들은 T-600 차량을 운행하다 세월이 흐르면서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했다고 함. T-600은 1980년대 말까지 거의 사라져 이 무렵부터 희귀해졌음.
- 차량은 전체적으로 노후하지만 기능이 양호하며 최대 시속 75Km까지 운행 가능함. 이 차량은 1980년대 말부터 언론(신문 잡지 방송)에 100여 차례 소개되었음. 각종 행사에서 운행을 하거나 드라마의 소품으로 등장하기도 했음.
- T-600은 현재 10여 대가 남아 있으며 이것들은 모두 외관이 파란색(+흰색) 계통임. 그러나 신청 대상은 외부가 분홍색(+흰색) 계열인데, 이는 롯데제과가 운반 차량을 일괄적으로 분홍색 계통으로 도색했기 때문임.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외관의 도장이 일부 탈락하고 균열이 보임, 바닥과 곳곳은 녹이 슬었고 유리창 개폐 손잡이, 운전석 문 손잡이, 의자 등 곳곳이 낡았음. 헤드라이트도 차체 안쪽으로 약간 밀려들어갔음. 그러나 오랜 세월동안 운행했기 때문에 생긴 불가피한 노후 현상임.
- 전체적으로 차량이 노후했지만 보존 상태는 양호함. 아직도 ‘기아마스타(Kia Mastar)’ 상표가 선명하게 붙어 있음. 부품이 80%가 원래의 것임. 기능이나 부품 등의 측면에서 원래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음. 운행에도 전혀 지장이 없음.
- 화물칸을 만들어 탑차 형식으로 바꾸었는데 이를 원형 훼손이라고 볼 수도 있음. 그러나 이 화물칸은 당시 롯데제과 제품을 효과적으로 운반하기 위해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개조한 것임. 따라서 원형 훼손이 아니라 당시의 용달차량 운영 방식이나 사회상을 보여주는 요소라고 평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함.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소유주는 이 차량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이 대단하며 차량 관리도 철저히 해오고 있음.
- 차량을 창고에 잘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 부품의 여유분을 몇 세트씩 준비해 부품의 단종에 대비해 놓아 보존 환경은 양호한 편임.

5) 문화재 활용 관련 사항

- 이 차량은 언론과 드라마, 행사 등에 이미 100여 차례 소개되었고 그 때마다 화제를 불러일으킴. 이런 전례에서 드러나듯 그 활용 가치가 매우 높음. 특히 현재 등록된 차량으로 운행중인 점에서 그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됨.
- 소유주는 T-600 차량의 역사적 문화적 의미와 활용 가치에 대해서도 잘 인식하고 있음. 문화재청, 서울시 등과의 협의를 통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도 가능함.
- 소유주는 매해 의사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기증 의사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임. 적절한 시점에 공공기관이나 롯데제과 등에 기증이 이뤄질 경우, 상시적인 활용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기아마스타 트럭 T-600(3륜 화물차)은 현재 10곳에 11대(추정)가 남아 있음. 이 가운데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것은 국가등록문화재임.
- 신청 대상은 11대 가운데 유일하게 등록차량으로 운행 중임. 또한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50년 동안 운행의 내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품보다 더 가치가 높다고 평가함.

7) 등록가치의견

<자동차산업의 측면>

- 신청 대상인 기아마스타 T-600(삼륜자동차)는 우리 자동차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음. 조립공정 시스템을 갖추고 대량 생산한 국산 자동차(조립)로, 당시 자동차 생산기술 확보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 참고로 1955년 생산한 시발은 폐기된 미군 지프의 엔진과 부품들을 이용해 제작한 차량임.
- T-600은 기아산업(기아자동차 전신)이 자동차 회사로서의 위상을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함.

<용달운수업과 생활사의 측면>

- 1970년대 국내 용달운수업의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 당시의 용달운수 문화를 잘 보여줌.
- 특히 이색적이면서도 친근한 디자인으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으며 ‘고바우’ 김성환의 풍속화에도 등장함.
- 3륜인 까닭에 적지 않은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도 했고 이로 인해 출시 3년 후인 1972년부터 고속도로 통행이 금지됨.

<풍부한 스토리의 측면>

- 현재 등록 운행 중인 차량 가운데 가장 오래되었음. 50년 된 차량이 멈춰있지 않고 지금도 운행 중이라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고 의미가 큼.
- 50년 동안의 운행 내력이 고스란히 남아 있고 애초의 소유자가 지금까지 직접 관리하고 운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높음.
- 차량과 관련해 다양한 스토리와 자료들(1973년 최초의 등록원부와 이후의 등록증, 차량점검 내용, 주요 내용 등)이 남아 있음. 2012년 중고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10억 원, 11억 원에 매물로 등록한 적도 있음.
- 50년 된 차량의 본래 기능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희귀한 사례로, 근대유산(등록 문화재)으로서의 의미와 가치가 제대로 구현하고 있다고 평가할만함.
- 따라서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며 나아가 근대문화재의 존재 의미와 활용의 측면에서 전범이 될 만함.

8) 기 타(등록 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문화재 명칭은 차종, 활용내용 등을 고려하여 「기아마스타 T600(롯데제과 제품 운반용 트럭)」으로 제안함

<○○○○○ ○○ ○○○>

1) 개요

- 삼륜화물차로 기아마스타 T-600
- 1969년 8월에서 1974년까지 7,742대 생산
- 근거리 화물운반용 용달차로 널리 사용
- 국내에 5대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

2) 주요 내용 및 특징

- 기아산업(기아자동차 전신)이 1969년부터 조립 생산한 초기 삼륜자동차
- 삼륜자동차 K-360, T-1500에 이은 세 번째 모델로 가장 많이 보급되어 활용
- 일본의 부품/장비를 이용한 조립 생산을 통해 자동차 산업/기술의 교두보 마련
- 좁은 골목길 운행과 적은 기름 소비 등으로 용달운수업의 획기적 토대 구축
- “딸딸이”, “삼발이”로 불리며 많은 운수업자들의 환영과 국민적 관심을 받음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롯데제과가 1972년 일괄 구입하여 대리점주들에게 지급한 차량으로 원형 보존이 아주 잘 이루어져 있으며 실제 운행이 가능한 상태

- 화물칸을 달아 개조했으나(탑차 형태: 자동차등록증 관련 사항) 1976년 롯데제과에서 눈비 내릴 경우 적재한 제품을 보존하기 위해 행한 조치로 이것 자체가 역사성 지님
- 유리창, 손잡이, 헤드라이트, 도색 등 몇몇 부분의 훼손과 부식이 있으나 주요 부분은 원형과 기능이 잘 유지되고 있음
- 더구나 소유주는 이 자동차에 관한 각종 소모 부품을 다양하게 갖추고 있어 그 주요 부분의 보존 유지가 상당 기간 가능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자동차를 보존 관리할 차고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눈비와 바람 등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음
- 주요 부품의 고장이나 마모 등을 대체할 여분의 부품을 따로 보유하고 있는 관계로 후속적인 보존 관리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음
- 다만, 자동차 운행이 가능하여 그 운행에 따른 사고, 훼손 등에 대한 대책 규정이 새로이 갖추어져야 함

5) 문화재 활용 관련 사항

- 그 외형이 아주 독특하여 자동차 전시회의 주요 차종으로 소개가 가능
- 자동차는 물론 관련 자료와 운행 경험도 충실하게 갖추고 있으므로 특별전시회의 소재로 활용
- 현재도 운행이 가능하여 야외 퍼레이드 형태의 특별행사도 가능
- 다른 행사들에서 주목을 끄는 희귀 아이템으로 활용 주목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국가등록문화재로 이미 지정된 것이 있으나(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 주요 부분에서 차이가 존재함
 - 첫째로 이 자동차는 아주 드물게 현재도 운행이 가능하다는 점임
 - 둘째로 자동차와 함께 그 기록과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점임
- 따라서 이 자동차는 그 자체가 삶의 기록을 지니고 있는 '살아있는 문화재'라고 할 수 있음

7) 등록가치의견

- 우리나라 초기 자동차의 산업, 기술, 활용 등의 전모를 보여주는 보기 드문 사례
- 개조되어 탑재된 화물칸도 일찍 산업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그 자체가 역사성을 지님
- 비록 등록된 동일 자동차가 존재하긴 하나 운행 가능성, 역사적 기록 등의 측면에서 뚜렷한 차별성 보유
- 이 자동차는 활용의 측면에서도 야외 퍼레이드, 특별전시 등 남다른 점이 존재

8) 기 타(등록 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할 경우 차량등록증, 번호판을 비롯한 관련 주요 자료도 함께 포함하는 것이 필요
- 현재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라는 남다른 장점을 잘 살리는 것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관련 규정도 신설이 요구됨

9) 참고문헌

-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심의 조사보고서
- 2007년 근대문화유산 교통(자동차)분야목록화 조사보고서
- 관련 신문기사들

<○○○○○ ○○ ○○○>

1) 개요

- 상기 차종은 1972년 롯데제과가 단체로 구입하여 현 차주의 부친인 대리점주에게 불하한 차종으로 1973년 6월 등록하였음
- T-600차종은 당시 근거리용 용달화물용으로 최적의 모델로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대표적인 모델이었음
- 약 7,700여대가 생산되어 현재 신청건 포함 11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문화재로 등록된 차종이 2대이며, 상기 차종이 문화재 등록을 신청한 상태임
- 다른 차종은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이나 현 차종은 50년 동안 운행되어 지금도 운행되는 현존하는 살아있는 유일한 차종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음
- 상기 차종은 차주가 별도의 실내 창고에서 관리 중에 있는 상황이고 창고에는 해당 차종을 수리할 수 있는 각종 부품을 구비하여 추후 정비할 수 있는 영역도 확보했다는 특징이 있음
- 지속적인 정비로 운행이 가능하나 도장이 벗겨지고 각 부위가 노후화되어 부러지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영역이 넓어지는 상황임
- 상기 차종은 50년간 직접 운행할 정도로 원상태가 잘 관리되고 있고 관련 서류 보관 등 자동차 자체는 물론 관련 자료와 함께 충분한 문화재 등록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2) 주요 내용 및 특징

- 동일 종류 중 50년간 초기부터 현재까지 운행되는 유일한 차종이고 상태 또한 원만한 상태임.
- 보관용 창고와 함께 관련 소모성 부품과 외부 램프 등 다수의 부품을 보유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부품의 소실에 대한 준비가 가능한 차종으로 의미가 큼
- 심사 당일에도 정비소에 입고하여 수리를 의뢰하여 운행예정으로 준비 중이었음
- 1973년 등록 후 3년이 지난 1976년 화물칸을 개조하여 탑차 형태로 개조함. 등록 중에 개조 여부가 확인되고 있으나 문화재 등록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상황일 정도로 합법적이고 체계적인 절차를 따름
- 최근 대여 요구조건에 따라 탑을 분리하기도 하는 형태임
- 50년간 운행되면서 관리대장, 세금 영수증 등 다양한 자동차에 얽힌 서류를 모두 보관하여 등록 시작과 함께 체계적인 관련서류를 포함하는 유일한 차종으로 의미가 있음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1973년 등록 후 3년 후 1976년 화물칸 설치를 하였음. 자동차 등록중에 기록된 합법적인 개조로 판단됨
- 전체적인 외형이나 보존 상태는 양호함. 지난 50년간 지속적으로 사용할 정도로 양호하게 관리됨 원형을 유지하는 그대로의 상태이나 부분적으로 손상된 부분은

추후 복원할 필요가 있음

- 좌우 방향지시등, 미등, 전조등 등 전체적으로 큰 훼손은 없는 상태임
- 화물칸 벽체 일부, 유리창 손잡이, 운전석 문손잡이 등 훼손
- 좌석을 비롯한 내부 인테리어 곳곳이 노후로 인하여 손상된 상태
- 도어를 포함한 여러 곳 손실된 상태임
- 엔진룸을 포함한 각 부위에 부식 진행 등 관리가 요구됨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 환경

- 상기 차종을 50년간 운행하면서 이를 보관하기 위한 별도의 실내 창고가 있는 상태
- 창고 내에는 상기 차종의 각종 소모성 부품과 반영구적 부품을 다수 마련해 놓은 상태임. 예를 들면 각종 램프류, 미등 커버 등
- 근처 단골 정비업소에서 운행 중 발생하는 오일류 교환 등이 항상 이루어지고 있음
- 50년 운행 상태이므로 현재의 환경기준 등이 충족되지 못하여 항상 폐차의 압력을 받고 있고, 특히 과태료 처분 등 문제 해결이 요구되는 상황임
- 주변의 전문적인 복원 등의 진행이 되지 못하여 차량의 문제점은 더욱 커지고 있어서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임
- 소유주의 최대한 노력이 경주되고 있으나 전문적인 지식이나 재정적인 지원에 한계가 큰 상황임

5) 문화재 활용 관련 사항

- 상기 차량은 차량만 있는 상태가 아니라 50년간 운행된 차량이면서 현재도 운행되는 차량, 관련 부품 관리, 50년간 각종 운행관련 세금 납부영수증은 물론 정비 차계부 등 모든 자료가 현존하는 살아있는 골동품이라 할 수 있음
- 추후 전시 활용 시 차량과 함께 관련 모든 역사를 함께 전시할 수 있는 유일한 차종으로 의미가 큼
- 당시 근거리 화물운반업을 연 대표적인 모델로 의미가 큼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기 국가등록문화재 와의 차별성은 초기 상태로 50년간 운행되고 있는 유일한 모델
- 관련 부품 보존과 정비 및 세금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등 T-600의 모든 것을 살아있는 상태로 유일하게 보존가능하다는 점
- 정지 상태에서 보이는 다른 모델이 아닌 '살아있는 골동품'을 보여주는 유일한 모델임
- 초기 상태의 모든 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추후 복원 등이 아닌 최초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점
- 다른 차량 근대문화재 중 아마도 유일하게 운행이 가능하고 관련 자료가 모두 존재하는 유일한 모델이라 판단됨

7) 등록가치의견

- 국내에 남아있는 문화재급 차량 중 상기 차량과 같이 지금은 물론이고 지난 50년간 운행되는 유일한 차종으로 등록가치는 가장 크다고 판단됨
- 초기 운행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판단됨
- 관련 정비일지와 세금영수증은 물론 각종 차량관련 자료가 보존되어 문화재급 가치로서 가장 이상적인 상태임

- 국내 자동차 역사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모델로 가장 큰 의미가 있을 것임(차량의 등록은 가능하나 자료의 지정은 어려운만큼 별도 보관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8) 기 타

- 추후 문화재 등록 후 현재와 같은 길거리 운행은 어려운 만큼 조치를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추후 조치가 요구되며, 노후화로 진행된 각종 부위에 대한 체계적인 전문 복원이 필요하여 추후 관리적인 부분도 고민해야 함
- 유물의 명칭은 「기아마스타 T600(롯데제과 운반용 경트럭)」으로 제안함

5. 「초대 주미조선공사관 이상재 문서」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국립고궁박물관 소재 「초대 주미조선공사관 이상재 문서」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1년도 「근현대문화유산 외교·통상 분야 목록화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초대 주미조선공사관 이상재 문서」의 국가등록문화재 검토를 위한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2.2.4.)를 실시하고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대상문화재

문화재명칭(안)	수량	규격 (세로×가로) (미국공사왕복수록)	제작년대	소유자	소재지
초대 주미조선공사관 이상재 문서	2건 2점	25.0×17.5cm/ (미국서간) 29.0×19.8cm	1887 ~ 1889년	국립고궁 박물관	서울 종로구 효자로12

(3) 검토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4) 추진경과

- ('21.3월~11월) : 근현대문화유산 외교·통상 분야 목록화 조사 연구용역 『미국공사왕복수록』 A등급 / 『미국서간』 B등급 분류
- ('22.2.4.) : 문화재 등록 검토 조사 실시

라.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 『미국공사왕복수록』과 『미국서간』은 초대 주미조선공사관에서 서기관으로 재직했던 이상재가 기록해둔 공적 문서 및 편지로, 서양국가에 최초로 설치된 공사관에서 박정양 공사를 중심으로 수행했던 외교업무를 생생하게 알려주는 자료임. 주미조선공사관원의 자료가 매우 희소하다는 점과 함께 확실한 소장 경위(이상재 가문 기증)를 고려할 때 역사적 가치가 높음

- 다만, 명칭에 대한 의견이 있는 바 명칭부여에 대해 논의가 필요함
 - 명칭 의견 : 초대 주미조선공사관 서기관 이상재 문서

[참고사항]

- '초대' : 첫 번째 주미공사관 개설(피셔 하우스, 임대, 1888.1.19.~1889.2월)
 - *박정양 공사 재직 기간(1888.1.19.~1888.11월)
 - 두 번째 주미공사관 개설(아이오와 서클, 임대 후 매입, 1889.2.13.~)
 - *을사늑약 이후 폐쇄(1905.11.17.이후), 강제병합 후 매각(1910.9.1.)
- '조선' : 파견 국가가 조선왕조임을 표시 (이후 대한제국과 구분)
- '주미공사관(駐美公使館)' : 『미국공사왕복수록』 판심에 적힌 기관 공식 명칭
- '서기관(書記官)' : 이상재의 파견 당시 직책. (당시 공사는 박정양)

마.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2> 참조

○ 문화재위원 ○○○('22.2.4.)

- '검토건'은 가전되어 오던 이상재 관련 유품으로 집안에서 보관해 오던 것을 후손인 이상구씨가 2019년 국립고궁박물관에 기증하여 소장 경위가 분명함.
- 『미국공사왕복수록』은 초대 주미공사관 서기관 이상재가 공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행한 주요 문서 및 공사관 업무에 필요한 내용을 정리한 문서이며, 필사본의 유일본으로 초대 주미공사관의 외교 업무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서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함.
- 『미국서간』은 초대 주미공사관 이상재가 본국의 부모에게 보낸 편지를 정리한 필사본 책자로, 편지 내용에는 개인적인 것도 많이 있으나, 미국에서의 삶, 미국의 사회에 대한 이해, 공사관 생활의 어려움 등 외교관으로서의 이상재가 느낀 사적인 면모들이 드러나 공사관에서의 삶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유일본 자료임. 따라서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함.

○ ○○○○○ ○○ ○○○('22.2.4.)

- '검토건'은 초대 주미전권공사의 활동을 살펴볼 수 있는 1차 사료로 단순히 한미관계뿐 아니라 조선의 외교관계 전체를 새롭게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학술·교육·전시자료임. 『미국공사왕복수록』은 당시 외국에 설치된 공사관에서 현직 외교관이 작성했던 유일무이한 비망록 혹은 편람이라는 희소성을 지님. 이들 자료는 이상재의 후손이 소장해왔던 것으로 그 경위 역시 확실하고 보존상태도 비교적 양호함. '검토건'은 박정양의 자료와 서로 보완적인 관계이므로 가능하면 두 자료를 일괄해서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함.

○ ○ ○ ○ ○ ○ ○ ○ ○ ○ ○ ○ ('22.2.4.)

- 현전하는 유일한 자료임. 공사관 서기관 이상재 후손 집안에 가장되어 온 자료로서 소장경위가 명확함. 일부 번짐과 접힘을 제외하면 자료의 보존상태 또한 매우 양호함. 현재 박정양 저술을 제외하면 초대 주미공사 일행의 구체적인 외교 활동과 교섭 내용을 보여주는 관련 자료가 매우 희소하므로,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 이상을 종합하였을 때 본 조사대상은 수교 이후 초창기 한·미 간 외교관계와 개항기 조선의 재외공관 운영 실태를 상세히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등록문화재로서 가치가 충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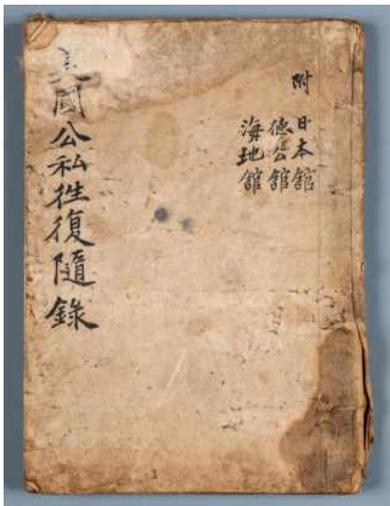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명칭은 「주미조선공사관 관련 이상재 기록」으로 추진

○ 출석 8명 / 조건부가결 8명

<붙임1-1> 『미국공사왕복수록』 이미지



표지 앞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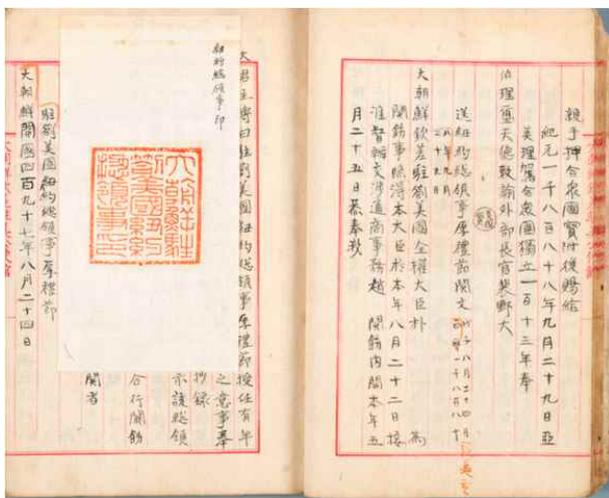
참고: 이상재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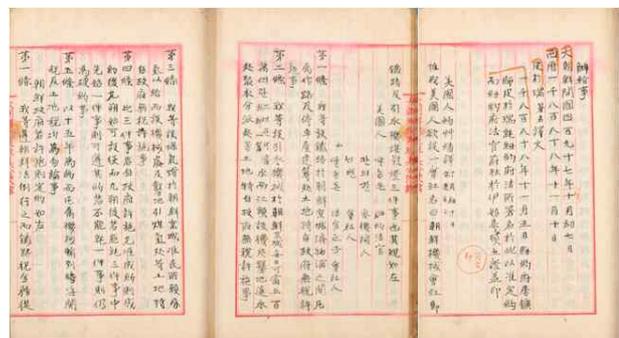
용지 측면(대조선 흠차 주미 공사관)



送外部照會(송외부조회)



뉴욕(紐約) 총영사인



美國人約艸(미국인약초)

<붙임1-2> 『미국서간』 이미지



앞면 표지

轉達于 朝家以請幾許加俸而自 朝家必不燭此例事此請
 謂以俸用豈不伏閔乎惟伏幸身就無煩也朴日亦平安耳
 此書似按明年三月間可以 下燭也四萬里外事何可望
 便祈之速傳也自吾家待京中使載書以付於竹洞則似可
 無滯信到耳餘不備達 丁亥十月初旬夕子
 美國風俗以民為主權所謂君主以四年交遊人民會
 議差出故君主無權專以民議為主耳
 間有屢度上書果即次第下鑒否即桂十月十七日出賓

정해 11월 초8일(양력1887.12.22.)

之政而不令人倫大幸也
 間有屢度上書以付於竹洞便矣伏未知能老中聞浮沉否
 一自來此以後漢未承一字 下書伏醫了伏未審
 氣體候以時為安家內并得太平兒輩能善習善處伏甚且
 志無任下誠林山訟重聞果何以安當否于去月二十日始獲美
 國京城以今初五日遊呈 國書以今初六日定公館入往新樓比百
 自多事職至若日用凡物物價騰貴日食費以我國錢洽為
 百金則年俸一千圓以是太半不足樣伏未知何以推過而方也

정해 12월 8일(양력1888.01.20.)

歸期則未此姑無過十餘日則姑難的指以何間而公館則
 以每年稅錢七百八十圓或為一萬二千兩為定人住而館中
 日用什物則以一千五百餘圓買置朝夕飯則使下人第
 買米買肉而自館中做飯以喫米一斗俸以我國錢洽過
 一百兩內一斤俸以我國錢洽為十餘兩則物價騰騰
 推可知矣而白米一斗俸以我國錢洽亦過六七兩
 自昨秋至臘屢度書伏想次第 下覽而一未承 下書
 遠外伏祈若有其極休矣

무자 1월 1일(양력1888.02.12.)



참고: <죽천고>, 국립고궁박물관 기탁

Washington, U.S. A.
 June 12th, 88.
 Dear my Gen,
 I received
 letters from home and
 learned that you are very
 well. How you like steve?
 I hope you have good time
 with your company. We
 are all well here. I remain,
 Yours truly,
 C. Y. Pak.

LEGATION OF KOREA
 WASHINGTON.

利尼大人貴下頃因我國未信憑知
 貴大人穩抵我 京甚欣且慰錄務想已
 間設軍容從可增彩惟望
 貴大人用意設教期臻精銳何幸如之為
 頌
 文禮不宣
 戊子五月二日朴定陽 啟

참고: <박정양 편지>, 국외소재문화재단

<붙임2>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초대 주미조선공사관 이상재 문서
2. 소재지 : 서울 종로구 효자로12 국립고궁박물관
3. 소유자 : 국립고궁박물관
4. 조사자 의견('22.2.4.)

<문화재위원 ○○○>

1) 개요

- 『미국공사왕복수록(美國公使往復隨錄)』은 민족운동가 이상재(李商在, 1850-1927)가 1887년 초대 미국공사 박정양의 수행원으로 워싱턴에 주재했을 때 미국과의 조약 문서 및 관련 문헌 등을 기록한 필사본 책자임. 미국 정부 및 주요 인물, 기관들과 주고 받은 문서와, 공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참고 사항을 적은 일종의 편람으로 볼 수 있음.
- 『미국서간(美國書簡)』은 역시 미국 공사관에 주재할 당시에 본국에 보낸 편지를 기록해 놓은 필사본으로 주요 내용은 문안 인사와 집안 일이나, 공적인 문서에는 표현하기 어려운 미국 공사관에서 생활상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음.
- 『미국공사왕복수록』과 『미국서간』등 이상재 선생 관련 자료들은 고손 이상구 선생이 자택에서 보관해 오고 있었으며, 주미공사 관련 자료를 탐문하던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발굴하여 이상재 사진 등 문헌자료 5점과 사진자료 3점을 2019년 2월 국립고궁박물관에 기증한 것임.
- 1887년에 박정양이 초대 주미공사로 미국 워싱턴에 부임한 것은 서양국가에는 처음으로 공사관을 개설한 것으로, 그 수행원인 이상재가 정리한 주요 외교문서인 『미국공사왕복수록』과 본국에 보낸 서신인 『미국서간』은 초대 주미공사관 시기의 공적인 공무 수행 내용과 더불어 사적인 생활까지도 세세하게 알 수 있는 귀중한 문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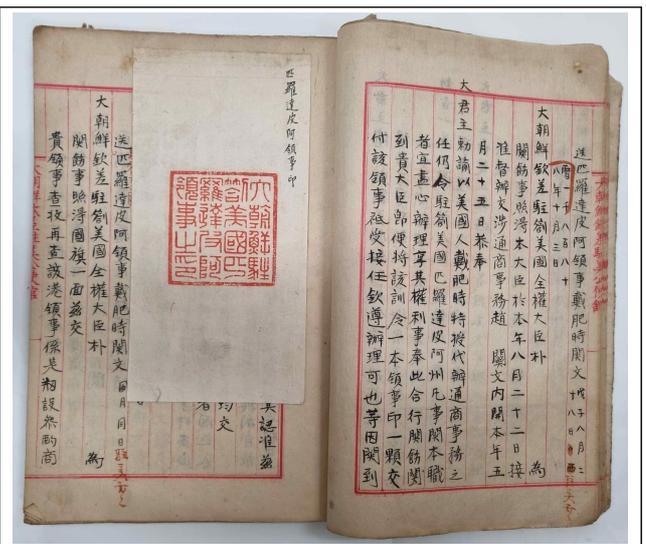
2) 주요 내용 및 특징

- 『미국공사왕복수록』은 이상재가 주미공사 박정양을 수행한 시기인 1887년 11월부터 1889년 1월까지 주미 공사관에 체류하면서 미국 정부 및 주요 기관 및 개인과 주고 받은 문서를 정리한 편람임. 맨 처음 문서인 「美國答書 驛漢文」(1883년 3월 1일= 음 2월 6일)을 제외하면 주미 전권공사 박정양이 워싱턴에 도착한 직후인 1888년 1월 10일(음 1887년 11월 27일)부터 귀국 후 2년이 지난 1891년 6월(음 1891년 7월)까지 총 3년여에 걸쳐 있음.
- 『미국공사왕복수록』은 본문 138쪽, 크기 25.0x17.5cm 크기로, 11줄로 구획된 용지를 5줄 선침으로 묶은 책자에 필사로 쓰여 있으며, 판심(版心)에 ‘大朝鮮欽差駐美公使館’이라고 찍혀 있어 주미공사관의 공무용 전용지를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음. 이 용지는 미국으로 부임할 때 본국에서 마련해 간 것으로 보임. 겉표지에는 왼쪽에 종서로 “美國公使往復隨錄”이라고 쓰고 오른쪽에는 “附 日本館 德公館 海地館”이라 적고 있어 일본 공사관, 독일 공사관, 아이티 공사관과 주고받은 문건도 함께 실고 있음을 밝혔음.

- 『미국공사왕복수록』의 내용은 ① 미국 등 외국과 주고받은 공문서, ② 공사관을 통해 추진했던 전기 등 사업 관련 문서류(약 43건) ③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비망록(인물명, 공사관이 여는 날짜 등) ④ 부록으로 독일공사관, 일본공사관, 아이티 공사관 등에 관련된 문서(6건) 등으로 나눌 수 있음. 미국 등 외국과 주고받은 영문 문서들은 한역해서 수록함. 『미국공사왕복수록』은 한철호 역으로 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서 2019년에 번역본을 발간함.
- 맨 처음에 수록된 「美國答書 驛漢文」은 1883년 4월 14일 미국대통령 아더(Chester A. Arther)가 초대 주한공사 푸트(Lucius H. Foote)를 통해 고종에 전달한 문서로, 조미조약 체결후 조선이 청의 종주국임을 주장하는 속방론에 대해 조선이 내치와 외교를 자주적으로 하는 자주국가이기 때문에 미국 의회에서 제6조의 일부분만 제외하고 이 조약을 비준하여 시행할 것임을 밝힌 답변서임. 따라서 이 문서는 조선이 자주외교를 펼치는 데에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되었을 것으로 보임.
- 이후는 초대 공사 박정양이 국서를 봉정하는 수속을 밟는 「送美國外部照會」(1888년 1월 10일자 = 음 1887년 11월 27일자)부터, 영약삼단(另約三端·세 가지 이면 약속) 문제로 귀국하게 되면서 수행원이었던 이하영을 임시대리공사로 임명하는 「送外部照會」(1888년 11월 16일자 = 음 10월 13일자)까지 미국 정부 및 관계자들과 주고받은 문서들임.
- 1888년 1월 18일(음 1887년 12월 6일)자로 미국 국무부 베이야드 국무장관에게 보낸 「送外部照會」에는 초대 주미 공사관을 「華城頓 第15町 1513番地(1513 O street, N.W. Washington D.C.) 皮瑞屋(Fisher House)로 정했으며, 다음날(1888.1.19.)부터 공사관 업무를 시무하게 되었다고 통보하고 있어, 초기 주미공사관의 주소와 시무 날짜 등이 기록되어 있음.



뉴욕 총영사 직인이 첨부된 면



필라델피아 영사 인이 첨부된 면

- 뉴욕과 필라델피아에 명예영사를 임명하는 과정에 관한 내용도 있음. 필라델피아 민선의원인 오닐(John H. O'Neill)이 박정양 공사에게 친구인 데이비스(Robert H. Davis)를 필라델피아 명예영사로 추천한 내용이 있으며, 뉴욕 명예영사인 프리저(Everette Frazer)와 필라델피아 명예영사인 데이비스에게 보낸 임명장에는 총영사와 영사의 직인이 별지로 첨부되어 있기도 함.
- 『미국공사왕복수록』에는 알렌의 편지 한글 번역본도 수록되어 있는데, 참찬관 알렌이 워싱턴을 떠나 도쿄에 머물고 있는 박정양에게 자신이 권유하여 영약삼단을 어겼음을 입증해 주는 내용임.

- ‘영약삼단’은 미국과의 외교 절차에서 ‘조선 공사는 청국 공사의 안내로 주재국에 신 임장을 제정하며, 청국 공사보다 낮은 자리에 앉고, 청국 공사와 중요 사안을 협의 하고 지시를 따른다’는 것으로 청이 강요한 것이나, 박정양과 알렌은 이를 무시하고 미국에 국서를 전달함. 이 편지는 한문 원본(「安連札」, 1889년 1월 25일자)도 있음. 이는 알렌이 영약삼단 위반을 주도했다고 밝힘으로써 박정양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와 더불어, 자신의 공을 내세우는 면도 있는 것으로 파악됨.(한철호, 「초대 주미전 권공사 朴定陽의 활동과 그 의의」, 『한국사학보』77, 2019)
- 주미공사관을 통한 추진 사업 관련 문서로는 뉴욕의 법관 ‘딸능돈’ 등이 조선기계회사를 설립해 철로와 양수기, 가스 등 3건을 추진하기 위해 제안한 규칙과 약정서 초안 등으로, 경인선 설치에 대한 제안은 처음으로 알려진 것임.
-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망록의 내용으로는 1889년 음력 2월에 미국 신문의 내용을 정리한「美國新聞 謄本」과, 「미국 대통령, 각부 장관식 성명」을 한자와 한글로 적고, 「주차 미국 각국 공사」는 성명 및 부임 날짜 순으로 정리했고, 미국에서 각국으로 파견한 공사에 대한 기록도 있음. 또 말미에는 주요 관련 미국인들의 성명과 직위, 각부 장관 소견일, 각처 신문사, 화폐 단위, 미국 소재 한국인, 최초의 유학생 이계필과 공사관의 주소 등이 기록되어 있음.
- 『미국서간』은 이상재가 미국공사관 서기관으로 임명된 정해년(1887) 8월 9일부터 미국에 머물다가 박정양을 수행해 귀국하게 되면서 도쿄의 조선공사관에 머물고 있던 을축년(1889) 초4일까지 총 38통의 편지를 기록으로 남긴 것임. 부임 첫해인 1887년에는 9통, 1888년에는 28통, 마지막 해인 1889년에는 1통이 수록되어 있음. 대략 10일 간격으로 본국의 부모께 소식을 전한 서신임.
- 『미국서간』은 유지로 표지를 싸고 5침 선장으로 장황되어 있으며 표지 왼쪽 상단에 “美國書簡”, 오른쪽 상단에 “丁亥” “戊子”로 쓰여 1887~1888년 사이에 미국과 오고간 서신을 모은 책임을 밝히고 있음. 내지에는 “美國往復”, 그리고 표지와 마찬가지로 “丁亥”와 “戊子”가 쓰여 있으나 각 간지에는 괄호 안에 “一七八七”, “一七八八”이 쓰여 있어 이는 훗날 가침된 것으로 보임. 본문은 공사관용 용지가 아닌 백면 용지에 쓰여 있으며 총 92쪽으로 책자의 크기는 29.0x19.8 cm 임.
- 『미국서간』의 내용은 개인적인 서신인 만큼 부모의 안부를 묻거나 송사나 혼사 등 집안 일에 대한 것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이상재가 미국으로 부임하는 일정, 미국에서 활동하거나 보고들은 상황, 생활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생각 등도 들어 있음. 『미국공사왕복수록』이 공적인 기록이라면, 『미국서간』은 사적인 기록으로 개인의 감정과 생각이 드러나는 글이라고 할 수 있음.
- 내용 중에는 “미국 풍속은 民을 주권으로 삼는다. 소위 군주는 4년마다 교체되고, 인민이 회의해서 차출한다. 그러므로 군주는 권한이 없고, 오로지 民議를 주로 삼을 뿐이다”처럼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알 수 있는 것도 있으며, 미국의 물가, 공관의 임대료, 언어가 통하지 않는 데에 대한 답답한 심경, 청의 방해로 외교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겪는 어려움 등이 있음.
- 『미국서간』은 한철호 논문 등에 일부 인용되어 있으나 자세한 내용이 번역되어 있지는 않음. 개인의 일상에 관한 것은 제외하더라도, 미국공사관에 관련된 내용은 번역되어도 좋을 것임.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미국공사왕복수록』은 표지와 모서리가 조금 닳고, 표지 및 내지에 약간의 얼룩이 있는 외에는 크게 손상이나 변형 없이 보존되고 있음. 다만, 내지 일부에 붉은 색 테가 얼룩져 번진 것이 보이나, 바로 옆면은 문제없이 말끔하며 글자도 번짐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는 전체적인 손상이라기보다는 용지를 처음에 제작했을 때부터 있었던 현상으로 보임.
- 『미국서간』도 크게 변형되거나 손상된 부분은 없는 편임. 무자 정월 초 10일자 편지 일부에 수정을 위해 종이를 잘라내고 다시 붙인 면이 있으나 이는 이상재 본인이 한 것으로 보임.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미국공사왕복수록』과 『미국서간』은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기증 당시의 상태로 잘 보존하고 있음.

5) 문화재 활용 관련 사항

- 『미국공사왕복수록』은 서구에 처음으로 공사관을 마련한 초대 주미공사관에서 행한 외교 활동에 대해 서기관인 이상재가 비망록 형식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으로 남긴 것으로, 미국과의 외교 및 자주 외교에 관한 내용 및 당시 공사관원들이 했던 행적과 노력 등을 상세히 알 수 있는 문헌으로 학술적인 자료로도 매우 중요함.
- 『미국서간』은 이상재 개인이 보낸 편지이나, 이상재의 미국관, 주미 공사관에서의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 및 개인적인 생각 등이 수록되어 있어 1880년대 당시 주미 외교관의 생활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임.
- 2022년은 미국과의 수교 140주년을 맞는 해임. 이 자료들은 한미외교의 일선 현장에서 제작된 문화재로서, 수교 140주년 기념 전시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임.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독립기념관에는 2017년 이상재 선생의 고손 이상재씨가 기증한 이상재 관련 문건들이 있음. 그 내용은 시권, 주미공사관 재직 시절 일지 및 정부에 보내는 문서, 학교 설립 취지서 등과 일제강점기에 민족운동을 벌이면서 쓴 글 등임. 이 문건들은 독립기념관에서 『월남 이상재 민족운동 자료집』(2021)으로 원본 이미지와 함께 번역해 발간하였음.

- 이 중 주미공사관 시기의 문건인 「주미전권공사 서기관 재직 시절 일지」는 낱장 1매에 1888년 10월 11일, 12일, 13일, 14일자의 일기가 필사로 쓰여 있는 것임. 이에 견주어 『미국공사왕복수록』과 『미국서간』은 공사관 재직 전 시기의 내용을 담고 있어 기록자료로서의 가치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음.
- 초대 주미 전권 공사 박정양은 『미행일기』와 『미속습유』 등의 자료를 남겼으며 이는 국외소재문화재단에서 주관하여 한철호가 번역한 책자로 나와 있음. 박정양 관련 자료는 국립고궁박물관에 기탁된 문집 『죽천고(竹泉稿)』와 국외소재문화재단 소장 편지와 편지봉투가 있으며,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는 박정양이 미국으로 부임하는 도중인 1887년 음력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일본 요코하마(橫濱)에 머물다가 27일 출발하여 11월 1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할 때까지의 일기인 『해상일기초(海上日記草)』(1책 7장)가 있음. 『해상일기초』는 박정양의 부임을 앞둔 기록으로서 의미가 있으나, 『미국공사왕복수록』과 『미국서간』은 주미공사관에서 실제로 행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박정양과 이상재의 부임 기간을 아우르고 있으므로 가치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음.

7) 등록가치의견

- 『미국공사왕복수록』과 『미국서간』은 이상재 집안에서 가전되어 오던 유품으로 후손인 이상구씨가 2019년 국립고궁박물관에 기증하여 그 소장 경위가 분명함.
- 『미국공사왕복수록』과 초대 주미공사관 서기관 이상재가 공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행한 주요 문서 및 공사관 업무에 필요한 내용을 정리한 문서이며, 필사본의 유일본으로 초대 주미공사관의 외교 업무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서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함.
- 『미국서간』은 초대 주미공사관 이상재가 본국의 부모에게 보낸 편지를 정리한 필사본 책자로, 편지 내용에는 개인적인 것도 많이 있으나, 미국에서의 삶, 미국의 사회에 대한 이해, 공사관 생활의 어려움 등 외교관으로서의 이상재가 느낀 사적인 면모들이 드러나 공적 문서인 『미국공사왕복수록』과 함께 공사관에서의 삶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유일본 자료임. 따라서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함.

8) 기 타(등록 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주미공사관은 1887년에 개설하여 1905년까지 지속되었음. 초대에는 주미조선공사관으로 불렸으나 1897년 이후에는 주미대한제국공사관으로 부를 수 있어, 현재 미국 워싱턴에 소재한 옛 주미공사관을 재매입하여 2018년에 개관하였으며 명칭은 주미대한제국공사관으로 하고 있음. 이는 공사관의 마지막 명칭을 살린 것임
- 그러나 『미국공사왕복수록』과 『미국서간』은 1887~1889년 사이의 기록으로, 이 시기는 조선왕조 시기임. 따라서 등록 명칭은 1) 주미공사관 전 시기를 아우르는 “주미공사관”으로 하되, 초대 서기관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초대 주미공사관 서기관 이상재 문서>로 하거나, 2) 조선왕조 시기임을 알 수 있도록 <초대 주미조선공사관 서기관 이상재 문서>로 시기를 명시할 수 있을 것임.

1) 개요

- 『미국공사왕복수록(美國公私往復隨錄)』은 이상재(李商在, 1850~1927)가 초대 주미조선공사관의 서기관으로 워싱턴에 도착한 직후인 1887년 11월 27일부터 귀국 후 2년이 지난 1891년 7월까지 3년여에 걸쳐 공적·사적으로 업무에 관련된 문서와 참고 사항을 적은 일종의 비망록(備忘錄) 혹은 편람(便覽)임. 이상재는 주미전권공사 박정양(朴定陽)이 임명된 이후 미국정부뿐 아니라 각종 관련 인물과 기관들 사이에서 주고받은 공식 문서들을 비롯하여 개인적으로 공사 업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파악·수행하는 데 참고할 만한 사항을 모아 『수록』을 편찬함.
- 『미국서간(美國書簡)』은 이상재가 초대 주미조선공사관의 서기관으로 임명된 1887년 8월 7일 후 자신의 상황 변화를 담은 1887년 8월 9일(9/25)자 편지부터 귀국하면서 일본 도쿄의 조선공사관에서 머물던 1889년 1월 4일(2/3)자 편지까지 총 38통이 수록됨. 표지에는 ‘정해(丁亥) 무자(戊子)’라고 적혀 있는데, 1889년 기축(己丑)의 것은 마지막 편지 1통뿐이며, 그 전의 편지는 1888년 12월 15일(양력 1889/1/16)자임. 주로 이상재가 부모와 가족의 안부를 묻거나 산송(山訟)·혼사에 관련된 집안의 대소사를 논하고 있지만, 당시 이상재의 활동상과 미국관 등도 담겨져 있음. 속표지에는 ‘미국왕복(美國往復)’이라고 적혀 있음.

2) 주요 내용 및 특징

- 『미국공사왕복수록』은 공관원들의 ‘업무편람’ 성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1883년 미국 아더 대통령(Chester A. Arthur)이 초대 주한공사 푸트(Lucius H. Foote)를 조선에 파견하며 고종에게 전달한 외교문서, 박정양 공사가 미국정부 또는 관계자들과 주고받은 각종 문서들, 주미공사관을 통해 추진했던 조선과 미국정부 간 각종 현안사업과 관련된 문서들, 미국대통령과 행정부·사법부 장관의 인적 사항을 비롯해 미국주재 각국공사 명단·각 부장관 소견일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비망록, 그리고 ‘부(附)’에 해당되는 일본·독일·아이티국 공사관 관련 문서로 구성되었으며, 영문 문서들은 모두 한문으로 번역됨. 『미국공사왕복수록』은 ‘대조선흠차주미공사관(大朝鮮欽差駐美公使館)’이라고 적힌 주미공사관의 공무용 용지에 작성되었는데, ‘흠차’는 중국 황제의 명령으로 보냈던 파견임을 뜻하는 것으로 ‘대조선(大朝鮮) 대군주(大君主)’가 중국 황제와 동등한 지위를 지녔음을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의도라고 판단됨. 초대 주미전권공사가 펼쳤던 자주외교 활동과 각종 근대적 문물의 수용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임. 특히 당시 조미 양국 간 현안사업 중 뉴욕 법관 등이 ‘조선기계회사’를 설립해 철로·양수기·가스 설치 등 3건을 추진하기 위해 제안한 규칙과 약정서 초안이 수록되어 있음. 이들 가운데 미국인이 경인선 설치를 제안한 사실과 계약서인 ‘철도약장(鐵道約章)’ 초안은 최초로 공개되는 것으로 우리나라 철도사를 새롭게 밝혀줄 귀중한 자료라고 평가됨.
- 『미국서간』은 이상재의 집안 사정 외에 주미공사관 운영 상황, 미국에 주재하는 동안 활동하거나 견문한 사항 혹은 느낀 점 등도 생생하게 기록함으로써 당시 공사관의 실상뿐만 아니라 이상재의 활동상과 미국관 등을 두루 살펴볼 수 있음. 미국 도착 후 언어와 문자가 모두 통하지 않아서 듣거나 아는 것이 전혀 없고 미국의 인물·풍속·정치·법령이 우리나라와 일체 상반된다는 평가함. 무엇보다 박정양이 부임 후 영약삼단(另約三端)을 어겼기 때문에 주미중국공사로부터 끊임없이 추궁과 시달림을 받는 상황에서도 박정양이 순순히 굴복하지 않았으며, 미국주재 국가들 가운데 조선만 빈약하지만 부강한 다른 국가의 공사에 당당히 맞서려는 공사관원들의 비장한 각오를 담은 사실은 주목할 만함.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미국공사왕복수록』과 『미국서간』은 거의 원형에 가깝게 보존되어 있음. 『미국공사왕복수록』은 ‘대조선흙차주미공사관’이라고 적힌 공무용 용지 일부에 색번짐이 있고 노후화가 진행되었지만 본문 원문은 손상되지 않음.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미국공사왕복수록』과 『미국서간』은 국립고궁박물관 소장이므로 보존환경은 좋은 편이지만, 일부 색번짐이나 색변질이 있고 130여년이 지나 지면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보존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음.

5) 문화재 활용 관련 사항

- 조선은 1882년 5월 서양국가들 중 최초로 미국과 수호통상조약을 맺음으로써 실질적으로 문호를 개방했으며, 1887년에 조선 역시 박정양을 서양 국가들 가운데 최초로 미국에 전권공사로 파견함으로써 대내외에 독립국임을 과시하는 자주외교를 펼쳤음. 그러나 초대 주미전권공사에 관련해서 박정양의 자료 외에 거의 남아 있지 않음. 따라서 당시 서기관으로 파견되었던 이상재의 『미국공사왕복수록』과 『미국서간』은 조선의 생생한 대미외교활동을 보여주는 자료로 평가됨. 특히 『미국공사왕복수록』은 1905년 이전 외국에 주재한 공사관 전체를 통틀어서 현직 외교관이 작성했던 유일무이한 비망록 혹은 편람으로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님. 『미국서간』 역시 단순한 개인적 차원을 넘어 외교관의 미국관과 활동상을 생생하게 묘사한 자료임. 『미국공사왕복수록』과 『미국서간』은 최대 주미전권공사관의 활동을 자료일 뿐 아니라 워싱턴에 개설된 대한제국공사관의 전시와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한미관계에 관련된 각종 행사와 전시에도 활용가치가 있음.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초대 주미전권공사의 파견과 활동에 관해서는 박정양의 『해상일기초(海上日記草)』·『미행일기(美行日記)』·『종환일기(從宦日記)』 등의 일기류, 일종의 보고서이자 견문기인 『미속습유(美俗拾遺)』, 그리고 국왕과 정부 요직의 관리들에게 보낸 『박정양서한(朴定陽書翰)』 등이 있음. 그러나 박정양 외에 다른 공사관원들의 자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초대 주미전권공사의 전모를 다양하고 입체적으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외교의 실무담당자였던 서기관 이상재의 『미국공사왕복수록』과 『미국서간』은 당시 초대 주미전권공사가 펼쳤던 자주외교의 면모를 새롭게 밝혀주는 활동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임.

7) 등록가치의견

- 이상재의 『미국공사왕복수록』과 『미국서간』은 초대 주미전권공사의 활동을 살펴볼 수 있는 1차 사료로 단순히 한미관계뿐 아니라 조선의 외교관계 전체를 새롭게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학술·교육·전시자료임. 『미국공사왕복수록』은 당시 외국에 설치된 공사관에서 현직 외교관이 작성했던 유일무이한 비망록 혹은 편람이라는 희소성을 지님. 이들 자료는 이상재의 후손이 소장해왔던 것으로 그 경위 역시 확실하고 보존상태도 비교적 양호함. 『미국공사왕복수록』과 『미국서간』은 박정양의 자료와 서로 보완적인 관계이므로 가능하면 두 자료를 일괄해서 등록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8) 기 타(등록 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미국공사왕복수록』과 『미국서간』은 ‘초대 주미조선공사관 이상재 문서’로 명칭하면 좋을 듯함.

<○○○○○○ ○○ ○○○>

1) 개요

- 《미국공사왕복수록》 : 초대 주미전권공사 박정양(朴定陽) 사절단 일행으로서 워싱턴으로 향했던 서기관 이상재(李商在)가 공사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중요 내용을 발췌하여 엮은 업무편람임.
- 《미국서간》 : 서기관 이상재(李商在)가 미국 체재 중 가족에게 보낸 편지 38통을 엮은 자료임.

2) 주요 내용 및 특징

- 《미국공사왕복수록》 :
 - 시기상으로 보면 첫 번째 수록 자료(『미국답서한역문』, 1883년 2월 6일자 조회)를 제외하면 1887년부터 1891년까지 기록임. 1891년 문건은 명예영사 관련임. 주요 내용인 주미조선공사관 활동 관련 부분은 1887(정해)~1889(기축)년 자료에 해당함.
 - 내용상으로 보면 주미조선공사관과 미 국무부 간 왕복 외교문서, 주미조선공사관에 뉴욕·필라델피아 주재 명예영사에게 보낸 서한, 미국인 광산기사 피어스 고용계약서, 미국인 사업가와의 계약 초안(『미국인약초번역』) 등 실제 외교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문서들을 한문으로 번역하여 수록함. 이와 더불어 미국 대통령 인적사항, 각 부 장관 성명, 미국주재 각국 공사 명단, 면담한 주요 미국인 명단을 비롯해 각부장관 소견일, 미국 화폐단위에 대한 소개, 미국 체류 중인 한국인과 일본 체류 한국인들의 명단 등 공사관 업무수행에 필요한 내용들도 기재함. 부록으로 일본, 독일, 아이티 등 다른 나라 공사관과 주고받은 문서들로 실려 있음. 이처럼 워싱턴 현지에서 박정양 공사 일행이 수행한 교섭, 업무 내용 뿐 아니라 외교업무 수행시 유의해야 할 내용도 기록하였다는 점에서 업무편람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음.
 - 초대 주미공사인 박정양 저술과 짝을 이룸. 박정양 저술이 사행(使行) 과정에서 일차별 일정과 미국에서 견문한 내용을 정리하였다면, 이상재 관련 문서는 외교 교섭시 주고받은 문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신고 있어 상보적 관계라 할 수 있음. 박정양 공사의 영약삼단 위반 문제에 관한 해명자료나, 광산기사 피어스의 광산사업개발에 대한 박정양의 검토의견을 신고 있어 외교문제나 이권사업에 대한 담당자들의 인식과 동향을 확인할 수 있음.
 - 이 가운데 특히 『미국인약초번역』은 미국인 사업가들과 철도, 수도, 가스등 사업 계약의 초안을 신고 있음. 그동안 공사관 외국인 참찬관 알렌(Horace N. Allen)의 기록인 『알렌문서(Allen Papers)』를 활용한 해링턴(Fred H. Harrington) 등의 연구에서 워싱턴 체재 중 미국인 사업가들과 각종 이권 사업을 교섭했다는 사실은 소개하였으나, 계약문 원문은 전하지 않아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음. 경인철도 관련 교섭이 1880년대 후반에 이미 이뤄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매우 귀중한 자료임.

- 《미국서간》 :
 - 이상재가 1887(정해)~1889(기축) 3년 간 해외에 체류하면서 조선에 있는 가족들에게 부정기적으로 보낸 개인 서한 38통을 엮은 자료임. 사적인 기록이므로 집안 안부를 묻는 등 가족 관련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오히려 공식 외교 문서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진솔한 심경을 확인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님. 워싱턴 현지의 높은 물가에 비해 주어진 경비가 부족한 상황이나 중국 공사의 외교적 압박 등 외교 수행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 대표적임.
 - 조선이 비록 약소국이나, 여러 나라들과 대등한 외교를 펼치고자 한다는 이상재의 언급에서 초대공사 일행의 자주의식을 확인할 수 있음. 주권국가로서 위상을 국제사회에 확립하고자 했던 조선의 외교적 노력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임.
 - 미국 뿐 아니라 개항기 조선의 해외 공사관 관련 자료 자체가 희귀한 상황에서 발굴된 기록이라는 점에서 매우 귀중한 역사적 가치를 지님.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미국공사왕복수록》 : 붉은색 테두리가 변진 쪽수가 다소 있으나 본문은 양호함.
- 《미국서간》 : 중간에 접힌 쪽이 있으나 그 외 보존상태는 양호함.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

5) 문화재 활용 관련 사항

- 한미수교 140주년 기념 전시 활용 : 원문을 전시하거나 본문 중 중요 부분을 하이라이트 처리하여 이미지 패널 혹은 동영상 자료로 소개할 수 있음.
- 공사관 관련 자료 DB 구축 : 《미국공사왕복수록》과 아울러 공사관 도록(『자주의교와 한미우호의 상징 주미대한제국공사관』, 국외소재문화재단, 2019)에 실린 관련 자료를 DB화 하는 방안. 현재 재단에서 관리하는 워싱턴 주미대한제국공사관 홈페이지(<http://oldkoreanlegation.org>) 내에 원문과 번역을 제공하고 이미지 공개시 관련 분야 연구자들의 활용을 도모하고 국민 일반에 관련 내용을 알릴 수 있음.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독립기념관 소장 자료 가운데 〈주미전권공사 서기관 재직시절 일지(1888)〉라는 제하에 1888년 10월 12~14일 일정을 기록한 자료가 1장 있음. 여기에서 이상재는 1888년 10월 13일(양력 11월 16일) 박정양 공사 명함을 갖고 가서 미 국무부, 각국 공사에게 고별인사를 했다고 기록함. 한편 같은 날짜에 《미국공사왕복수록》에는 박정양 공사가 국무부에 보낸 귀국 사실을 통지하는 조회문 내용이 실려 있음. 일자 기록의 정확성을 보여줌.
- 서울대 규장각 소장 〈해상일기초〉(奎7722)는 초대 주미공사 박정양이 1887년 10월 20일 일본 요코하마에 있다가 11월 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할 때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일기자료임.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죽천고』 수록 권(卷)18에 실린 『미속습유』에서는 자신의 견문, 시찰을 바탕으로 미국 문물제도를 소개하였음.
- 《미국공사왕복수록》, 《미국서간》은 〈해상일기초〉, 『미행일기』, 《죽천고》 수록 『미속습유』 등 박정양 저작과 더불어 초대 주미공사 일행의 구체적 외교 활동 내용과 실상을 보여줌.

7) 등록가치의견

- 현전하는 유일한 자료임. 공사관 서기관 이상재 후손 집안에 가장되어 온 자료로서 소장경위가 명확함. 일부 번짐과 접힘을 제외하면 자료의 보존상태 또한 매우 양호함. 현재 박정양 저술을 제외하면 초대 주미공사 일행의 구체적 외교 활동과 교섭 내용을 보여주는 관련 자료가 매우 희소하므로,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 이상을 종합하였을 때 본 조사대상은 수교 이후 초창기 한미 간 외교관계와 개항기 조선의 재외 공관 운영 실태를 상세히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등록문화재로서 가치가 충분함.

8) 기 타(등록 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단독 등록시 ‘초대 주미공사관 서기관 이상재 문서’ 명칭을 제안함.
- 초대 공사 박정양의 저술 또한 등록문화재로서 가치가 충분함. 추후 상호 관련성을 갖는 자료로서 일괄적 관리 요망.

6. 「나주 태평사 마애보살좌상」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전라남도 나주시 소재 「나주 태평사 마애보살좌상」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나주 태평사 마애보살좌상」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18.4.5.)에 따라 관계 전문가 현지조사('21.11.5.)를 실시하고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태평사 주지
- (2) 대상문화재

문화재명칭(안)	수량	규격	제작년대	소유자	소재지
나주 태평사 마애보살좌상	1건	높이 270cm	1940~50년대 (추정)	태평사	전라남도 나주시 노안면

- (3) 검토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 (4) 추진경과
 - ('18.4.5.) : 문화재 등록 신청(전라남도→문화재청)
 - ('21.11.5.) : 문화재 등록 검토 조사 실시

라.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 '신청 건'은 조형성에 있어 섬세하고 근대적인 표현방식 등이 특색 있으나 양식적 연원 등이 불확실하며, 명문 기록이 없어 정확한 조성 배경과 시기를 알 수 없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마.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2> 참조

○ 문화재위원 ○○○('21.11.5.)

- 나주 태평사 마애보살좌상은 근대기에 조성된 마애불로 지역의 석공이 조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마애의 깊이는 깊지 않으나 조각은 섬세하며 상호나 자세, 대좌 등이 모두 손상이 없이 잘 보존되어 있음.
- 길쭉한 상호와 작은 손 등이 특징적이며, 광배와 대좌 등에 꽃무늬 등은 조선시대 불상 조성 방식에서 지역화한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음.
- 마애불 서쪽에 명문을 조성하는 자리가 있으나 기록이 없고, 1947년 태평사 창건 이후 2년 뒤에 조성되었다는 구전이 있으나, 구체적인 역사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불상의 역사적 연원을 확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국가등록 문화재로 등록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됨.

○ 문화재전문위원 ○○○('21.11.5.)

- 나주 태평사 마애보살좌상과 유사한, 혹은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되는 근대기 마애불들이 아직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사례가 없고, 나주 태평사 마애불은 또한 조성배경이나 양식적 연원 등이 불확실하여 국가등록문화재로는 등록이 어렵다고 판단됨.
- 다만 마애보살좌상의 양식이 기존의 근대기 마애불들과 비교하여 차별화되는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고, 조각의 예술적 기량도 뛰어나 추후 연구의 진행에 따라 새로운 가치와 의미가 발견될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됨.

○ 문화재전문위원 ○○○('21.11.5.)

- 마애보살상은 보관의 형태와 광배와 불신주변, 대좌 등에 구름을 폭넓게 수용하여 독특한 연출력을 보이는데, 이러한 요소는 근대기적 표현방식으로 볼 수 있음. 조성기법과 양식에서 1949년경에 제작하였다는 전언의 내용과 어느 정도 부합함.
- 보관의 화불과 오른손의 정병을 통해 정확한 관음보살의 도상적 특징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두광 내부에 구름무늬를 채워 넣은 것도 특색이 있으나 구체적인 제작시기와 제작자를 알 수 없어 근대기 불교미술 작품의 기준자료로 활용하는데 제한적이어서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는 부족하다고 판단됨.

바. 의결사항

○ 부결

- 등록 가치 미흡

○ 출석 8명 / 부결 8명

<붙임>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나주 태평사 마애보살좌상
2. 소재지 : 전라남도 나주시 노안면
3. 소유자 : 태평사 주지
4. 조사자 의견('21.11.5.)

<문화재위원 ○○○>

1) 개요

- 나주시 금성산 자락 소재 태평사에 있는 마애보살좌상으로 태평사의 화강석 암반에 총높이 270cm, 좌상높이 155cm, 얼굴높이 30cm, 어깨너비 80cm, 무릎너비 90cm, 무릎높이 16cm, 두광너비 93cm, 대좌높이 85cm 크기로 조각되어 있음.
- 태평사는 한국 불교 태고종 소속 사찰로, 1940년대에 자리잡아 1960년 현 주지 금명 스님이 주석하여 대웅전과 요사 2동, 범종각 등으로 이루어진 사찰임.
- 마애보살좌상은 나주시 향토문화유산 제36호(2013.11.11.)로 지정되어 있음.



나주 태평사 마애보살좌상 전경



나주 태평사 마애보살좌상

2) 주요 내용 및 특징

- 태평사 마애보살좌상은 남향한 대웅전의 서쪽의 노적바위에 위치하여 남동향하고 있으며, 바위 면을 다듬어 부조로 조성한 불상임.
- 마애보살좌상은 총높이 270cm 이며 원형 두광과 연화문 대좌를 갖추고, 결가부좌한 자세로 왼손에 정병을 들고 있으며, 보관(寶冠)에는 화불을 모시고 있어 관세음보살로 추정됨.

- 상호는 온화하며 형태는 길쭉한 편이며 가는 눈매에 콧등이 손상 없이 잘 살아 있으며 입은 작은 일자형으로 조성됨. 턱 밑으로 삼도가 있으며, 영락을 착장하고 있음. 천의는 오른쪽 어깨를 드러낸 우견편단(右肩偏袒)이며, 오른쪽 손은 무릎 위에 놓이고, 왼쪽 손에는 정병을 들고 있음.
- 광배에는 꽃문양이 조각되어 있으며, 대좌는 상대와 중대, 하대의 3단을 구성한 것으로 보이나 상대에는 연꽃이, 중대에는 광배와 유사한 꽃모양이 조각되었으며 하대는 생략하고 바위 면으로 연결되어 있음. 또한 몸 전체를 물결무늬 모양이 감싸고 있음.
- 자연 암반을 이용해 최대한 형태를 다듬어 내었으며 불상의 서쪽 암벽에 세로36cm, 가로43cm의 방형 자리를 만들어 놓았는데, 불상 조성기를 새기려 한 것으로 보이나 명문은 새겨져 있지 않음.
- 현 주지 금명 스님에 따르면, 태평사는 1960년 무렵 나동봉 스님이 소규모 초가집을 관리하고 있었으며, 이 건물의 상량문에 정해년(丁亥年)으로 기록되어 있어 1947년 건립한 것으로 추정함. 이 태평사가 창건된 2년 뒤인 1949년에 마애보살좌상을 조성한 것으로 증언함. 금명 스님은 1967년부터 주지로 주석하고 있음.
- 태평사 마애보살좌상을 조성한 석공은 당시 태평사 신도였던 서 보정화(徐 寶淨華, 1897년생, 당시 나주 금친면 거주) 보살의 손아래 누이가 소개한 사람이었다고 하나 자세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음. 1960년경 당시 서 보정화 보살의 모친 김대원행(金 大願行, 당시 80세 정도)이 사찰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고 함.
- 불상의 앞쪽으로는 예불할 수 있는 석단이 마련되어 있으며, 불상의 상호 위로 암벽을 기반으로 하여 홍예가 올려져 있음. 주지 금명 스님에 따르면 이 석단은 예불을 위한 장소를 마련한 것이며 홍예와 함께 최근에 조성한 것이라고 함.
- 불상의 석단 동쪽에는 태평사의 연혁 및 마애불 주변 조성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태평사 세존사리보탑 및 중창 사적비’가 있는데, 이는 2016년에 조성한 것임.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마애보살좌상 자체는 변형 없이 잘 보존되고 있으며, 석질도 크게 마모되지 않아 원형이 유지되고 있음.

- 다만, 마애보살좌상을 위로 둘러싼 홍예는 추후 무너질 경우 마애보살좌상에 위 해가 될 염려도 있으므로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 환경

- 마애보살좌상은 태평사에서 잘 관리하고 있음.
- 주변은 큰 바위 등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재해를 입을 염려는 적어 보임.

5) 문화재 활용 관련 사항

- 태평사에서 예불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다른 활용은 없는 것으로 보임.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태평사 마애보살좌상은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것으로 동 시기에 조성된 마애불로는 <화순 석불암 마애불 좌상>(1932년), <영암 축성암 마애불 좌상>(1941년), <목포 유달산 흥법대사상>(1932년 추정), <강화 보문사 마애관음보살좌상>(1928년) 등이 알려져 있음. 이 마애불들에 견주어 태평사 마애보살좌상은 조각 솜씨가 유려하고 비례가 적절하게 조성되어 있음.
- 국가등록문화재로는 등록된 불상으로는 <양산 통도사 지장암 마애아미타여래 삼존 상>(1896년), <김제 금산사 석고 미륵여래입상>(1936년), <공주 신원사 소림원 석고 미륵여래입상>(1935년), <제주 정광사 소조미륵여래입상>(1935년) 등이 있음.
- 태평사 마애여래보살좌상은 조각 솜씨 면에서는 훌륭한 편임. 다만 다른 국가 등록 문화재들이 조성 연대가 확실한 반면, 이 마애여래보살좌상은 조성에 관한 내력이 구전에 의한 전언만 있을 따름이어서 그 역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음.

7) 등록가치 의견

- 나주 태평사 마애보살좌상은 근대기에 조성된 마애불로 지역의 석공이 조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마애의 깊이는 깊지 않으나 조각은 섬세하며 상호나 자세, 대좌 등이 모두 손상이 없이 잘 보존되어 있음.
- 길쭉한 상호와 작은 손 등이 특징적이며, 광배와 대좌 등에 꽃무늬 등은 조선시대 불상 조성 방식에서 지역화한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음.
- 마애불 서쪽에 명문을 조성하는 자리가 있으나 기록이 없고, 1947년 태평사 창건 이후 2년 뒤에 조성되었다는 구전이 있으나, 구체적인 역사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불상의 역사적 연원을 확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됨.

8) 기 타(등록 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등록문화재로 등록한다면 <나주 태평사 마애보살좌상>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됨.

<문화재전문위원 ○○○>

1) 개요

- 전언에 의하면 태평사는 1947년에 창건되었으며, 조사대상인 마애보살상은 2년 뒤인 1949년에 창건주 나동봉 스님에 의해 조성되었다고 함. 양식적으로도 그 시기 조성된 것으로 보아 무리가 없음. 마애보살상은 높은 보관에 정면에는 화불로 보이는 상이 부조로 표현되어 있고 왼손은 정병을 들고 있어 관음보살상으로 추정됨.

- 태평사 주변에는 다른 바위가 없고, 오로지 이 보살좌상이 새겨진 바위면이 병풍 처럼 길게 펼쳐진 공간이어서 태평사라는 절이 세워질 때 이 바위가 위치 선정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됨. 아마도 영험한 바위로 오래 전부터 민간신앙 차원에서 기도처 등으로 쓰였던 곳에 절을 세우고, 이후 마애불로 본격화한 것이 아닌가 추정됨.
- 현재 나주시 향토문화유산 제38호로 지정되어 있음.(2013년 지정)

2) 주요 내용 및 특징

- 마애보살좌상은 높은 보관을 착용하고 있으며, 오른손은 마치 축지인처럼 보이지만, 손가락의 표현을 살펴보면 축지인처럼 손등을 위로 한 것이 아니라 손바닥을 위로 향하고 있어 축지인과는 구분됨.
- 보관에는 화불로 보이는 인물상이 새겨져 있고 왼손은 가슴높이로 들어 정병을 들고 있음.
- 상체는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옆구리로 비스듬하게 흐르는 천의자락만 걸친 나신(裸身)처럼 보이지만, 양쪽 팔을 보면 옷주름이 새겨져 있어 전통적인 착의법과는 차이를 보임.
- 정면에서 보면 선각에 가까운 마애조각이나, 측면에서 보면 무릎 부분을 돌출되어 나와있음. 이는 바위의 자연적인 형태를 살려가면서 조각한 흔적으로 판단됨.
- 근대기 마애불에 나타나는 방형에 가까운 둔중한 인체처리와는 다르게 세장하고 날씬한 인체처리 역시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든 드문 양식임.
- 두광·신광을 물이 흘러내리는 듯한 수평의 물결문으로 전체를 표현한 것도 드문 사례로서 대좌에도 이러한 물결문양이 나타나고 있음 특히 대좌는 상대석은 양련의 형태로서 일반적인 연화대좌의 형식을 보이지만, 그 아래부터는 이러한 물결문양이 다양하게 변용되면서 마치 아래에서 솟아오르는 물기둥 위에 보살상이 좌정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음. 이처럼 물결 혹은 물의 상징성은 나주 태평사 마애불의 주요 모티프로 등장하고 있음.
- 마애보살상이 축지인과 유사하나 손바닥을 바깥으로 향한 수인은 밀교도상에 보이는 수인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드문 사례여서 부분적으로 일본 밀교도상의 영향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할 여지도 있음.
- 오른쪽 옆에 명문을 새겨넣기 위한 방형의 구획을 다듬어 두었으나 현재로서는 아무런 내용도 새겨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마애보살상의 결실되거나 파손된 부분이 없이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음.
- 다만 바위 절벽 뒤에서 내려오는 유수 때문인지 전면적으로 지의류가 많이 자라면서 검게 변화된 부분이 보임.
- 마애불 주변으로는 근래에 마애불 보호를 위해 설치한 석조아치가 세워져 있음.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전반적으로 지의류로 인한 변색 등이 많이 진행된 상태이나 현재까지의 상태를 보면 당장 시급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향토문화유산 관리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

5) 문화재 활용 관련 사항

- 근대기 마애불 자체가 많지 않으므로 근대기 이후 마애불의 조성배경 및 장인들의 내력 등을 연구하는데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됨.
- 나주 태평사 마애보살좌상은 조선 말기의 불상양식과는 다른 매우 독특한 양식을 보이고 있어 근대기 새로운 조형성의 등장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어 전환기 미술로서 주목되는 부분이 있음.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서울 학도암 마애관음보살좌상(1878년,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124호), 서울 안양암 마애관음보살좌상(1909년,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122호), 강화 보문사 마애관음보살좌상(1928년,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29호) 등과 마찬가지로 관음보살좌상으로 추정되는 바, 근대기 마애불이 대체로 관음보살상을 중심으로 조성된 공통점이 발견됨. 또한 이들 근대기 마애불들이 조성 내력이나 연대 등이 명확히 확인되는 것에 반해 나주 태평사 마애불은 전언만 확인되고 있어 확실한 조성내력과 조성배경을 아직 확인하기 어려움.
- 나주 태평사 마애불은 시·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근대기 마애불에 비교해 손색이 없는 예술적 수준을 지니고 있고 기존에 알려진 근대기 마애불과는 확연히 다른 양식적 특징을 지니고 있어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음. 그러나 이런 양식이 후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러한 독특한 양식이 어떤 배경을 지니고 있는지 확인해보고자 하였으나 아직은 명확히 밝힐 수 없음.
- 일부 특징은 보은 법주사 상고암 마애불상군(충북 문화재자료)과 같은 마애불에 나타난 조형적 특징과 유사한 부분도 보이나, 상고암 마애불상군 역시 조성배경이나 기록이 전혀 발견되지 않아 더 이상 깊은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7) 등록가치의견

- 이상 고찰한 바와 같이 나주 태평사 마애보살좌상과 유사한, 혹은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되는 근대기 마애불들이 아직 국가등록문화재로 등재된 사례가 없고, 나주 태평사 마애불은 또한 조성배경이나 양식적 연원 등이 불확실하여 국가등록문화재로는 등록이 어렵다고 판단됨.
- 다만 마애보살좌상의 양식이 기존의 근대기 마애불들과 비교하여 차별화되는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고, 조각의 예술적 기량도 뛰어나 추후 연구의 진행에 따라 새로운 가치와 의미가 발견될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됨.
- 현재 나주 태평사 마애보살상의 독특한 양식의 연원 및 이러한 전환기 양식이 후대에 미친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근대기 마애불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그 안에서 나주 태평사 마애보살좌상의 의미와 나주 근대사에서의 마애보살좌상의 위상이 밝혀진다면 추후 그 가치가 새롭게 해석될 여지가 많다고 판단됨.



나주 태평사 전경. 법당을 중심으로 사진 좌측에 보이는 마애보살좌상이 새겨진 바위절벽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는 바, 이 바위는 태평사가 현 위치에 자리잡는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주 태평사 마애보살좌상 두부



나주 태평사 마애보살좌상 화불 세부



나주 태평사 마애보살좌상 하체 세부. 오른손의 수인은 축지인처럼 보이거나 손가락의 표현을 보면 가장 오른쪽 방향 바깥쪽 손가락이 엄지손가락으로 보이므로 손바닥을 위로 향한 수인임을 알 수 있다. 손 안에 새겨진 세 개의 음각선은 손금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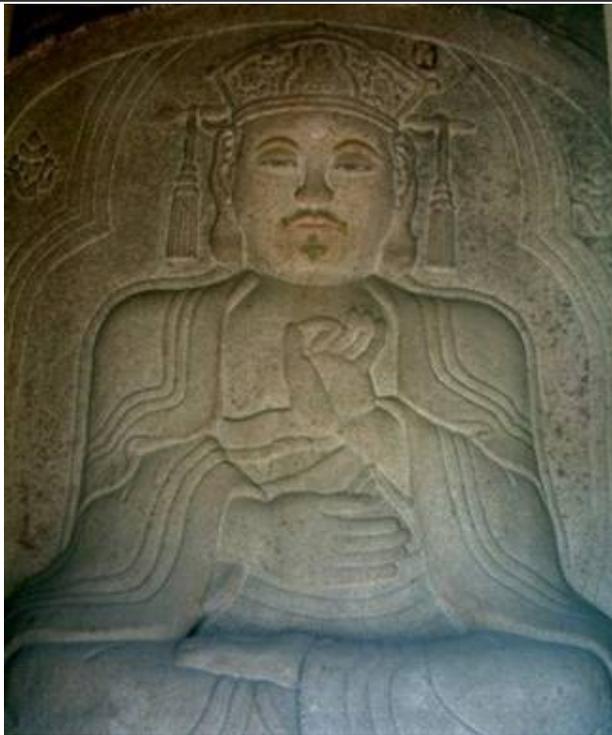
나주 태평사 마애보살좌상 측면. 하체 부분은 입체적으로 돌출되어 있다.



나주 태평사 마애보살좌상 명문 구획 부분. 그러나 명문은 새겨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주 태평사 마애보살좌상 대좌 세부. 마치 아래에서 솟아오른 물기둥 위에 보살이 좌정한 듯한 표현이 독특함



참고도판1. 서울 안양암 마애관음보살좌상(1909년)



참고도판2. 강화 보문사 마애관음보살좌상(1928년)



참고도판3. 보은 법주사 상고암 마애불상군(연대 미상)

<문화재전문위원 ○○○>

1) 개요

- 태평사는 현재의 위치에 나동봉 스님에 의해 1947년 조그만 초암 형태로 창건된 사찰임
- 마애보살상은 대웅전의 오른쪽 편 길게 펼쳐진 암반 중 가장 사다리꼴의 편평한 바위 면을 택하여 새겼음. 보살상의 우측 편에는 명문을 새기기 위한 방형의 액(35×44cm)을 마련하였으나 글씨의 흔적은 남아 있지 않으나 사찰이 창건된 지 2년이 지난 1949년에 조성된 것이라고 전함

- 사찰은 주불인 대웅전을 중심으로 좌측에 종각, 우측에 삼성각·영각, 앞쪽으로 요사채가 자리하고 있음
- 주불전인 대웅전에는 최근에 조성된 석가여래삼존상과 목각석가여래설법상(불기 2534년, 1990년)이 봉안되어 있고, 이외 1969년에 그려진 영산회상도, 지장시왕도, 신중도, (證明 峰霞長照, 會主 香巖成煥, 畫工 龜峰弘善, 化主 清信女 金寶林行 등) 등이 봉안되어 있음.
- 마애관음보살상 전방 좌측 편에는 ‘錦城山太平寺 世尊舍利寶塔及重創事蹟碑“가 세워져 있음.

2) 주요 내용 및 특징

- 불상은 보관을 쓰고 구름으로 둘러싸인 연화대좌 위에 길상좌로 앉음. 원통형의 높은 보관의 정면 아치형 광배 속에는 좌상의 化佛이 표현되었고, 보관의 표면에도 구름무늬로 장식하였음. 오른손은 손바닥을 위로하여 축지인처럼 무릎 앞에 두었고, 왼손에는 목이 길고 몸통이 난형인 淨瓶을 받쳐 들었음. 목에는 구슬로 이루어져 있고, 중앙부에 큼직한 꽃모양이 달려 있음.
- 대좌는 삼단대좌로 의도한 듯하지만, 하대석은 표현되지 않았는지 정확하지 않고, 중대석은 회오리문과 구름무늬로 장식되어 있고, 상대는 모란꽃처럼 멩게멩게 피어난 구름이 삼중으로 표현된 연화좌를 떠받들고 있는 모습이어서 특색이 있음
- 보살의 佛身에는 사선으로 걸친 條帛과 오른쪽 어깨를 약간 노출시킨, 천의를 걸쳤음. 팔뚝에 펼쳐진 주름은 짧은 단선을 불규칙적으로 표현하였음, 불신과 무릎에 새겨진 주름은 평행사선 주름이 약간의 층을 이루며 흘러내렸음. 팔뚝의 주름은 팽팽히 긴장된 주름선을 의도하였고, 몸체와 다리의 주름은 긴장감이 완화된 주름을 사용하였음.
- 비례감을 상실하고 연약하게 조성한 팔뚝과 비사실적인 손의 표현에서 고려 전기 추상성이 강조된 불상들의 조각전통도 엿보이나 보관과 얼굴, 대좌, 옷주름의 표현 등은 근대기 새로운 요소가 강하게 가미되었음
- 얼굴은 길쭉하며 콧날이 크고 멩푹하게 표현되었고 입은 작게 표현하였음. 귀는 짧게 늘어졌고 목이 긴 편임. 머리 뒤로는 두터운 테두리를 가진 둥근 두광이 표현되었고, 광배의 표면에는 꽃무늬처럼 피어나는 구름무늬를 새겨 넣어 독특한 느낌을 줌. 불신의 주변에도 身光을 대신하여 과도처럼 흘러가는 구름을 중첩해서 표현하였음. 대좌에도 구름을 크게 응용하여 마치 구름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 대좌를 상징하였음. 이와 같은 대좌 형식은 조선말 근대기 불화작품에서 많이 확인되는데, 가령 조선 후기의 화엄사 지장암 지장시왕도나 1933년의 곡성 수도암 영산회상도, 1937년 해남 대흥사 지장시왕도, 1939년 서울 경국사 칠성도, 1957년의 구례 천은사 도계암 지장시왕도 등에서 유사한 표현방식을 찾을 수 있음. 구름은 전통적으로 화면을 분할하거나 불·보살의 머무는 장소의 신비롭고 상서로운 기운을 북돋우는 역할을 함.
- 얼굴과 불신의 깊이 차이는 없으나 바위의 굴곡진 면을 다듬지 않고 그 형태를 존중하여 보살상을 새겼음. 목 부분에는 횡으로 금이 가 있는데, 원래부터 바위 표면에 가 있는 금으로 판단됨.
- 태평사 마애관음보살좌상 역시 두광 내부에 구름을 채워 넣고, 신광을 대신하여 흘러가는 구름을 중첩된 구름과 대좌에도 일반의 대좌와 달리 구름 속에 쌓여 있는 연화대좌를 표현하여 근대기 조각 감각을 물씬 풍기고 있음.

- 특히 전체적인 연출은 조각에 불화적인 요소를 적극적으로 표출한 사례로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조각을 계획한 작가는 돌이나 마애조각에 능숙한 장인이었다기 보다는 불화에 능숙한 작가가 아닌가함. 불화에 능숙한 작가가 초를 내고 이를 석공이 새겼을 것으로 생각됨. 이와 같은 작업양상은 목포 보광사 마애미륵여래 좌상과 부안 외포리 석조보살입상을 제작할 때도 불화승 일섭과 석공이 함께 작업했던 것으로 볼 때, 이 작품 역시 불화작가와 석공이 함께 작업하였을 것으로 생각됨.
- 보관의 化佛과 淨瓶을 통해 관음보살의 도상적 특징을 통해 관음보살로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음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마애보살상의 보존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하며, 수리나 보존처리의 흔적도 확인되지 않음. 마애보살상의 보존을 위하여 최근 사중에서 마애불상의 상부에 아치형 보호물이 설치되어 있음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항상 스님과 신도들이 상주하고 있어 잘 보존 관리되고 있음.

5) 문화재 활용 관련 사항

- 근대기 마애불상이 많지 않은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음.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기존에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마애불상은 1896년에 조성된 양산 통도사 자장암 마애아미타여래삼존상이 있음. 이 마애불상은 불화기법을 마애불상에 적용한 중요한 사례이고 정확한 조성연대를 가지고 있어 조선말에서 근대로 이어지는 불상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음.
- 김제 금산사 석고미륵여래입상과 공주 소림원 석고미륵여래입상, 제주 정광사 소조미륵여래입상은 실화로 소실된 김제 금산사 석고미륵여래입상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 한국 불교 최초의 공모작이자 이를 토대로 제작된 불상이어서 근대기 새롭게 시도된 불사의 풍경의 잘 엿볼 수 있는 작품이자, 당대 최고의 자가가 참여한 수준 높은 작품이어서 예술적·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된 바 있음
- 근대기에 조성된 마애 또는 석조불상의 대표작은 1909년 金魚 若效와 夢華, 刻手 金天輔가 조성한 서울 안양암 마애관음보살좌상, 1924년 수덕사 석조관음보살입상, 1928년 간송 전형필 선생이 시주한 강화 보문사 마애관음보살좌상, 1933년 담양 국씨의 시주로 조성된 화순 석불암 마애여래좌상, 1936년 서울 화계사 마애관음보살좌상, 1946년 일섭스님이 석공 7인을 거느리고 조성한 부안 외하리 석조미륵여래입상과 1949년 日燮스님과 石工 心再龍이 제작한 목포 보광원 석조미륵여래좌상 등 제작자와 제작시기를 정확히 알 수 있어 이 시기 마애·석불 연구에 있어서 기준자료로 활용할 수 있지만, 태평사 마애보살좌상은 제작관련 기록을 확인할 수 없어 한계가 있음.

7) 등록가치의견

- 마애보살상은 보관의 형태와 광배와 불신주변, 대좌 등에 구름을 폭넓게 수용하여 독특한 연출력을 보이는데, 이러한 요소는 근대기적 표현방식으로 볼 수 있음. 조성기법과 야식에서 1949년경에 제작하였다는 전언의 내용과 어느 정도 부합함.
- 보관의 화불과 오른손의 정병을 통해 정확한 관음보살의 도상적 특징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두광 내부에 구름무늬를 채워 넣은 것도 특색이 있으나 구체적인 제작시기와 제작자를 알 수 없어 근대기 불교미술 작품의 기준자료로 활용하는데 제한적이어서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는 부족하다고 판단됨.

8) 기 타(등록 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지명과 사찰명, 그리고 바위 새겨진 존상의 도상이 관음보살좌상이므로, 전체 명칭은 등록명칭 기준에 따라 ‘나주 태평사 마애관음보살좌상’으로 명명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안양암 마애관음보살좌상, 1909년, 약효 등,
321.5cm 서울시 유형제122호



수덕사 석조관음보살입상, 1924년, 약700cm



강화 보문사 마애관음보살좌상, 1928년, 813cm



화순 석불암 마애여래좌상, 1933년, 155cm,



서울 화계사 마애관음보살좌상, 1936년, 176cm



부안 외하리 석조미륵여래입상, 1946년



목포 보광사 석조미륵여래좌상, 1949년, 160cm

7. 「익산 구 호소카와 도정공장」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전라북도 익산시 소재 「익산 구 호소카와 도정공장」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21.2.10.)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1.9.8.)를 실시하여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문화재명칭(안) : 익산 구 호소카와 도정공장
 - 소재지 : 전라북도 익산시 춘포면
 - 소유자 : ○○○
 - 수량 : 5동
 - 건립시기 : 1944년(양곡창고1~2), 1971년(사무실), 1977년(공장,창고3)
 - * 건축물 대장상 준공년도 및 사용승인일 기준
 - 구조 및 규모 : 목조 및 조적조
사무실(76.72㎡), 공장(363.63㎡), 창고1(330.58㎡), 창고2(304.13㎡), 창고3(297.22㎡)
- (3) 검토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 (4) 추진경과
 - ('21.2.10.)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전라북도 → 문화재청)
 - ('21.9.8.)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

라.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 일제강점기 도정공장으로서의 공간과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 없고, 게다가 노후화로 보존상태가 양호하지 못해 원형 파악이 어려우며, 또한 건축연대 및 증·개축 내력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국가등록문화재로서의 등록검토가 필요함.

마.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위원 ○○○('21.9.8.)

- 현존하고 있는 구 호소카와 도정공장의 경우 도정공장이 갖는 기능(도정 및 양곡보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유산이 갖는 문화재적 진정성이 높다고 판단됨.
- 1970년 도정공장의 증축과 부속시설의 철거 및 신축, 이축 등으로 인하여 일제강점기 도정공장이 갖는 시설의 완전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1990년대 까지 도정공장이 운영되었다는 점에 있어 도정공장의 변화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강점임. 또한 동, 서측 양곡창고의 경우 목구조와 디테일, 공간구성 등 원형이 잘 남아 있는 점은 유산의 완전성을 평가할 수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21.9.8.)

- 등록 신청 대상 대부분이 오래 동안 방치됨에 따라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여서 변형 여부와 그 정도를 가늠하기에도 어려운 실정이며 특히, 당시 도정공장으로서의 공간과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흔적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 문화유산으로서의 진정성 등을 판단하는데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음.
- 또한, 동·서 창고시설을 제외한 사무실 및 공장 건물의 건축 이력(건립연도 등)을 알 수 없으며, 특히 남측 창고의 경우에는 1976년(건축물대장 기록) 신축되어 등록 신청 연한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현 시점에서 문화재적 가치를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21.9.8.)

- 호소카와 도정공장 및 사무실과 창고는 기 등록된 춘포지역의 문화재와 함께 역사적의미를 내재하고 있으나, 건축적 변형과 증개축으로 인해 원형과 다른 많은 변화가 있었음이 확인됨. 따라서 도정공장과 창고, 사무실 등 변경된 건축 연혁과 도정공장으로서의 산업시설 또는 기술적인 흔적이 훼손 또는 멸실된 상태임.
- 따라서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을 위해 호소카와 도정공장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연구 또는 고증자료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또는 조사가 필요하며, 보존 및 활용 등을 위해 그 가치를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바. 의결사항

○ 부결

- 등록 가치 미흡

○ 출석 8명 / 부결 8명

<붙임>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현) 구 호소가와 도정공장 (구) 호소가와 도정공장

2. 용 도 : (현) 미사용 (원) 도정공장

3. 소재지 : 전북 익산시 춘포면

4. 소유자 : ○ ○ ○

5. 시설물 개요

- 수량 및 면적 : 5동 2,192.13㎡
 - 사무실(한옥목구조) : 76.72㎡
 - 공장(일식목구조+벽돌조) : 363.63㎡
 - 창고(일식목구조+벽돌조) : 931.93㎡(1동 330.58㎡, 2동 304.13㎡, 3동 297.22㎡)

6. 조사자 의견('21.9.8.)

<○○○○○○ ○○ ○○○>

1) 개요 및 연혁

- 1914. 9 일본인 호소가와(細川) 도정공장 설립
- 1945. 8 신한공사(대한식량공사?)에서 운영
- 1949. 10 금융조합연합회에서 운영
- 1953. 3 박묘순 인수 운영
- 1971. 11 조장래 인수 '대장도정공장' 운영
- 1998. 12 공장등록취소(폐업)
- 2019. 5 미곡창고, 창고임대업 취소 및 소유주 변경
<'1998년 공장등록 취소 후에 일부 정부양곡창고로 2019년 5월까지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건물 등은 사무실 및 창고용으로 임대 사용함.>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① 사무소: 1971년 3월 이전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본 건물은 직원 및 노동자 숙소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1996년 5월 사무실로 용도를 변경하였다. 목구조 함석지붕의 바닥면적 76.72㎡의 단층 건물인 사무실은 전면에는 유리를 끼운 미닫이문 출입문 안쪽으로 사무공간과 뒤쪽에는 마루를 시설하여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등 당시 원형이 잘 남아 있다.
- ②,③ 양곡창고: 1944년 3월 건립으로 추정되는 동, 서측 양곡창고의 바닥면적은 각각 304.13㎡, 330.58㎡의 단층 건물이다. 지붕은 목구조 트러스 위 아연지붕 마감으로 현재 내부 목구조 및 개구부 등 창고건물이 갖는 목구조 원형이 잘 남아 있다.



구) 호소카와 도정공장 배치도 현황

- ④ 도정공장: 본 건물의 최초 건립은 1944년 3월로 추정되며 이후 증개축을 통해 1977년 3월 사용승인을 득한바 있으며 바닥면적은 363.63㎡으로 후면에 발전기실이 있다. 지붕은 목구조 트러스 위 슬레이트 마감으로 지붕 위에 솟은 작은 지붕들의 모양, 높이, 크기도 모두 달라 도정공장만의 독특한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공장 사용당시 12개의 정미기가 있었으나 현재 도정기계들은 모두 철거되었지만, 도정공장 건축물이 갖는 목구조 형식과 공간구성은 잘 남아 있다. 당시 도정공장은 겨울 벗겨내고 얇게 깎아내는 현미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완성된 현미는 군산항에서 일본 오사카로 운송되었다고 한다.
- ⑤ 부속건물: 1977년 3월 준공된 부속건물은 등록신청시 남측창고로 오인한 것으로 보이며, 사무소와 서측 양곡창고 사이의 건축물로 추정된다.(1978년 항공사진 참고) 본 건물은 시멘트 벽돌구조의 슬레이트 지붕의 부속창고는 바닥면적 297.22㎡ 규모인 단층 건물이다.

① 사무소



② 양곡창고 (서측)



③ 양곡창고 (동측)



④도정공장



⑤부속건물



전경

내부

지붕구조/ 내부 등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일제강점기 호소카와 도정공장은 도정공장, 동·서 양곡창고와 현 부지 남측으로 농장장 관사 등 다수의 건물로 구성되었던 것으로 확인되나(1966년 항공사진 참고) 현재 사무소 건물 외 동, 서 양곡창고와 도정공장, 일반창고1, 2, 부속건물 등 모두 7개동(1978년 항공사진 참고)으로 구성되어 있다.
- 도정공장의 증축이 진행되었던 1976년 도정공장의 증축과 창고 신축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 도정공장 전면부의 공간이 증축되면서 지붕보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1978년도 항공사진을 보면 사무건물이 신축되었으며 사무동과 서측 양곡창고와 사무실 사이에 신축된 창고가 확인된다. 동네 주민에 의하면 사무소 건물은 인근에서 옮겨온 건물로 증언하고 있으며 남측 일반창고(가마니 창고)는 그 이후에 신축된 것으로 추정된다.
- 따라서, 일제강점기 건립된 호소가와 도정공장 관련 건축물 중 현재 원형이 남아 있는 건축물은 1944년 건립된 동·서 양곡창고로 확인되며, 도정공장은 1976년대 증축과 함께 일부 변형되었으나 도정공장의 원형이 남아 있으며, 이축된 사무동과 신축창고는 원형 확인이 힘들다.



1966년 도정공장 현황



1978년 도정공장 현황

4)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문화재 활용계획 (2019.9 대장공장 활용계획 참고)

- ① 근대문화유산을 통한 지역의 역사와 문화공간으로 활용
- ② 일제강점기 수탈의 현장을 활용한 역사교육 공간으로 활용

- 구 호소카와 도정공장은 일제강점기 수탈 역사의 현장으로 공장과 양곡창고는 그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나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이들 시설을 활용하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 본 건물군은 익산역에서 춘포역까지 약 7.8km, 삼례톨게이트에서 약 10.2km, 전주톨게이트에서 11.2km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군산업도로, 전군도로(번영로)를 이용 접근이 가능하여 접근성이 뛰어나 관광자원으로서 활용가능성이 높다.
- 익산 문화예술거리, 익산 남부시장과 삼례 문화예술촌의 중간지점에 위치하여 근대문화유산의 관광의 활성화를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구) 호소카와 도정공장은 일제강점기 건립된 시설로 1998년 공장가동을 멈춘 이후 2019년 5월까지 창고 등으로 사용되었으나 현재 공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다. 현소유자의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을 비롯한 일반에게 공개할 의지를 갖고 있다.
- 익산시의 경우 현 시설에 대한 보존의지는 갖고 있으나 별도의 활용계획은 확인할 수 없다.

5)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 환경

- 일본강점기 만경강 직강화를 위해 만들어진 만경강 둑을 비롯하여 춘포역(구, 대장역: 등록문화재 210호), 호소가와 농장가옥(에도가옥: 등록문화재 211호)과 함께 농어촌공사 춘포지소(구 우편소건물), 김성철가옥, 대장정미소(구 호소가와도정공장), 요시마쓰주택 등이 있어 이와 연계를 통해서 일제강점기의 농촌마을의 형성과 생활상을 확인할 수 있어 이와 연계한 보존 및 활용도가 높다고 판단된다.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①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

- 정읍 신태인 구)도정공장 창고(등록문화재 제175호)
 - :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에 위한 한 도정공장은 대지면적 1,958㎡ 연면적 624.79㎡로 1924년 건립되었다.
- 영주 풍국정미소(등록문화재 제720-5호)
 - : 경북 영주시 광복로 23에 위치한 풍국정미소는 대지면면적 145.45㎡의 건물로 2018. 08월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
- 상주 농협 구 창고(등록문화재 제284호)
 - : 경북 상주시 왕산로에 위한 한 창고는 연면적 495.87㎡의 건물로 1931년 건립되었다.
- 구 삼례 양곡창고(등록문화재 제580호)
 - : 전북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247-1에 위한 1920년대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삼례양곡창고는 총 6개 동 연면적 2,931㎡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지역의 역사문화시설로 활용되고 있다.

②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기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근대기 도정공장으로는 1928년 붉은벽돌로 건립된 정읍 신태인 도정공장이 있으며, 유사시설로 영주 풍국정미소, 창고로는 과 창고 유산이 있다. 이와 유사한 창고시설로 상주 농협창고와 인근지역의 구 삼례 양곡창고 시설이 있다.

- 구 호소카와 도정공장과 같은 기능을 가진 시설로는 정읍 신태인 구)도정공장 창고이 있으나 건축물의 구조와 마감 규모면에서 영주 풍국정미소와 차이를 갖고 있다. 또한 구 호소가와 도정공장의 경우 도정공장 기능의 완전성(도정공장-양곡창고 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 등록문화재와의 차이점을 갖고 있으며 동, 서 양곡창고의 경우 당시 목구조로 건립된 양곡창고의 원형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 문화재와 차별성이 있다.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현존하고 있는 구 호소카와 도정공장의 경우 도정공장이 갖는 기능(도정 및 양곡 보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유산이 갖는 문화재적 진정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 한편 1970년 도정공장의 증축과 부속시설의 철거 및 신축, 이축 등으로 인하여 일제강점기 도정공장이 갖는 시설의 완전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1990년대까지 도정공장이 운영되었다는 점에 있어 도정공장의 변화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강점이다. 또한 동, 서측 양곡창고의 경우 목구조와 디테일, 공간구성 등 원형이 잘 남아 있는 점은 유산의 완전성을 평가할 수 있다.
- ※ 이상과 같은 내용과 같이 구 호소카와 도정공장 시설의 문화재등록의 경우 일제강점기 도정공장이 가져야할 기능적 진정성과 이들 시설이 갖추어야 할 유산의 완전성을 고려할 때 도정공장, 양곡창고 등과 함께 사무소 창고 등 관련시설을 함께 보존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① 등록대상과 범위의 문제

- 상기 등록가치 의견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근대기 조정공장 시설이 갖는 기능적 진정성과 각 건축물이 갖는 완전성을 고려하면 등록대상과 가치는 다음과 같다.
- ※ 등록대상 건축물 : ①사무소76.72㎡, ②양곡창고(서측)330.58㎡, ③양곡창고(동측)304.13㎡, ④도정공장 363.63㎡ 이상 4동
- ※ 등록대상 건축물 : 상기 등록대상 건축물이 현존하는 춘포리 116, 79-4, 79-17 대지 4,307㎡를 보호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판단된다.

② 등록명칭의 문제

- 등록 신청서류의 경우 문화재 명칭을 ‘구 호소카와 도정공장’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일본인 개인의 명칭으로 등록하기 보다는 본 도정공장이 갖는 지역적 의미를 고려하여 ‘익산 춘포리 도정공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화재전문위원 ○○○>

1) 개요

- 동 시설은 오랫동안 도정공장으로 사용되어 왔던 곳으로 오늘날 전라북도 익산시 춘포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제강점기 일본인 대지주 호소카와(細川)라는 인물이 자신의 농장에서 생산된 벼를 도정해 일본으로 반출하기 위해 건립한 것으로 전해져 오고 있음.
- 호소카와는 일본에서 후작(侯爵)의 작위를 얻었던 인물로 1904년 익산시 춘포면 일대에 호소카와 농장을 설립한 뒤, 1914년에 도정공장 및 관련 시설들을 건립하였다고 함.
- 이와 관련하여, 도정공장 당시 공장장 숙소로 사용되었던 일본식 가옥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또한, 쌀 반출에 이용되었던 전라선 철도 역사(驛舍)인 ‘구 춘포역사’ 등 관련된 시설들이 다수 남아 있음.

- 동 시설은 해방 후에도 금융조합(1949년)과 정부양곡 도정공장(1971년) 등으로 오랫동안 사용해 오면서 기능을 유지하였으나, 1998년 공장이 폐쇄된 이후 잠시 다른 용도의 물품 창고로 사용되었고 그 후로 현재까지 계속해서 미사용 방치되어 있는 상태임.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등록신청 대상은 벼를 도정하였던 공장 1동을 비롯하여 사무실 1동, 창고 3동 등 모두 5동이며, 공장 건물을 중심으로 서측과 동측, 남측에 창고가 위치하고 있고 남측 창고 옆으로는 출입문을 사이에 두고 사무실이 자리 잡고 있음.
- 도정공장이 건립된 시점을 비롯하여 개별 시설물의 건축 시기 등 구체적인 건축 내력을 확인할 수 는 없으나, 관련자료(건축물대장 및 항공사진 등)를 근거로 하면 해방 이후, 오랜 시간에 걸쳐 증·개축 등 전반적인 변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 즉, 현재의 공장 건물이 언제 세워진 것인지 알 수 없으나 1970년대쯤(구체적 기록은 확인되지 않음) 지금의 시멘트 벽돌 구조로 바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과거 사진자료(1957년)를 근거로 하면 위치는 변동이 없어 보이나 건물의 형태와 규모 등에서는 많은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음.
- 전언에 따르면, 예전 공장 내부에 정미기 등 도정 기계 12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이로 인해 건물의 층고가 3층 정도의 높이로 설계되었다고 하나, 현재 이 건물이 과거 도정 공장이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건축적 요소로는 지붕 상부에 도머창 형태로 설치한 환기창 정도이며, 이 역시도 과거 사진 속의 모습과 많이 다름을 알 수 있음.
- 실내에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보이는 여러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용도 및 설치 이력 등을 정확히 알 수 없음.
- 벽체는 조적 벽 위에 모르타르를 바르고 페인트칠을 하여 마감하였고 상부 지붕 가구는 단면이 작은 방주(方柱)를 세우고 그 위에 목조트러스를 짜 올려 구성하였음.
- 공장 건물 양측으로는 동·서 창고 2동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건축물대장에 이들 모두 건축연도가 1944년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과거 기록사진을 통해서 살펴볼 때, 현재의 도정공장 내에서 해방 이전부터 존재해 왔던 유일한 건물로 파악됨.
- 다만, 내·외부에서 어떠한 변화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특히, 2동의 창고 모두 본래 몸채 밖으로 눈썹지붕을 달아낸 부속공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나 현재는 대부분 변형되었거나 소실된 후 새로 건축한 것으로 보임.
- 내부 벽체는 조적과 흙벽을 혼용하여 구축하였고 그 위에 목재 가설물을 덧댄 흔적이 남아 있어 양곡 창고의 용도로 사용되었던 것을 알 수 있으며, 동측 창고 바닥에는 목재 마루를 깔아 마감하였음.
- 남측 창고 역시 다른 창고 건물에서와 같이 상부 지붕가구는 목재트러스로 짜 올렸고 내부는 모두 하나의 통칸으로 되어 있으나, 벽체는 골함석으로 마감하였음. 소유자 증언에 따르면, 남측 창고는 쌀가마니를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였다고는 하나, 이와 관련된 시설 및 흔적이 남아 있지 않아 정확히는 알 수 없음.
- 사무실 건물은 근대기 한옥 형태로 보이나, 본래는 그 자리에는 일본식 가옥이 있었고 해방 후 전반적으로 도정공장이 증·개축 되는 과정에서 현재의 건물이 새롭게 형성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전언에 따르면 주변의 민가를 이축(移築)해 온 것이라고 함.
- 건물의 축부를 구성하는 기둥, 도리, 보, 등의 부재들과 연목의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며 구조적 변경은 크게 없었던 것으로 보임.

- 살림집을 사무용 공간으로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근대기 한옥으로서의 건축적 특징을 엿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사례라 할 수 있으나, 용도변경 과정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등의 건축 내력을 확인할 수 없고 특히, 건축물대장에 1971년 신축된 것으로 기록되어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건립 당시의 건축적 상황을 엿볼 수 있는 고증 자료가 부족하여 현 상태에서 공장의 규모와 함께 개별 건축물의 원형 및 변형 여부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다만, 현존 자료를 근거로 하면, 해방 후 금융조합, 정부양곡 도정공장 등으로 사용되어 오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공장 배치와 함께 개별 시설물들도 적지 않은 변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 또한, 몇 년 전까지 일부 창고 시설은 사용되었다고 하나 대부분의 시설이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되어 퇴락과 노후화 정도는 양호하지 못한 상태임.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현재의 소유자가 3년 전에 매입한 뒤,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 중에 있고 관할자치단체(익산시)도 인근에 위치한 국가등록문화재 ‘구 춘포역사’와 함께 일제강점기 수탈의 역사에 대한 교육의 장소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
- 현재 도정공장 주변으로 기존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라 대규모 난개발 등으로 인한 긴급한 훼손 및 멸실의 위험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지역 마을과 연계한 체험, 전시 등의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 중에 있으며, 향후 지자체 및 관련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마련할 것으로 보임.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다만, 동 시설이 일제강점기 식량 수탈을 목적으로 세워진 도정공장이라는 성격을 감안할 때, 지역 문화유산으로 진정성 있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문화재 등록 여부를 떠나 공공성이 담보된 계획 수립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일제강점기 식량 수탈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장 시설 중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사례로는 ‘정읍 화호리 구 일본인 농장 가옥’과 ‘완주 구 삼례 양곡창고’, 정읍 신태인 구 도정공장 창고’ 등 인근 전라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다수 있으며 또한, 이와 유사한 시설들이 전국적으로 다양한 제도적 틀 속에서 교육적 목적으로 보존·관리 되고 있음.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등록 신청 대상 대부분이 오래 동안 방치됨에 따라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여서 변형 여부와 그 정도를 가늠하기에도 어려운 실정이며 특히, 당시 도정공장으로서의 공간과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흔적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 문화유산으로서의 진정성 등을 판단하는데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음.

- 또한, 동·서 창고시설을 제외한 사무실 및 공장 건물의 건축 이력(건립연도 등)을 알 수 없으며, 특히 남측 창고의 경우에는 1976년(건축물대장 기록) 신축되어 등록 신청 연한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현 시점에서 문화재적 가치를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이밖에, 인근 지역에 유사한 시설이 국가등록문화재를 포함해 다수 현존하고 있으므로, 이들 시설과의 중복성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익산 구 호소카와 도정공장」

<문화재전문위원 ○○○>

1) 개요

- 근대기 군산항 개항과 호남선 개통으로 평야지대에서 벼와 곡물의 생산하여 포구와 철도(1914년 춘포역 개통)를 활용한 곡물의 반출이 용이한 점을 이용하여 일본인이 춘포면에 이주하여 농장을 설립하고 농업과 관련하여 신흥 중심지로 성장함.
- 전 일본총리였던 호소가와 모리히로가 조부로 알려진 일본육군 소령 출신인 호소가와 모리시게(細川護成)가 춘포면(당시 대장촌리)에 농지에 투자하고, 농장을 설립하여 생산된 벼를 현미로 도정해 일본으로 반출하기 위해 도정공장을 건립.
- 호소가와 도정공장은 북쪽으로 옛 춘포역(현재 폐역)과 남쪽으로 만경강을 두고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 내에 신청건물 5개동과 근래에 건축된 창고 1동을 두고 있음.
- 해방이후 대한식량공사(1945~)와 금융조합연합회(1949~)에서 운영하였으며, 한국전쟁 이후 민간이 인수하여 운영(1953년 박묘순 인수, 1971년 조장래 인수)하다가 1971년 이후 ‘대장정부양곡도정공장’으로 정부양곡 도정업을 운영하였으나 1998년 공장등록이 취소되고, 2019년 현 소유주로 변경되어 사무실 및 임대공간으로 사용됨.
- 대지의 형상은 비정형으로 면적은 4,307㎡이며, 대지의 남동쪽 춘포4길에서 진입하면서 좌측에 사무동, 우측에 창고 1동이 위치하고, 대지의 중앙에 조경과 마당을 두고 북서쪽에는 도정공장과 공장 좌우측으로 각각 창고 1동씩 연벽하여 일렬로 배치되어 있음.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도정공장의 구성은 사무실, 공장, 창고 등 목조와 벽돌조 건물로 구성되어 있음. 입구 좌측에는 사무실이 우측에는 창고 1개동이 위치하며, 넓은 마당 뒤쪽에는 도정공장과 창고가 위치함.
- 사무실은 근대식 한옥형태로 정면 5칸, 측면 2칸 규모이며 지붕은 우진각 지붕에 골함석으로 마감되어 있음. 절충형 한옥을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변형되어 사용하고 있으며, 내부 공간 구성과 지붕 및 창호 등 마감 재료 등 근대시기 절충형 한옥의 특징을 확인 할 수 있음.
- 사무실은 장방형의 평면에 목구조와 흙벽마감이며, 목조 함석지붕 건물로 전면에는 유리를 끼운 미닫이문이 설치되어 있고 반대쪽은 뒤쪽에는 텃마루를 설치함.
- 도정작업이 이뤄졌던 공장건물은 대형 도정공장으로 당시 사진자료에는 목재 마감으로 확인되나, 현재는 건물의 좌우측에 방화벽이 설치되어 있으며, 콘크리트 블록을 쌓아 시멘트 미장으로 마감됨. 중앙에 도정공장의 좌우측 방화벽 면에서 창고가 각 1동씩 연벽하여 위치하고 있다.

- 공장 지붕의 형태는 고층창지붕(Clerestory Roof)이며 지붕마감은 골함석 마감임. 현재 증축부분 등 일부는 슬레이트 지붕마감이며, 지붕 위에 규모가 다른 솟은 지붕이 설치되어 있음.
- 공장에 연벽한 창고 2개동은 목구조 기둥과 흙벽(외위기)마감이다. 내부는 칸막이 벽체의 목구조 기둥과 틀만 유지하고 있고, 외부에 면하는 벽체는 목재 판재로 벽을 마감하고 있으나, 일부는 흙벽마감의 벽체로 마감된 상태임.
- 도정공장의 좌측에 설치된 창고는 전면으로 목구조로 달아내어 슬레이트지붕을 씌워 길게 처마를 설치하였고, 우측에 설치된 창고는 기존 건물과 같은 길이로 전면에 목조기둥과 트러스로 증축하고, 좌측 창고와 마찬가지로 처마를 길게 달아낸 상태로 공장과 창고 2개동은 증개축의 흔적이 있음.
- 공장 좌측에 증축된 벽체 하부는 블록을 쌓아 미장마감하고 상부는 목조 틀에 골함석으로 벽체를 마감.
- 창고의 지붕은 박공지붕으로 목조트러스 위에 개판을 깔고 그 위에 슬레이트로 마감하였으며, 기존 창고 바닥은 지면보다 높게하여 마루를 설치함.
- 공장과 창고는 출입문을 제외하고 창문은 높은 위치(高窓)에 설치함.
- 대지의 주출입구 우측에 위치한 창고의 구조는 목조 기둥과 트러스로 구성되며, 벽체 하부에는 블록을 쌓아 미장 마감하고, 벽체 상부는 목조기둥에 골함석 마감, 지붕은 목조 트러스 위에 골슬레이트로 마감함. 기둥과 트러스의 목재 규격과 재질은 건립시기와 재료의 변형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도정공장을 구성하는 블록조 벽체와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공장 내부를 구성하고 있는 콘크리트 구조체의 정확한 연혁을 확인할 수 없으며, 도정공장이 사용되면서 구조 등이 변형되고 공간이 확장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도정공장은 건립 이후 사진자료와 비교했을 때 건물의 지붕과 벽체 등 변형과 증축된 것으로 판단되며, 정확한 변형이나 증축시기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 공장과 연벽한 창고 2개동에 목구조와 창호 일부는 원형으로 판단되나, 마감이 다양하고 시멘트 블록을 쌓아 미장으로 마감된 부분과 내부칸막이와 외부 처마의 증축 등 변형된 것으로 판단됨.
- 사무동은 1971년 조장래로 소유자가 변경되면서 증축된 건물이며, 이축된 것으로 확인되나, 정확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음.
- 신청대상 외 1976년 대지의 서쪽에 위치하는 시멘트 블록조 창고(297㎡)가 증축되었으며, 1998년 도정공장 폐쇄 후 도정공장 내부에 설치된 기계들을 처분하고 창고로 사용되고 있음.
- 신청대상 건물은 전반적으로 장기간 미사용되면서 벽체와 마루 등 목부재의 훼손과 노후화가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음.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호소가와 도정공장이 위치한 익산 춘포리는 호남 제일의 곡창지대와 인접해 있으며, 이러한 지리적 배경은 일제강점기 일본의 식량 수탈을 위한 물리적 변화가 진행됨. 군산항 개항과 군산역 등이 인접하고 있으며, 문화재로 등록된 춘포역을 비롯해 일본인 농장 가옥(호소가와 농장 주택)이 주변에 위치하고 있음. 현 소유자는 지역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므로 활용 여건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소유자는 등록문화재 등록 이후 개보수를 통해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임. 도정공장은 현재 개보수와 증개축으로 인해 변형된 상태이며 건축 원형의 회복과 유지관리를 위한 계획이 필요하며, 이후 문화재로서의 적절한 활용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호소가와 도정공장의 역사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활용에 대한 계획의 실현가능성은 높다고 평가 할 수 있으나, 보존을 위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음.

다. 기타사항

- 신청된 건물 외에도 대지 내 증축 창고와 춘포리에 관련된 문화재와 연계된 활용계획이 필요함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1924년 건립된 정읍 신태인 도정공장 창고(등록문화재 제175호)는 일본인 대지주가 수확한 벼의 상품성을 높여 일본으로 반출하기 위해 건립한 도정공장 창고로, 정읍과 부안, 김제의 양곡을 가공하여 군산항으로 반출했던 일제강점기 식량수탈의 현장임.
- 주구조는 조적조로 적벽돌과 골합석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붕은 트러스구조 위에 중양부는 기와, 측면은 골합석을 사용하여 마감.
- 2016년 생활문화센터 조성지원사업으로 외형을 유지한 채 생활문화센터로 조성되어 활용되고 있음.
- 기 등록문화재와 비교했을 때 일제강점기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반영하는 문화유산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호소가와 도정공장의 경우 재료와 증개축에 따른 공간의 변형 확인되며, 이에따른 도정공장의 연혁 등 변경과정에 대한 고증이 필요함.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호소가와 도정공장은 익산 춘포지역 정체성과 역사를 보여주는 건물로서 지역적·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 건축물의 구조와 형태, 재료의 사용에 있어서 일부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나, 사용되면서 증·개축과 개보수에 의한 건물의 외형과 재료의 변형 및 장기간 미사용으로 인해 훼손부분이 확인됨.
- 호소가와 도정공장 및 사무실과 창고는 기 등록된 춘포지역의 문화재와 함께 역사적의미를 내재하고 있으나, 건축적 변형과 증개축으로 인해 원형과 다른 많은 변화가 있었음이 확인됨. 따라서 도정공장과 창고, 사무실 등 변경된 건축 연혁과 도정공장으로서의 산업시설 또는 기술적인 흔적이 훼손 또는 멸실된 상태임.
- 따라서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을 위해 호소가와 도정공장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연구 또는 고증자료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또는 조사가 필요하며, 보존 및 활용 등을 위해 그 가치를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문화재 등록시 명칭은 ‘춘포리 구 호소가와 도정공장’이 적절함

8. 「보성 오봉산 구들장 채석지」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전라남도 보성군 소재 「오봉산 구들장 채석지」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21.9.16.)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1.11.25.)를 실시하여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보성군청

(2) 대상문화재

- 문화재명칭(안) : 보성 오봉산 구들장 채석지
- 소재지 : 전라남도 보성군 득량면 해평리 산63-1, 63-4번지
- 소유자 : 산림청
- 면적 : 10,882㎡(A구역 822㎡, B구역 4,009㎡, C구역 413㎡, D구역 5,638㎡)
- 건립시기 : 1940년대(추정)
- 구조 및 규모 : 채석지 및 운반로 (10,882㎡)

(3) 검토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4) 추진경과

- ('21.9.16.)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전라남도 → 문화재청)
- ('21.11.25.)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
- ('21.11.29.) : 보완자료 요청(문화재청 → 보성군, 등록신청 구역 보완, 구역 성격규명 등)
- ('22.1.3.) : 보완자료 제출(보성군 → 문화재청)
- ('22.1.28.) : 신청면적 조정(보성군 → 문화재청)
 - 당초 면적: 채석지 7,419㎡ / 운반로 3,798.06㎡(길이 1,579m)
 - 변경 면적: 10,882㎡(채석지 내 운반로 포함)

라.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 보성 오봉산 구들장 채석지는 우리나라 온돌문화의 핵심 재료인 구들장을 채취하던 곳으로, 산업발전의 일면을 확인할 수 있는 유구(채석장 및 운반로 등)가 비교적 잘 남아 있음. 다만, 고증 자료의 한계와 함께 등록 신청 범위가 넓고 접근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등록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마.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문화재위원 ○○○('21.11.25.)

- 본 유구는 한국 주거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온돌 구들장의 재료였던 편마암, 응회암 판석을 채석하여 생산하였던 광산이며 산업시설의 유산임. 역사적 사실과 산업사적 시각으로 살펴보아도 이 유구는 보존되어 후손에게 산업화 시기에 전통의 건축재료 생산과 운반, 공급의 체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현물로써 설명할 수 있는 흔치 않은 유산이라 할 것임.
- 따라서 마땅히 보존하고 산업사적으로 전달해야 할 내용을 잘 담아 활용하여야 함. 하지만 국가문화재로 등록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깊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문화재 등록 전에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우선, 본 신청유구에 대한 역사적 고증 내용이 대부분 관련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이루어져 있음. 산림청 소유인 산지에서 산림청의 허가와 관리 하에 채석행위가 이루어졌다면 그간의 벌목을 비롯한 산림훼손·개발·복원의 절차와 관련된 자료와 사료가 있을 것이며 이에 근거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함.
- 이러한 불확실한 점들이 해소된 후에는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여 등록에 대한 논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문화재위원 ○○○('21.11.25.)

- 전체적으로 구들 채석장으로서는 특정 구역이 밝혀지고 생산시스템을 알 수 있는 장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다만, 전통적 구들이 대체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구들장을 사용하였던 것에서부터 1930년대 이후 온돌난방방식을 사용한 주택이 대규모로 지어지면서 그러한 수요에 부응하는 근대적 구들 채석장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이곳 채석장에서는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볼 수 있으면 바람직 할 것임.
- A구역과 B구역 및 D구역의 생산시스템의 변화를 볼 수 있다면 근대성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됨

- 또한, 구들장을 직접 뜨는 과정에 대한 기록화 역시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즉, 채석/운반 도구와 방식을 영상 및 기록으로 남기고, 무형의 문화를 계승할 수 있는 기능인(e.g 구들 채석공)을 지정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문화재전문위원 ○○○('21.11.25.)

- 온돌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바닥 난방 방식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독특한 주거문화를 형성하는 중요한 문화유산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며, 무형적인 측면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아 온돌문화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음.
- 또한, 이번 등록 신청한 '보성 오봉산 구들장 채석지'의 경우에는 인근 광주 이씨 집성촌인 강골마을 내에 위치한 국가민속문화재 '보성 이정래 고택' 안채에서 수리공사 중 오봉산 구들장이 사용된 것이 확인됨에 따라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제고 되는 등 학계에서 많은 주목을 받기도 하였음.
- 이밖에, 채석된 구들장을 전국적으로 공급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산업으로서 지역의 경제 활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는데, 이것은 인근 경전선 철도의 득량역 개통과 운송이라는 근대적 교통수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임.
- 이에, 생활 관습상 전통 유산으로 인식하는 온돌이 시대적 특징이 반영된 근대기 산업유산으로서 단면을 엿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이와 관련하여 과거 채석장 종사자들의 증언은 확보하였으나 당시의 상황을 엿볼 수 있는 사진 등의 기록 자료가 없는 상태로 최종 등록 여부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등록 신청 대상이 오봉산 내에 넓게 분산 배치되어 있으므로 등록 시 핵심적인 보존가치가 있는 구역을 한정하여 등록구역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임.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등록구역은 A구역으로 하되, 세부범위는 현지조사 후 결정

○ 출석 8명 / 조건부가결 7명, 원안가결 1명

<붙임>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보성 오봉산 구들장 채석지
2. 용 도 : 폐 채석지, 일부 편백나무 조림지
3. 소재지 : 전라남도 보성군 득량면 해평리 산63-1, 63-4번지
4. 소유자 : 국유(산림청)
5. 시설물 개요
 - 구조 : 구들장 채석지 및 운반로
 - 연 혁 : 1940년대(추정)
 - 수량 및 면적 : 10,882m²
6. 조사자 의견('21.11.25.)

<문화재위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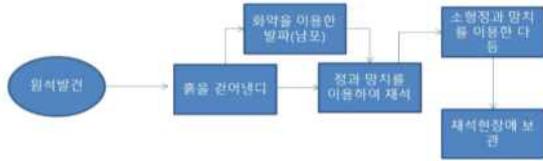
1) 개요

- 주택 온돌의 구들장에 사용할 석재를 대량으로 채석하던 대규모 채석장의 유구이다. 전라남도 보성군 득량면에 위치한 오봉산 정상에서부터 기슭까지 분포되어 있는 응회암을 채굴하여 마을로 운반, 약간의 가공을 거쳐 전국의 현장으로 공급 하였던 곳이다.
- 채석의 시작은, 과거 종사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1930년대 말부터였던 것으로 현지에서는 추정하고 있다.
- 아래의 표에서 보다시피 구들장 산지들이 전국에 분포돼 있었으나 현재는 대부분 폐업한 상태이다. (출처: 보성군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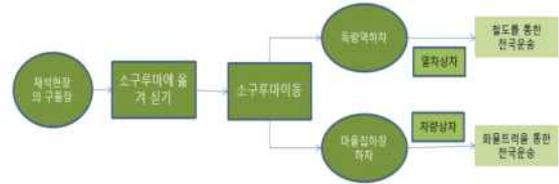
특징 구분	화산쇄설물들로 형성된 암석	엽리/편리를 보이는 변성암		결정질 조직을 보이는 화성암	화산 퇴적암	변성암	화산암
		편마암	편암				
암석	응회암	편마암	편암	석영반암	점판암	화강암	현무암
지역	나주, 보성, 완도, 여수, 장성, 장흥, 함평, 해남, 화순	광양, 곡성, 영광, 구례	무안, 강진, 순천	고흥, 담양, 완도, 목포, 영암	충청도 지역 미원, 옥천	가평 양평 포천등 전국에 분포	제주 백두산주 위 화산지역

우리나라 구들장으로 사용되는 암석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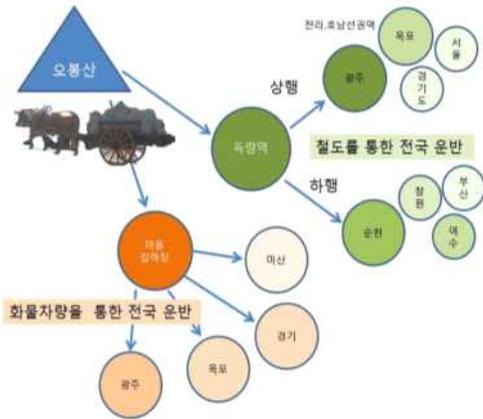
- 보성군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지 주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1930년대 말에 채석작업이 시작되어 1960년대에 활황을 이루었다가 새마을 사업과 주택난방의 원료변화 등에 따라 1970년대 중반에 하향곡선을 그리기 시작하여 1980년대 중반에 생산중단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보성군에서는 아래 그림들과 같이 채석장에서 원석을 채굴하는 과정(그림 3-2)과 마을에서 집하한 후 전국의 소비지로 운송되는 과정(그림 3-3, 3-4)을 정리하고 있다. (보성군 보고서 참조)



채석과정 모식도



구들장 채석과 운반과정



구들장 운반 루트



채석지 및 운반로 위치

- 마을에서부터 오봉산의 경사면을 오르면서 아래 구역의 원석 분포지에서 채석을 시작하여 원석이 소진되면 위쪽으로 옮겨서 채석하는 과정을 밟았던 것으로 옛 종사자들은 증언하고 있다. 등록신청서에서는 남아 있는 채석지를 낮은 곳에서부터 채석지A, B, C, D라고 이름 붙이고 있다. (그림5)
- 각 채석지에서 채굴된 석재는 작업자가 다룰 수 있는 규격으로 다듬은 후, 소가 끄는 수레에 실어 산 아래쪽 집하장으로 옮기게 되는데 급한 경사 때문에 지그재그 형태의 운반로를 만들어 급경사 문제를 해결하였다고 한다. (그림5)
- 보성군의 남쪽 끝에 위치한 오봉산에서 구들장 채석이 활황을 맞은 것은 1930년에 철도 경전선의 득량역이 인접지역에 생기면서부터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운송도 이루어졌으나 대량으로 운반할 수 있는 철도를 이용하여 광주로 운반하고 그 후에 내륙 곳곳으로 보급하였던 것으로 전언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구들장 판석 생산이 활황이었을 땐 득량역 주변에 운반을 기다리는 구들장들이 벼 낫가리처럼 군데군데 쌓여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각 채석지는 원석(암반)을 커대로 채취하여 현장에서 반출한 후, 전반적인 채굴이 끝나면 이 구역에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판석들의 조각을 활용하여 석단을 쌓아 일종의 사방공사로 마무리 짓고 다음 채석지로 옮겨 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채석지A에는 이 과정이 완벽하게 남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며, 위쪽으로 형성돼 있는 채석지B에는 석단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채석작업 완료 후에 정비한 모습이 남아 있다. 채석지C는 소규모로 채굴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채석지와 운반로가 혼재된 상태로 절석과 마무리 석단작업의 흔적이 남아 있다. 채석지D는 가장 넓은 지역이며 최후까지 채석하였던 곳으로, 채석지와 운반로의 흔적이 큰 규모로 남아 있다. 정상부분의 급경사 구역이어서 운반을 위한 수레들이 마주 오는 수레를 피하여 갈 수 있는 대피로가 뚜렷하게 남아 있으며 채석지와 석축, 석단이 현재까지 잘 남아 있다.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각 채석지는 석재 채석의 과정과 마무리 상태를 유추할 수 있을 정도로 폐장 이후의 모습이 잘 보존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석재 운반을 위해 마련한 운반로와 채석지의 일부는 폐장 후 4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 그동안 나무들이 성장하여 길의 모습이 사라지거나 변형된 곳이 여러 곳 있다.
- 채석지 C와 D에는 채석작업 후에 조성한 석단과 사방처리가 완벽하지 못하여 낙석 현상이 계속 발생하여 접근하는 데에 위험한 곳도 있다.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주변에 등산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등산객의 왕래 빈도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 채석장 유구를 살피며 접근할 수 있어 훼손이나 변형의 우려는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보성군청에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으며 세계유산 등재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보성군에서 제시하고 있는 활용계획은 아래와 같다.

- ① 구들장 힐링파크 조성
- ② 구들장 우마차길 체험조성
- ③ 구들장 우마차길 관리 사업
- ④ 쉼터 및 휴식공간 조성
- ⑤ 아름다운 향기숲 조성

이 중에는 2021년 사업으로 시행된 것도 있으며 지속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 하지만 산업유산의 구체적 유구로서 응회암 산지를 문화재 보존과 활용의 관점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찰과 계획은 보이지 않는다. 즉, 지역의 관광자원으로서 관광객의 관심을 모으는 정도의 내용으로 계획이 입안된 것으로 보인다.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본 신청 유구는 한국 고유 주거문화인 온돌바닥 구들장의 재료로 사용되었던 판석의 원석 매장지이며 생산기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국가등록문화재 중에 산업·생산시설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공장, 창고, 수도 관련 시설 등이 있다.
- 아울러 이 유구는 자연의 매장자원에 인위적 행위를 가하여 생성된 결과물로도 볼 수가 있는데 자연에 인공적 행위가 가해진 상태로 남아 있는 유구로는 제주도의 진지동굴류를 생각할 수 있다.
- 자연의 자원에서 재료를 채굴한 후에 안전조치를 해둔 상태에서 현재에 이르는 본 유구는 지금까지 등록문화재로 다루어 보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대상물이라 하겠다.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본 유구는 한국 주거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온돌 구들장의 재료였던 편마암, 응회암 판석을 채석하여 생산하였던 광산이며 산업시설의 유산이다. 역사적 사실과 산업사적 시각으로 살펴봐도 이 유구는 보존되어 후손에게 산업화 시기에 전통의 건축재료 생산과 운반, 공급의 체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현물로써 설명할 수 있는 흔치 않은 유산이라 할 것이다.
- 따라서 마땅히 보존하고 산업사적으로 전달해야 할 내용을 잘 담아 활용하여야 한다. 하지만 국가문화재로 등록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깊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문화재 등록 전에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우선, 본 신청유구에 대한 역사적 고증 내용이 대부분 관련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이루어져 있다. 산림청 소유인 산지에서 산림청의 허가와 관리하에 채석행위가 이루어졌다면 그간의 벌목을 비롯한 산림훼손·개발·복원의 절차와 관련된 자료와 사료가 있을 것이며 이에 근거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 이러한 불확실한 점들이 해소된 후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검토하여 등록에 대한 논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 산림청 소유의 산지에 유구가 위치하고 있으므로 “산림법”, “산림보호법” 등의 산림보호, 자연보호와 관련된 법의 적용을 받아, 원형복원을 위한 조림 등의 후속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물이 아닌지에 대한 검토

(2) 위의 (1)사안에서 산림청으로부터 현 상태 보존과 활용의 허가과 보장이 있다면, 다음과 같이 등록의 범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1. 신청서에서 제안하는 범위 전체 등록:

50여 년간 이어져 온 구들장 채석의 과정이 단계별로 대부분 남아 있어, 산업현장의 유구로서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는 유구 전체를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완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상당히 넓은 면적이며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등록구역 설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평소 관리에도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채석지D 부근을 제외하고는) 운반로의 궤적과 형상 또한 교란된 곳이 많아 특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2)-2. 채석지A만을 등록:

채석과정의 마무리까지를 완전히 보여주며 오랜 기간 동안 현재의 모습으로 고착된 채석지A를 문화재로 등록하여 구들장 생산과 채석작업 완료 후 시행한 사방공사, 산림복원 작업의 과정을 설명하는 유구로서 문화재 등록을 한다. 이는 현재의 유구의 상태를 조사하고 측량하여 경계 설정과 관리하는 데에 편리한 점이 있다. 그리고 지금부터 좀더 면밀한 조사와 측량을 시행하여 위의 나머지 채석지로 점차 등록확대를 생각해 볼 수도 있다.

(2)-3 채석지ABCD와 D구역의 운반로 유구만을 등록:

현재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만으로 최소화하여 등록 관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국가 행정기관에서 준행하여야 하는 토지 및 지적 관련 사항을 완결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

- 아울러 활용방안은, 본 유구를 야외박물관으로 설정하고 한국주거문화의 재료생산 시설이 가지는 가치와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 이를 위하여 국내외의 유사사례를 폭넓게 조사할 필요 있다.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명칭: 보성 오봉산 구들장 채석지

<문화재위원 ○○○>

1) 개요

- 전남 보성 오봉산에 남아 있는 구들 채석장은 우리나라 국가 무형문화재 135호로 지정된 온돌문화의 핵심 자재인 구들장을 채석하던 곳으로 현재 남아있는 구들장 산지 중 규모가 가장 크고 그 유적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다.
- 2021년 3월에 실시한 구들장 채석 경험자들의 구술채록에 의하면 오봉산 구들장 채석지역은 크게 두 구역으로 나누어진다. 이 지역 주민들은 오봉산을 청방산과 오봉산으로 나누어 부르고 있는데, 득량면의 동쪽 지역인 해평리를 중심으로 한 오봉산과 득량면의 서쪽 지역인 도촌리를 중심으로 한 청방산이 주요 채석지역이라 할 수 있다.
-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 이전부터 채석이 시작되었다고 하며, 1960년대 ~ 1980년대 초반까지 활발하게 채석이 이루어지다가 그 이후 온돌의 쇠퇴에 따라 채석장에서의 채석도 중단되어 현재에 이르렀다.
- 이곳 오봉산 구들장은 응회암 재질로써 구들장으로서는 다른 재질에 비하여 열전도율과 작업성이 우수한 편이다. 채석한 구들은 마을 아래 집하장으로 운반되었고 득량역의 철도를 통하여 전국으로 팔려갔다고 한다.

2) 주요 특징

- 채석장은 크게 4개의 영역(보고서의 A, B, C, D)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들 영역은 채석시기와 채석방식에 따라 하단인 A지역로부터 산정상부인 D지역으로 점차 확산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오봉산 진입구 하단에 위치한 A구역의 경우 현재 17단의 석축이 구성되어 있는데, 석축의 높이는 500~700mm 너비는 800~1,500mm 정도로 완만한 산의 경사에 따라 구들장을 채석한 후 남은 부스러기 돌을 쌓아 놓았다. 석축을 구성하는 돌들이 비교적 그 크기가 고른 것으로 보아 채석과정에 폭약을 사용하지 않고 수작업 위주의 채석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채석지 및 관련시설 위치도/등고선 지도

- 이러한 석축은 아래에서부터 위로 암반 표면의 구들장을 채석하는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조성하였거나, 후대에 A구역의 채석이 중단되고 폐쇄된 이후 낙석을 방지하고 원지형의 복원을 위하여 조성하였던 것이라 생각된다. (현주민의 증언으로는 운반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조성한 것이라 하였지만 순로형식으로 연결되고 있지는 않다.)
- A구역으로부터 위로 약 250m 정도 거리에 위치한 B구역은 경우 비교적 광범위한 영역(약 400m×500m)으로 A구역에 비해서는 경사가 급한 곳에 위치한다. A구역에서의 채석이 끝나고 이곳으로 채석장을 옮긴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는 폐쇄된 채석장의 낙석 방지를 위하여 편백나무를 심어 놓았다.
- C구역의 경우는 D구역으로 오르는 과정에 위치한 곳으로 경사가 급한 편이고, 채석 과정에서 발생한 돌들과 석축이 남아 있다. 이곳은 D구역과 마찬가지로 A구역과 B구역과는 달리 남아 있는 파편석들로 보아 수작업에 의한 채석이 아니라 폭약을 이용한 발파작업이 동반된 것으로 추정된다. 1960년대 이후 구들장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구들장의 대규모 채석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형성된 채석지라 판단된다.
- 특히, D구역의 경우 급경사면에 갈지(之)자 모양의 운반로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폭약에 의한 발파와 채석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던 상황을 잘 보여준다. 또한 산 정상까지 채석이 속도감 있게 이루어짐에 따라 암반의 표면에 있던 구들장으로 사용가능한 석재의 채석이 완료되고 그 이후 원지형 복원과정이 없었기에 현재와 같이 채석 파편이 그대로 노출된 것으로 생각된다.
- 채석한 구들장의 운반은 소가 끄는 수레를 이용했다고 한다. 현재 그 운반로가 일부 남아 있기는 하지만 급경사면을 구들장을 실은 우마차가 어떻게 오갔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편이다.

3) 원형보존·변형 및 상태

- 전체적으로 근대기 구들장의 채석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다.
- 다만, A~D 각 구역의 채석 시기가 다르고 채석 도구 및 운반 방식이 서로 다른 것으로 판단되는바 그러한 특성이 그대로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 당시 채석장에서 일하였던 분들의 증언과 기록을 바탕으로 각 시기별 구들장 채석의 특성을 단계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활용계획

- 현재의 구들 채석장이 산림청 소유고, 관리는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음
- 지자체의 보존의지가 강한 편이고, 활용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음

5)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유사한 등록된 산업유산으로서는 ‘영양 구룡화광산 선광장’ ‘태백 철암역두 선탄 시설’, ‘포항 구삼화제철소 고로’ 등이 있다.
- 본 채석장은 이들 산업문화유산이 대체로 어느 특정시기 하나의 시설인 것에 반하여 50여년 이상 구들장을 채석하는 채석장으로 시간적 공간적으로 상대적으로 범위가 넓은 편이다.

6)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전체적으로 구들 채석장으로서 특정 구역이 밝혀지고 생산시스템을 알 수 있는 장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다만, 전통적 구들이 대체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구들장을 사용하였던 것에서부터 1930년대 이후 온돌난방방식을 사용한 주택이 대규모로 지어지면서 그러한 수요에 부응하는 근대적 구들 채석장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이곳 채석장에서는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볼 수 있으면 바람직 할 것이다.
- A구역과 B구역 및 D구역의 생산시스템의 변화를 볼 수 있다면 근대성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 또한, 구들장을 직접 뜨는 과정에 대한 기록화 역시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채석/운반 도구와 방식을 영상 및 기록으로 남기고, 무형의 문화를 계승할 수 있는 기능인(e.g 구들 채석공)을 지정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7)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등록할 경우 명칭은 ‘보성 오봉산 구들 채석장’ 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문화재전문위원 ○○○>

1) 개요

- 등록 신청 대상은 온돌 설치에 필요한 구들장 돌(현지에서는 ‘방돌’로 불림)을 채석 하였던 ‘채석지’와 그 돌을 운반하기 위해 산기슭에 인위적으로 조성한 ‘운반로(길)’로서 오늘날 전라남도 보성군 득량면에 위치한 구봉산(해발 343.5m) 일대에 넓게 분포되어 있음.

- 채석은 주로 정이나 망치 등을 이용한 ‘돌뜨기’와 ‘남포(확약을 이용한 발파)’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채석된 돌은 ‘소달구지(우마차)’에 실려 산기슭에 개설된 운반로를 따라 지상의 집하장으로 옮긴 후 적당한 규모와 형태로 가공되어 구들장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현재 이들 흔적들과 함께 채석 및 운반, 가공 과정 등에서 사용되었던 다양한 도구들이 남아 있음.
- 오봉산에서 구들장 채석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인근 마을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1940년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1960년대 전성기를 거쳐 1980년대 초까지 우리나라 전역에 물량을 공급하였다고 함. 또한, 이 과정에서 일종의 산업시설로서 지역의 경제활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고 함.
- 당시 오봉산 구들장이 전국적으로 공급망을 확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인근 경전선 철도의 득량역 개통과 함께 전문적인 운송업의 근대적 교통수단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는 점에서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도 엿볼 수 있음.
- 관련 학술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오봉산에서 채취한 구들장 돌은 다른 지역 보다 단위 무게에 비해 휨강도가 강하고 열 보존 성능이 우수하며 특히, 오래도록 불과 연기에 닿아도 터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평가되고 있음.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등록 신청 구역은 오봉산 진입부에서 정상에 이르는 길목에 모두 4곳(편의상 A·B·C·D로 구분)으로 구획하였는데 면적은 모두 10,882㎡(A구역 822㎡, B구역 4,009㎡, C구역 413㎡, D구역 5,638㎡)이며, 각 영역 내에는 채석지와 함께 운반로가 포함되어 있음(당초 등록 신청 면적은 총 200,000㎡이었으나, 등록조사 후 주변 여건에 맞춰 보성군에서 조정하였음).
- 채석지는 자연암반 상태로 잔존하고 있으며 표면에는 돌을 떼어 낸 흔적이 어렴풋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구들장 채석지로서의 모습을 쉽게 인지할 수 없음.
- 다만, A구역의 경우 채석지 바로 아래 급경사지에 일정 규모의 계단식 석축을 길게 쌓은 것이 특이한데, 관계자에 따르면 일종의 사방석축 시설로 추정되나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으며 축조 시기도 알 수 없어 향후 보완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운반로는 채석하고 남은 돌을 이용하여 석축을 쌓듯이 하여 산기슭에 길을 냈으며, 길 폭은 소달구지가 서로 교차 운행할 수 있을 정도의 넓이로 하였는데 현재 오봉산 정상부에서 산 아래의 집하장에 이르기까지 각 구간별로 흔적이 여럿 남아 있음.
- 특히, 오봉산 정상부에 위치한 D구역 내의 운반로는 급경사지에 조성되었던 만큼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지그재그의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 경관적 특징으로 주목 받고 있음. 또한, C구역 채석지에 인접하여서는 소위, Y자형의 교차로가 조성되어 있어 아마도 오봉산 곳곳에 채석지가 산발적으로 운영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음.
- 채석장 종사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소달구지 1대로 옮길 수 있는 돌의 수량은 보통 1.5칸(1칸=8자×8자)의 방을 깔 수 있는 정도라고 하며 이때, 돌의 무게는 대략 1톤 정도에 이른다고 함.
- 이밖에, 가파른 운반로를 따라 이동하는 소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소에게 별도의 짚신을 신겨 소의 발을 보호하였다고 하며, 현재까지도 소짚신의 제작기술이 전해져 오고 있음.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1980년대 이후 주거방식의 변화 등으로 구들장 수요가 감소하게 됨에 따라 오봉산에서의 채석 사업이 중단됨과 동시에 오랫동안 그대로 방치되어 왔으며, 최근 보성군에서 시행한 오봉산 구들장 채석지 관련 조사 과정에서 그 흔적들이 확인되었음.
- 다만, 최초 채석 당시의 정황을 알 수 없어 변형 여부와 정도를 언급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향후 채석지 암반의 안정화 상태 등에 대한 판단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관할지자체인 보성군에서는 국가무형문화재인 ‘온돌문화’의 핵심 재료로서 구들장 채석지를 적극 보존하고자 하며, 향후에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신청을 검토하고 있음.
- 이밖에, 이번 등록 신청한 구역과 인접한 또 다른 채석지(운반로 포함)의 경우 지난 2021년 12월에 산림청 국가산림문화자산(“전남 보성 오봉산 구들장 우마차길”)으로 지정됨에 따라 향후 탐방보 정비, 편의시설 등이 조성될 것이 예상되므로 급격한 훼손·멸실의 위험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보성군에서는 구들장 체험시설(테마파크) 및 우마차길 체험 코스 개발 등 다양한 활용(계획)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이로 인해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임.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보성군에서 제출한 활용계획은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고 실현 가능할 것으로는 보이는 하나,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특히, 채석지의 경우 자연암반이 외기에 노출된 상태이므로 노후화 방지 등 현상유지를 위한 적절한 보존, 관리방안이 반듯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과거 구들장 채석지로서의 흔적을 남기고 있는 곳은 일부 다른 지역에서도 볼 수 있으나, 이와 관련된 시설이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사례는 없고 국가무형문화재로서 ‘온돌문화’가 종목으로 지정되어 있음.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온돌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바닥 난방 방식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독특한 주거문화를 형성하는 중요한 문화유산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며, 무형적인 측면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아 온돌문화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음.
- 또한, 이번 등록 신청한 ‘보성 오봉산 구들장 채석지’의 경우에는 인근 광주이씨 집성촌인 강골마을 내에 위치한 국가민속문화재 ‘보성 이정래 고택’ 안채에서 수리공사 중 오봉산 구들장이 사용된 것이 확인됨에 따라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제고되는 등 학계에서 많은 주목을 받기도 하였음.
- 이밖에, 채석된 구들장을 전국적으로 공급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산업으로서 지역의 경제 활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는데, 이것은 인근 경전선 철도의 득량역 개통과 운송이라는 근대적 교통수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임.

- 이에, 생활 관습상 전통 유산으로 인식하는 온돌이 시대적 특징이 반영된 근대기 산업유산으로서 단면을 엿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이와 관련하여 과거 채석장 종사자들의 증언은 확보하였으나 당시의 상황을 엿볼 수 있는 사진 등의 기록 자료가 없는 상태로 최종 등록 여부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등록 신청 대상이 오봉산 내에 넓게 분산 배치되어 있으므로 등록 시 핵심적인 보존가치가 있는 구역을 한정하여 등록구역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임.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등록 명칭은 「보성 구) 오봉산 구들장 채석지와 운반로」가 적당할 것으로 보임.

9. 「유네스코회관」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유네스코회관」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21.4.2.)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1.11.16.)를 실시하여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 '09년 제6차 근대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 검토('09.12.3.) : 부결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불부합(50년 미경과)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2) 대상문화재
 - 문화재명칭(안) : 유네스코회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26
 - 소유자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수량 : 1동
 - 건립시기 : 1967년 * 건축물 대장상 준공년도 및 사용승인일 기준
 - 구조 및 규모 :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13층, 지하 1층, 연면적 13,367㎡
- (3) 검토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 (4) 추진경과
 - ('08.7.25.)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서울특별시 → 문화재청)
 - ('09.11.3.)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
 - ('09.12.3.) : 제6차 근대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 검토 결과 부결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불부합(50년 미경과)
 - ('21.4.2.)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서울특별시 → 문화재청)
 - ('21.11.16.)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

라.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 유네스코회관은 대한민국의 교육, 과학, 문화 활동의 산실로 각종 국제회의 및 세미나 등 근대기 한국사회의 국제 활동의 거점으로서 역사적 가치가 있으나 이와 유사한 고층의 철근 콘크리트 건축물의 문화재 등록에 대한 기준과 보존 관리 원칙을 정립할 필요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문화재 등록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마.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1> 참조

○ 문화재위원 ○○○('21.11.16.)

- (상징적 가치) 유네스코회관은 독립신생국가였던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의 활동 전개를 위한 매개체이자 기회를 제공한 곳으로, 유네스코 정신의 발현 장이자 국제사회에 한국의 전통과 역사를 알리는 통로로 사용된(중인) 건축물임
- (건축기술적 가치) 유네스코회관은 1950년~196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본격화된 현대건축기법을 적용한 초기 건축물이며, 당시 설계안과 도면들이 확보되어 있음
 - 당시로는 매우 희소했던 철근콘크리트 라멘조(온통기초 포함)를 선택하여 내부공간의 유연성, 즉 업무, 상업, 문화의 기능이 포괄하는 복합건축물로 탄생됨. 또한 미학적인 디테일이 뛰어난 노출콘크리트 면 처리, 알루미늄 커튼월 공법 등은 당시엔 보기 드문 건축기술로 평가됨
- (미래유산적 가치) 유네스코회관은 한국의 경제발전 시기에 탄생된 복합 문화시설로서, 지금까지와 같이 사회적 요구에 맞추어 다양한 유네스코 정신을 실현하는 구심체로 활용될 것으로 보임
 - 유네스코회관은 인근의 명동성당 가톨릭회관과 함께 1960년대의 건축기법과 건축재료 등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임
 - 유네스코회관은 서울 도심문화의 산실인 명동 경관 및 기억의 구심체로 지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종합적으로 볼 때, 유네스코회관은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할 만한 가치가 충분함

○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위원 ○○○('21.11.16.)

- 근대기 한국건축은 1960년대 경제성장기에 이르러 다양한 용도를 지닌 대규모 건축물들을 건설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와 함께 외국 건축기술의 유입과 함께 기술적 발전을 이룩하는 건축공법이 시도되었다. 따라서 유네스코 회관에는 이와 같은 근대기 한국 업무시설이 갖는 특성들이 현존하고 있으므로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관리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근·현대기 조성된 대형 건축물의 경우 문화재지정 혹은 등록과정에 있어 기존과 동일한 가치평가 방법과 범위 지정보다는 보다 세분화하여 이를 검토하여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동 시기 비교대상과의 차별성을 고려하여 지정 및 등록범위, 보호구역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문화재전문위원 ○○○('21.11.16.)

- 유네스코 회관이 가지는 건축적 특성, 장소로서의 가치, 문화적 맥락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유네스코 회관은 고층의 철근 콘크리트조 건축물로, 기존 등록문화재와 비교하였을 때 규모나 구법의 측면에서 그 성격이 상이하고, 그 물리적 가치를 판별하는 데 있어 근거가 될 만한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구체적인 복원, 보존, 유지 관리 등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지 않으며,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한 적을 것으로 추정됨
- 유네스코 회관을 등록문화재로 지정한다면, 고층 철근 콘크리트조 건축물로는 첫 사례가 될 것이고, 이는 추후 고층건축물 또는 현대건축물을 문화재로 지정함에 있어 또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등록문화재 지정에 앞서 비슷한 시기, 비슷한 구법이 사용된 다른 건물들에 대한 기초연구(전수조사 및 목록화, 유형분류, 구법의 역사적 전개과정 등)를 수행하여, 유사 사례들이 가지는 가치를 판별하기 위한 기준과 지침을 정립해 놓을 필요가 있음
- 유네스코 회관은 현재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거대규모의 건축물로 외관의 복원과 유지관리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건축물의 어떤 부분에 가치가 있는지를 파악하여, 그에 따른 선택적인 유지보수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음

바. 의결사항

○ 보류

- 근·현대 건축·시설(건축가 작품) 재평가 결과 등 유사 사례 비교 검토 후 재논의

○ 출석 8명 / 보류 7명, 원안가결 1명

<붙임1>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현) 유네스코회관
2. 용 도 : (현) 사무실, 관람집회시설, 점포, 근생시설
3.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26
4. 소유자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5. 시설물 수량 및 면적 : 1동, 연면적 13,367.1㎡
6. 조사자 의견('21.11.16.)

<문화재위원 ○○○>

1) 개요

- 대한민국이 1950년 6월 14일 제5차 유네스코총회(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제55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승인된 것은 독립 신생국가로서 매우 대단한 일이었음. 이로써 대한민국은 유엔의 주요 전문기구의 회원국이 되어 국제무대에서 활동이 가능해졌음. 연이어 발생한 전쟁의 참화 속에서 유네스코의 다양한 지원 가운데 대한민국의 재건이 가능할 수 있었음
- 1954년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창립총회에서 회관 건립의 필요성을 논의됨
- 위원회는 현상설계공모를 통해, 1959년 6월 구조사건축기술연구소의 배기형의 커튼월 공법을 도입한 계획안을 최종 당선작으로 결정함(구조사 사내 경쟁을 통해 윤도근의 안을 바탕으로 출품)
- 1966년 12월 20일에 공사를 완공한 유네스코회관은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26에 위치한 다중이용시설이며, 금융, 상업, 업무,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의 용도를 가진 대형건축물로서 대한민국 근대건축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음
- 또한 유네스코회관은 1960년대부터 명동성당과 명동성당 가톨릭회관(전 명동성모병원) 등과 함께 명동의 근대적인 가로경관 형성에 큰 역할을 수행하였음



유네스코회관 현상설계 당선작(투시도)
©목천김정식문화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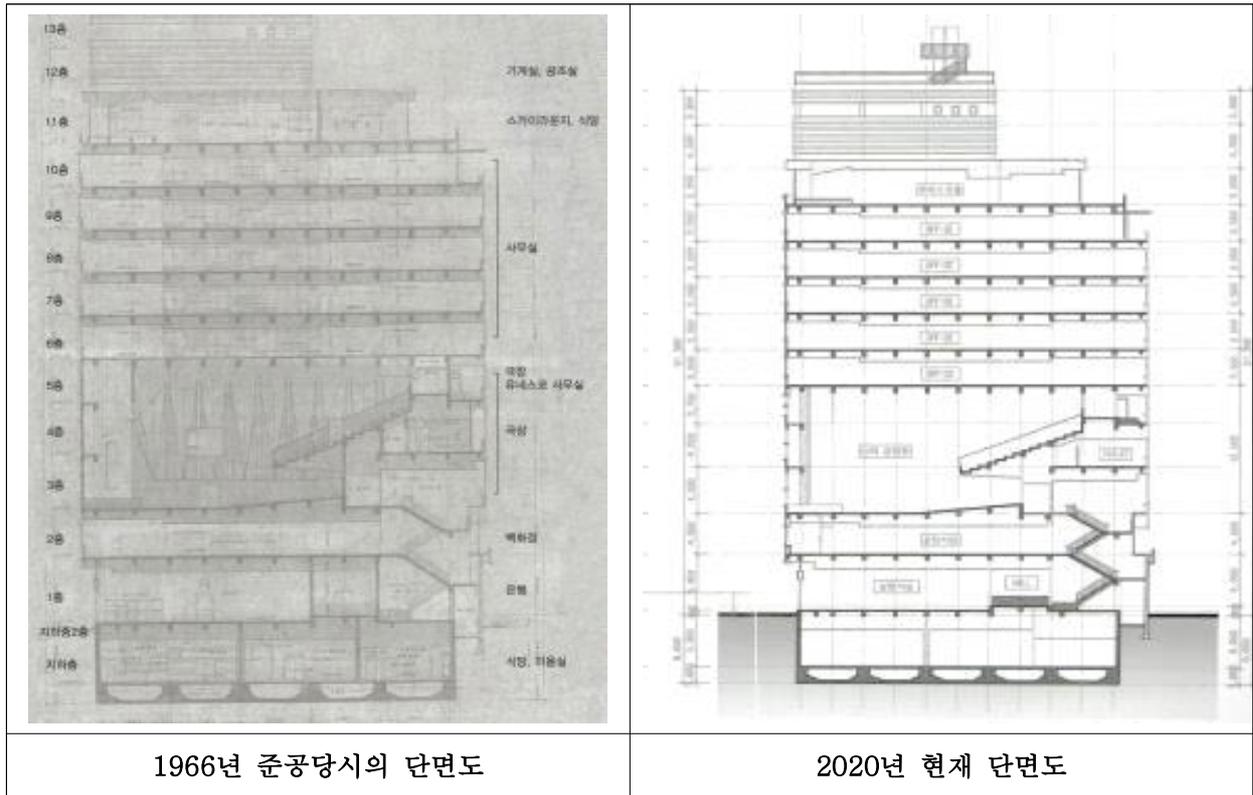


현재의 유네스코회관
©yd-donga

2) 건축 등 양식 및 주요 특징 (각종 기존 연구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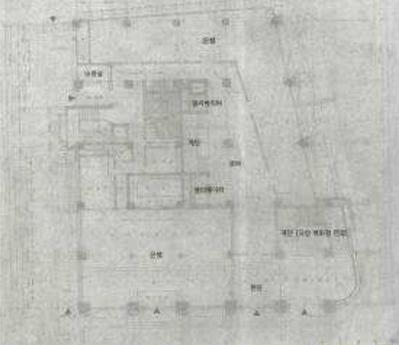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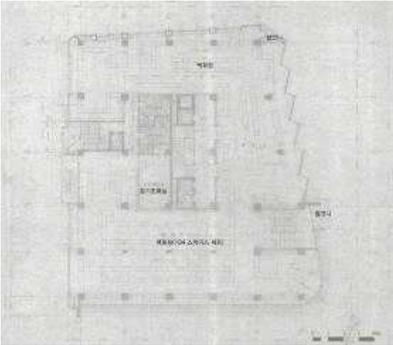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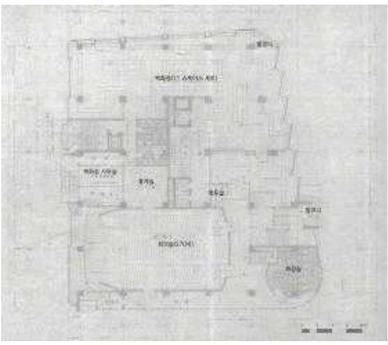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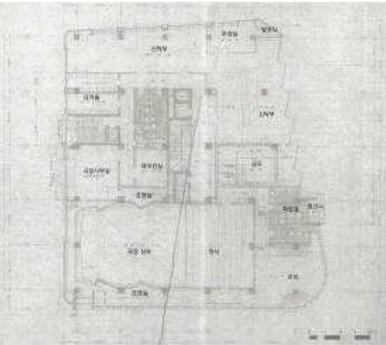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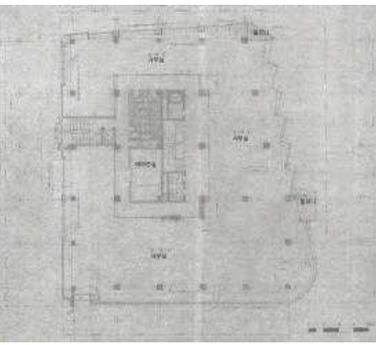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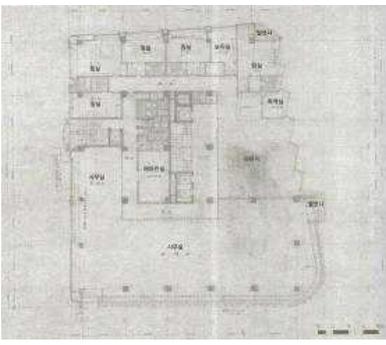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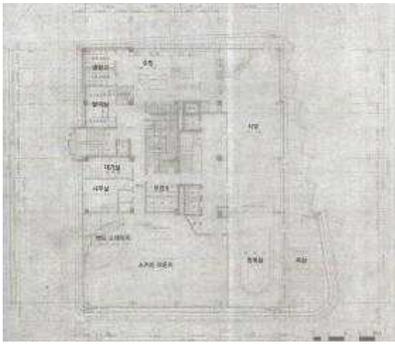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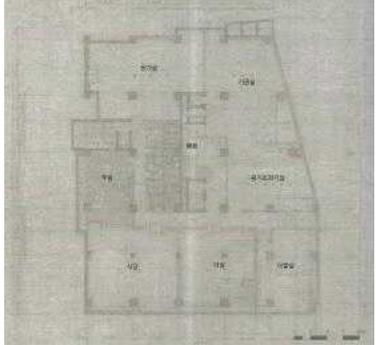
○ 유네스코회관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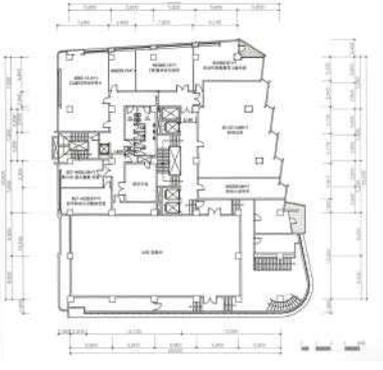
- 지하 1층, 지상 10층(11층은 스카이라운지 및 식당) / 연면적 약 9,240㎡
- 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이며, 온통기초 위에 독립기둥을 5,800mmx7,200mm(기본 모듈) 간격으로 배치
 - ： 중심부에 코어(계단실, 엘리베이터 2대, 화장실)를 설치하여 기본골격 구성
- 외장 : 커튼월 공법



○ 특이점 : 평면 구성

- 1959년 당선작과 1966년 준공당시 상황, 그리고 현재 상황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1층 평면 및 기능 구성의 변화임. 원래 좁은 골목길에 면한 서측 진입을 주출입구로 하고, 옥외공지를 두어 보다 여유로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음. 그러나 1966년 준공과 함께 1층에는 (한일)은행의 외국부와 영업실이 배치되었고, 이에 서측 출입구는 은행 출입구로 사용됨. 따라서 명동길에 접한 북측 출입구가 주출입구로 변경되었고, 서측부의 옥외공지계획 또한 취소됨
- 1966년 준공 당시, 지상 3층부터 5층를 통합한 (국제)회의실이 배치되었고, 현재에도 (난타)공연장으로 사용 중에 있음
- 1959년 현상설계 당선작에 옥상정원이 기획되었던 바, 2000년대 들어 옥상정원을 실현하여 현재에 이룸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10층	11층	지하층

		
<p>1층</p>	<p>2층</p>	<p>3층</p>
		
<p>4층</p>	<p>5층</p>	<p>6층</p>
		
<p>10층</p>	<p>11층</p>	<p>지하층</p>

○ 특이점 : 입면 구성

- 명동의 중심가로에 위치한 입지 특성을 고려하여 다소 육중한 랜드마크적인 건물 규모와 입면 구성이 채택된 것으로 사료됨
- 외벽에 다양한 재료(화강석, 유리, 알루미늄, 철, 콘크리트 등) 도입을 기본으로, 재료 분리와 요철 등을 통한 수직 분절 기법을 도입하는 등 주변 환경에 비해 특이한 가로 분위기를 형성함
- 특히, 1960년대 당시 매우 생소했던 알루미늄 커튼월 공법을 북측 전면에 적용하고, 남대문로에서 명동길로 연결되는 조망성을 고려하여 북측에서 서측으로 만곡되는 입면 구성을 도입함. 서측에는 노출콘크리트와 유리블록을 적용시켜 투명성과 불투명성의 대조미와 점, 선, 면 패턴의 조화미가 뛰어난 입면 구성을 취함



북.서측 입면의 구성



입면 구성 및 실내에 도입된 건축 요소들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1977년 유네스코 11층 회의실 장치공사((주)공간연구소)를 시작으로 1983년 4층~11층 방재시설 개수공사(㈜구조사 건축기술연구소), 1992년 3층~5층 회의실 용도변경(종합건축사사무소 다에건축), 1990년대 회관 외장마감 변경 대수선공사 (㈜구조사 건축기술연구소), 1999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명동 이전공사(㈜풍진아이디), 2000년 2층 청소년문화교류센터(MIZY 센터) 조성(㈜건축사사무소 堂建築), 2001년 11층 재건축 신축공사(종합건축사사무소 築), 2001년 유네스코회관 정밀 안전진단, 2008년 유네스코회관 대수선 공사(종합건축사사무소 都圖) 외에 두 차례의 보일러 교체 및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 부분 수리공사가 시행됨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이전과 (국제)회의장의 기능 변화 등에 따라 몇 차례 층별 및 용도 변경(부분) 등으로 인한 변화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1966년 준공 당시의 체계가 보존되어 온 것으로 평가됨. 다만 1994년에 서측면 외부마감이 수성페인트에서 스톤 코트로 변경된 이력이 있으며, 북측면에 표현되었던 ‘ㄷ’자 캔틸레버 프레임(cast stone)의 일부가 2010년대에 훼손된 것이 원형과의 차이로 파악됨
- 2000년대 들어 시행된 옥상생태공원 조성은 유네스코회관의 원래 설계 개념을 구현한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2002년 옥상부의 재축 공사가 시행됨. 현재 옥상부의 방수와 관련된 누수 현상이 부분적으로 확인됨



옥상생태공원 전경 .서측 입면의 구성 ©유네스코한국위원회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과 주변 환경

- 1966년 준공 당시의 설계도면과 시방서가 보존되어 있고, 수리 이력에 대한 기록도 비교적 명확하게 남아있어 추후 보존관리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파악됨



1966년 준공 당시 서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유네스코회관은 현재 명동의 보행환경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거점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명동길을 중심으로 명동예술극장과 대각선으로 마주하고 있으며, 명동성당과 가톨릭회관(구 명동성모병원) 등 우리나라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의 집결지에 자리하고 있음

- 또한 1990년대 이전에 조성된 미래유산적인 가치를 가진 건축물들이 20여 곳에 현존하고 있어, 지구차원에서의 보존 환경의 여건이 비교적 양호함

5) 문화재 활용 관련 사항

- 문화재적 관점에서의 유네스코회관의 활용은 현재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파악됨
 - 1) 유네스코관련 문화 활동의 중심체로서의 활용
 - 현재 유네스코회관 내의 국제적인 문화관련 기관(시설)은 다음과 같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이코모스한국위원회, 주한헝가리문화원, 한예중명동캠퍼스, 난타공연장 등
 -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1967년 2월에 입주하여 1974년부터 건물을 관리의 주체로 활동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5층, 6층, 8층, 9층, 11층의 일부와 10, 11층의 전체 공간을 사용 중에 있음
 - 7층과 8층에는 이코모스한국위원회, 유네스코협회연맹, 주한헝가리문화원, 한예중 명동캠퍼스 등이 입주하여 있으며, 위원회는 국제문화활동의 주체들의 입주를 보다 늘려갈 계획에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국제문화활동의 거점으로 기능할 것으로 예측됨
 - 2) 다양한 시민참여의 공간 활용
 - 유네스코회관에서 시민들은 옥상정원과 11층 각종 부대시설(유네스코홀, 유네스코라운지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외 추후 근현대 지역사와 관련된 명동의 핵심체로서의 활용적 잠재력도 큰 것으로 판단됨

6) 동일 유형 기 등록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1960년대 준공된 커튼월 공법이 적용된 건물로는 명동성당 가톨릭회관(1961년), 한국전력 서울지역본부 별관(1962년) 등이 있으며, 1970년대에는 삼일빌딩이 있음
- 이러한 건축물들과 함께, 유네스코회관은 1960년대 명동의 경관 및 우리나라 현대 건축의 새로운 길을 연 건축물로 판단됨

7) 등록 가치에 대한 의견

- 상징적 가치
 - 유네스코회관은 독립신생국가였던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의 활동 전개를 위한 매개체이자 기회를 제공한 곳으로, 유네스코 정신의 발현 장이자 국제사회에 한국의 전통과 역사를 알리는 통로로 사용된(중인) 건축물임
- 건축기술적 가치
 - 유네스코회관은 1950년~196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본격화된 현대건축기법을 적용한 초기 건축물이며, 당시 설계안과 도면들이 확보되어 있음
 - 당시로는 매우 희소했던 철근콘크리트 라멘조(온통기초 포함)를 선택하여 내부공간의 유연성, 즉 업무, 상업, 문화의 기능이 포괄하는 복합건축물로 탄생됨. 또한 미학적인 디테일이 뛰어난 노출콘크리트 면 처리, 알루미늄 커튼월 공법 등은 당시엔 보기 드문 건축기술로 평가됨
- 미래유산적 가치
 - 유네스코회관은 한국의 경제발전 시기에 탄생된 복합문화시설로서, 지금까지와 같이 사회적 요구에 맞추어 다양한 유네스코 정신을 실현하는 구심체로 활용될 것으로 보임
 - 유네스코회관은 인근의 명동성당 가톨릭회관과 함께 1960년대의 건축기법과 건축재료 등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임

- 유네스코회관은 서울 도심문화의 산실인 명동 경관 및 기억의 구심체로 지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종합적으로 볼 때, 유네스코회관은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할 만한 가치가 충분함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위원 ○○○>

1) 개요

- 1959년 6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현상설계공모를 통하여 배기형(1917-1979)의 계획안을 당선작으로 선정함.
- 1959년 4월 지하 1층, 지상 10층, 연면적 약 9,240㎡ 규모로 공사에 착공하여 1962년 철근콘크리트 골조공사를 마쳤으나 공사비 부족으로 1964년까지 중단됨.
- 1965년 부동산관리계약을 통해 공사비를 용자받아(한일은행 건물관리 겸 운영권) 설계변경을 거쳐 1966년 4월 공사를 재개하여 12월 20일 준공함.
- 준공 당시 지하1층 지상 13층 규모로 지하에는 식당과 기계실, 지상 1층과 2층은 은행과 점포, 3층과 4층은 극장과 사무실, 5층은 사무실, 6층은 사무실과 호텔, 7층부터 10층까지 호텔, 11층은 연회장, 12층은 기계실, 13층은 물 탱크실을 수용함.

2)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현황

구분	내용	비고
대지면적	1345.8 m ²	
건축규모	지하 1층/지상 13층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면적	1,152.23m ²	
연면적	13,367.1m ²	

3) 건축물 연혁표

연도	내용
1959. 4. 11.	유네스코회관 기공식 개최
1959. 6. 3.7.	유네스코회관 설계도 현상모집(최종 당선작: 구조사/배기형)
1962. 7. 24.	상량식 개최
1967. 2. 17.	준공기념식 개최
1967. 7. 8.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회관 소유권 취득(등기)
1974. 1. 1.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회관 관리 시작
1978. 12. 9.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회관 토지 매입 및 소유권 취득
1997. 12. 27.	유네스코회관 11층 화재 및 전소
2008. 5.	중구청에 유네스코회관 대수선(지하1층~지상1층 주계단 위치 변경) 공사 신고
2008. 7. 23.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유네스코회관의 등록문화재 등록심의 -심의결과: 일부 개축에도 불구하고 건물 내·외부 모두 건축 당시의 원형이 잘 남아 있으므로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가치 있음.
2008. 7. 25.	서울특별시, 문화재청에 유네스코회관의 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요청
2009. 12. 3.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 심의결과: 50년 미경과로 문화재 등록부결
2014. 12. 31.	서울특별시, 유네스코회관 '서울 미래유산'으로 선정
2012. 3. 25.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등록문화재 등록 심의

4)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국가등록문화재 신청에 따른 현장조사 내용 참고)

① 계획 및 설계자

- 본 건물의 설계는 1959년 6월 실시된 현상설계공모에서 건축기술연구소 배기형 (1917-1979) 계획안이 당선되었으며. 이후 기본설계에 건축가 윤도근이 참여하였으며, 실시설계에는 장종률, 김현석, 김창서, 구조설계를 함성권이 진행하는 등 건축물의 계획 및 설계에 관여한 기술인의 확인이 가능함.

② 구조 및 내부 공간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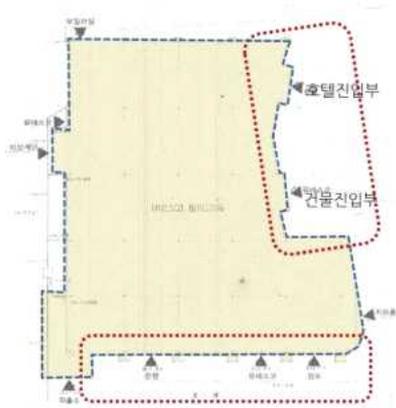
- 근대기 전형적인 업무시설 **철근콘크리트 구조**: 온통기초 위에 독립기둥 형식의 철근콘크리트 라멘조의 근대기 업무시설 건축물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음. (기본 모듈-5,800mmx7,200mm 1,000mm~1,700mm, 캔틸레버 구조를 통한 공간 확보 등.: 자유로운 입면구성)
- **실별 기능에 따른 외부 진입동선 분리**: 지하식당 외부계단을 통해 외부연결, 중앙의 주출입구, 극장 및 백화점으로 연결되는 출입구, 은행으로 진입되는 출입구로 분리.
- **대회의실의 공간 구성**: 지상 3, 4, 5층을 대회의실로 사용하기 위해 극장식으로 공간을 구성하여 3층과 중 2층에 객석을 배치하였으며, 주변으로 회의실과 관련된 부대시설이 위치하고 있음.
- **효율적인 임대 사무공간과 휴게공간의 구성**: 지상 6층-9층 임대 사무공간 및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7층을 사용하였으며, 10층 사무실과 라운지, 11층 스카이라운지, 연회실, 식당이 위치하여 옥상 외부공간과 연결함.

③ 내·외부 마감재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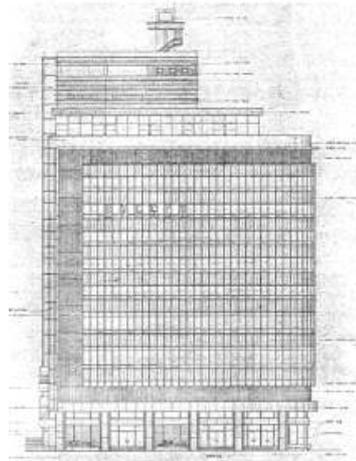
- 각 실별 바닥의 아스타일, 화강석 및 현장 테라조(인조석 물갈기) 마감, 실 기능에 따른 음향판, 대리석, 무늬 코트, 천정은 텍스마감재와 무늬코트 내부마감 등 근대기 다양한 건축마감 재료의 시공 및 사용상태 확인이 가능함.
- 외부 벽체는 플라스터 위 페인트이며, 북측면 알루미늄 커튼월의 멀리언(mulion) 부재 및 이중유리(Pair Glass)의 원형 확인이 가능함.

④ 형태 및 외부입면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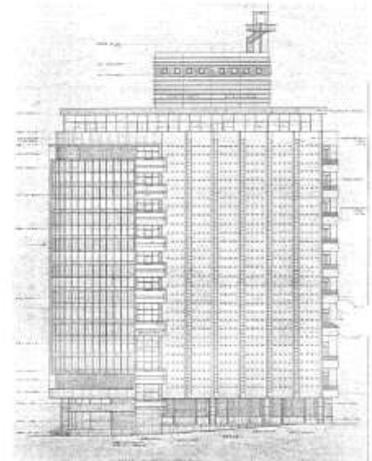
- 유네스코 회관의 육중한 볼륨을 화강석, 유리, 알루미늄, 철, 콘크리트 등 다양한 외벽 재료사용과 재료분리 및 요철을 통해 수직적 형태를 구성하여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근대기 디자인 수법을 확인 할 수 있음. 또한 북측 전면에 사용한 알루미늄 커튼월 공법에는 굵은 멀리언을 사용하는 등 첨단 제작기법이 적용되어 근대기 건축기술을 확인할 수 있음.



(1) 1962~1968년 설계 초안 배치도
1962년 설계초기 진출입 계획



1966년 준공당시 북측입면



1966년 준공당시 서측입면

5)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붙임자료 3. 대상 문화재의 변형 및 수리 이력 참고)

- (유네스코 회관의 형태 및 외부입면) 건축물의 형태는 1966년 준공 당시와 같이 보존되고 있으나, 서측면 외부마감은 1994년 스톤 코트로 변경되었으며, 2010년대에는 일부 캔틸레버 프레임(cast stone)이 훼손되었음.
- (유네스코 회관의 내부와 공간) 60여년의 사용기간 동안 내부공간에는 일부 변화가 있었으나 1967년 2월에 입주한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건물을 관리하기 시작한 1974년부터는 양호한 상태로 관리되고 있음. 현재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5층, 6층, 8층, 9층, 11층의 일부와 10, 11층의 전체 공간을 사용하고 있음.
- 주요 수리공사 이력
 - 1977년 11층 회의실 공사
 - 1983년 4층~11층 방재시설 개수공사
 - 1994년 유네스코회관 서측 외장마감 변경 대수선 공사
 - 1999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8층, 10층 이전 공사
 - 2000년 2층 청소년문화교류센터(MIZY센터) 신축공사
 - 2001년 11층 재건축 공사
 - 2001년 회관 정밀 안전진단
 - 2008년 지하1층~지상1층 계단 리모델링 대수선 공사
 - 2012~2013년 보일러 교체공사
 - 2017년 9, 10층 사무공간 재구획, 후문 진입로 보수공사
 - 2017년 유네스코회관 자산관리실사
 - 2018년 냉동기 교체공사, 회관 전기설비 보수공사, 난방배관 교체공사, 내부 공용공간 도장 등 정비공사, 간판 교체공사

6)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① 문화재 활용계획

○ 공간 관리와 활용계획

- (유네스코회관 건립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로 회복) 상업공간으로 임대하는 공간을 운영에 필요한 적절한 비율로 조정하고 유네스코 활동과 연관되는 단체나 활동을 담는 공간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임.(현재 유네스코협회연맹, 2019년 주한헝가리문화원,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입주)
- (건물 구조 안전 및 환경 성능 개선) 구조 안전 진단 후 구조 성능을 향상하고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여 전체 공간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 중임.
- (건물 외부공간 및 외관 정비) 명동파출소와 인접한 회관 동쪽 공간을 조정 예정으로 향후 벽면 및 실외기 등을 정비하고, 벽면을 활용하여 유네스코의 활동을 홍보하고 공공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비예정임.

○ 명동 장소 만들기 계획

- 명동 지역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해 명동 지역 여러 관리 주체들 간의 포럼(가칭 명동포럼)을 운영하는 등 논의의 장 마련 예정임.

② 유지 관리 및 활용계획의 실현가능성

- 임시로 보수하였던 훼손된 벽면을 원 벽면의 재료를 사용하여 전면적 보수가 필요하며, 구조정밀진단 시 비구조물 진단 병행하여 커튼월의 부재를 점검하고 필요시 건립 당시의 시스템이 훼손되지 않는 방법으로 보수·보강할 계획을 갖고 있음.

-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전기실 및 기관실 개선, 건물 외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중 창호 설치, LED 전등으로 교체하고, 기 사용하던 설비기기(원형)를 보존하며 전시할 계획을 갖고 있음.
- 준공 당시의 회관 청사진 도면 및 시방서 등을 기록물로 등록하는 건축관련 서류를 영구 보존하고 연구 및 전시에 활용하고, 전문가가 참여하여 지속적이며 일관성 있는 건물 보수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마련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

7)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 환경

- (문화재보존 여건) 1967년 2월에 입주한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1974년부터 건물을 관리하기 시작하여 양호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보존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문화재주변 환경) 명동성당(1898), 명동예술극장(1936), 메트로호텔(1960), 카톨릭회관(1962), 쌍용빌딩(1962) 등과 함께 우리나라 대표적인 근대기 도심의 경관을 형성하고 있어 문화재 보호를 위한 주변 환경은 양호함.

8)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①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 (등록문화재 934건 중 업무시설 등록문화재 81건)

- 기 등록된 등록문화재 중 업무시설은 서울 남대문로 한국전력공사 사옥을 비롯하여 등록문화재 934건 중 81건이며, 이들 대부분은 일제강점기 건립된 문화재임. 해방이후 건립된 업무시설로는 경기도청사 구관, 구) 수원시청사를 비롯한 16건으로 추정되나 은행, 공공기관의 업무시설을 제외하고 해방이후 민간에 의해 건립된 업무시설로 등록된 사례는 없음.

②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구)수원시청사: 한국전쟁 이후 건립된 관공서 업무시설로 서양의 기능주의 건축에 영향을 받아 정면을 강조한 입면구성과 장식적 요소를 보여주고 있음.(2층, 연면적 662㎡규모)
- 경기도청사 구관: 1963년 경기도청 수원이전 결정으로 설계 및 시공을 거쳐 1967년 6월에 준공됨. 동 시기 전국적으로 관공서 청사건축 붐이 있었으며 경기도청사 구관은 그 전형(典型)적인 예로 설계자는 김희춘, 나상진임.
 - (1960년대 모더니즘 디자인 특성) 옥상의 외벽 및 파라펫 처리 등 브루탈리즘 건축의 영향으로 볼 수 있으며 수평을 강조한 전형적인 업무시설의 입면구성을 갖고 있음.
 - ‘ㄱ’자형 건물 배치로 인한 중정, 2층 각 사무실의 베란다 겸 외부복도 설치기법은 근대기 업무시설 디자인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음.
 - 노출 콘크리트와 테라코타로 외벽을 장식한 디테일은 당시 건축가들이 즐겨 사용하던 대표적인 외부재료임.

9)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유산의 완전성(Integrity, 유산의 가치 입증 여부) 확보

- (근대기 한국사회의 국제적 활동과 역사적 가치) 유네스코 정신 구현의 증거로 유네스코회관은 건립 이후 대한민국 국제 활동의 발원지로 유관단체 및 활동을 적극 지원 수용해 왔으며, 근대기 한국의 교육 및 과학 문화 활동의 산실로 각종 국제회의 및 관련 세미나 등 학술활동 및 문화공연 등 문화적 활동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였음.

- (물리적 재질이 갖는 특징의 상태): 콘크리트 구조체의 안전성과 외부 Curtain wall, 건물형태 및 조형 요소는 본 유산이 갖는 물질적 가치를 보여주고 있음.
- (문화경관, 근대도시의 관계성과 기능) 명동성당(1898), 명동예술극장(1936), 메트로호텔(1960), 카톨릭회관(1962), 쌍용빌딩(1962) 등과 함께 우리나라 대표적인 근대적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있음.
- (주변 개발 또는 방치로 인한 영향)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문화적 명동지역 살리기를 통해 명동 지역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회복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 모색하기 위한 관리 주체들 간의 포럼(가칭 명동포럼) 운영계획을 갖고 있음.
- (유산의 중요성을 전달하는 특징과 과정을 증명하는 적정 규모) 본 건물은 설계공모,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에 이르기까지 관련 도면 및 시방서와 공사과정에 대한 각종 기록 등이 온전히 남아있어 본 유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전달하기에 적합한 유산임.

○ 유산의 진정성(Authenticity, 재질 및 기법 등 가치보유 여부) 유지

- (형태와 디자인(Form and Design)) 유네스코 회관에는 20세기 중반 한국 근대건축의 성장기 나타나는 기술적, 조형적 특성이 잘 남아 있으며, 외부형태 디자인 기법과 회관 전면면에 적용된 외부 Curtain wall 등의 조형적 기술적 가치가 높음.
- (재료와 물질(Materials and Substance)) 1960년대 철근콘크리트 구조(라멘조)기술을 사용한 고층 업무시설로 당시 한국건축의 시공기술과 다양하게 사용된 건축재료의 원형을 확인할 수 있음.
- (용도와 기능(Use and Function)) 주 출입구 및 로비 공간, 3-5층 문화시설의 공간과 구조 및 나선계단, 준공시 설치되었던 기계실의 보일러 등은 동 시기 건축의 기술적 발전을 이해할 수 있는 용도와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증거임.



강당구조



강당 돌음계단



옥상정원



강당내부



기계실 보일러

※ 종합의견

- ① 근대기 한국건축은 1960년대 경제성장기에 이르러 다양한 용도를 지닌 대규모 건축물들을 건설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와 함께 외국 건축기술의 유입과 함께 기술적 발전을 이룩하는 건축공법이 시도되었다. 따라서 유네스코 회관에는 이와 같은 근대기 한국 업무시설이 갖는 특성들이 현존하고 있음으로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관리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② 근, 현대기 조성된 대형 건축물의 경우 문화재지정 혹은 등록과정에 있어 기존과 동일한 가치평가 방법과 범위 지정보다는 보다 세분화하여 이를 검토하여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동 시기 비교대상과의 차별성을 고려하여 지정 및 등록범위, 보호구역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준공당시 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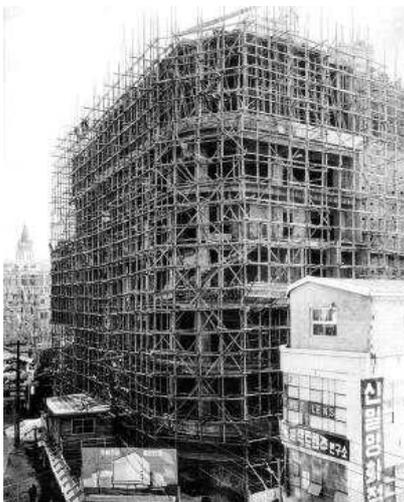
건축전경



커튼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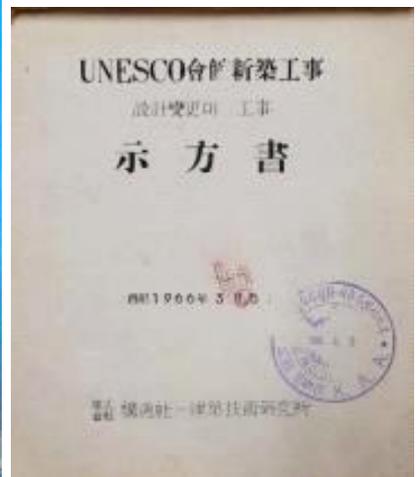
건축구조



공사중 기록



건축허가서



건축시방서

※ 보존가치와 부분에 대한 의견

- ① 해방이후 한국 근대건축의 기술적 혁신을 바탕으로 1959년 설계되고 1966년 준공된 건축물로 업무, 상업, 문화 등 복합기능이 담긴 유네스코 회관의 내부공간 구성은 철근콘크리트 구조기술을 통한 내부공간의 유연성을 확보한 결과로 물질적 기술적 특성을 보여주는 공간과 장소임. (이를 탁월하게 입증하고 있는 공간, 장소에 대한 조사를 통해 보존부분을 지정할 필요가 있음)
- ② 유네스코 회관에 사용된 노출콘크리트의 면처리, 알루미늄 커튼월 공법 등은 당시 보기 드물게 적용되었던 근대기 건축기술로 근대기 한국건축 기술과 업무시설이 갖는 조형적 특성을 갖는 외부 입면부.
- ③ 유네스코 회관은 가톨릭회관의 설계자인 김정수와 함께 1960년대 한국을 대표하는 건축가의 작품인 동시에, 근대기 한국건축의 설계기법 및 구법, 재료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인 관련도면 및 시방서, 공사 관련자료.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① 등록대상과 범위 문제

- 유네스코 회관은 지하 1층 지상 13층, 건축면적 1,152.23㎡/ 연면적 13,367.1㎡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근대기 업무시설로 기 등록된 등록문화재와 비교할 때 평균적 규모를 초월하는 대형유산이다. 또한 유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전달하는 특징과 과정을 증명하고 향후 문화재로서 유지관리하기 위한 범위와 적정 규모를 검토의 필요성이 있음.
- 최근 근현대 건축·시설(건축가 작품) 재평가 계획이 진행되고 있음. 이들 유산 중에는 유네스코 회관과 유사한 대형 업무시설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향후 이들 근대기 대형 업무시설 유산의 등록 및 문화재로서 유지관리하기 위한 대책수립이 필요할 것임.
- 그러므로 유네스코회관의 경우 문화재로서의 가치와 특성을 참고하고 이를 입증하고 있는 공간, 장소에 대한 조사 후 해당 범위를 설정하고 유산 내 별도의 보존구역(장소, 공간, 구조, 디자인 등)을 지정하는 방안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문화재전문위원 ○○○>

1) 개요

- 유네스코 회관은 1959년 현상모집 당선작으로 설계되어 1966년 완공된 건축물로 당시의 실험적 시도와 조형성을 간직하고 있음. 건립 이후 국제회의 및 세미나, 교육, 대중문화 활동을 수용하는 장소로 기능하였음
- 2010년 유네스코 회관 앞 도로의 명칭이 ‘유네스코길’로 변경되었으며, 2014년에는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된 것에서 본 건물의 랜드마크로서의 지위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사회적 위상을 가늠할 수 있음
- 1991년 유엔에 가입하기 전까지 유네스코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대표적인 국제기구의 위상을 가짐. 유네스코가 다루고 있는 과학, 교육, 문화 분야의 사업은 대중적인 영향력이 클 뿐 아니라, 한국전쟁 후 재건 과정에서 유네스코의 원조를 받은 특수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유네스코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호의적임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10층 이상으로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고층 건축물이었음. 준공 당시 우리나라 최초의 ‘알루미늄 커튼월’ 건물로 평가받았음. 국내 건축가가 설계하고, 국내 자본으로 지어진 고층 건축물이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음
- 철근 콘크리트조에 커튼월이라는 현대건축물의 가장 전형적인 구법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으며, 업무시설 뿐 아니라, 대형 회의장, 로비 등을 갖추어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였음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회관의 출입구와 로비가 있었던 1층 공간이 은행과 상업공간으로 임대되면서 변형되어 있음. 이로 인해 유네스코 회관의 정체성이 흐려지고 복합상업시설의 인상을 강하게 가지고 있음. 사무실, 상업시설, 공연장 임대로 인한 내부 공간 변형뿐 아니라 증개축 등 노후화에 따라 몇 차례 대수선이 이루어졌음.

- 1997년 12월 11층 화재로 기둥과 지붕이 손상되기도 함. 다만, 자료의 한계로 인해 마감재 및 세부 구조 변형 등에 대해서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음
- 내부공간의 변형에 비해 건물 외부는 잘 유지되고 있어 유네스코 회관의 랜드마크적 특성을 유지하고 있음. 등글러진 형태와 알루미늄 커튼월, 서측면의 분할된 콘크리트 매스 등 원래의 조형과 마감재의 보존상태는 양호한 편임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현재 업무, 교육, 공연 등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활발히 사용되고 있으며, 훼손 및 멸실에 대한 우려는 적을 것으로 판단됨.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의해 향후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음
- 건축물의 설계도면, 청사진 등이 잘 보존되어 있는 점은 향후 건축물의 보존관리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이며, 자료 자체로도 문화재적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다만, 현대건축물로서 다양한 용도로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리노베이션 및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변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 임대시설 중 상업시설의 비중을 줄이고 공공기관의 입주를 늘리는 것과 주변의 역사자원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운영을 두 가지 활용전략으로 제시하고 있음
-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과 기능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할 있음. 저층부 상업시설 입주 시에도 전체 건축물의 계획도와 상충되지 않는 입면계획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원 계획안을 참고하여 입구나 로비 부분의 계획의도를 되살리는 방안도 있을 것으로 보임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시민학교’ 등의 교육 프로그램과 연동할 수 있는 문화재 활용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장함. 국립극장, 명동성당 등 인근의 근대 건축물 및 명동 거리의 역사와 연계할 수 있는 활용프로그램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 · 검토

- 아직까지 이 시기 건축물이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사례는 없으나, 서울미래자산으로 선정된 사례들이 있음. 해방이후 건립된 ‘1세대’ 고층 건축물들과 함께 검토되어야 함. 1960년대 중반이후 업무시설, 은행, 호텔 등이 고층으로 건설되기 시작되었으며, 이들은 H형빔(wide flange)을 사용한 철골구조가 도입되기 이전의 건축물로, 주로 철근콘크리트 구조가 사용되었음
- 유네스코 회관이 위치한 명동 일대는 서울의 중심가로서 60년대 중반 고층의 은행본점 사옥이 집중적으로 들어섰던 장소임. 개관 당시 1층은 국제은행으로 계획되었으며, 대규모 회의장, 숙박시설(호텔)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일종의 ‘복합시설’로 보아야하고, 주로 업무시설로 사용되었던 비슷한 시기 다른 고층건물과 차별성을 가짐
- 1960년대 은행본점 빌딩으로는 상업은행 본점(1965 준공, 지하 2층, 지상 12층), 조흥은행 본점(1966 준공, 지하 1층, 지상 15층)과 비교할 필요가 있음.
- 공법이나 재료 면에서는 등록문화재인 한국전력 본관(구 경성전기주식회사, 1928) 뒤편의 별관(1962~1964, 정인국 설계, 9층)이 알루미늄 새시 커튼월과 유리블록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유네스코 회관과 비교할만한 사례임.
- 동일시기 철근 콘크리트 조, 커튼월 공법 등이 처음 도입되었고, 당시 공법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역사적 가치 검토가 필요함.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유네스코 회관이 가지는 건축적 특성, 장소로서의 가치, 문화적 맥락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유네스코 회관은 고층의 철근 콘크리트조 건축물로, 기존 등록문화재와 비교하였을 때 규모나 구법의 측면에서 그 성격이 상이하고, 그 물리적 가치를 판별하는데 있어 근거가 될 만한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구체적인 복원, 보존, 유지 관리 등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지 않으며,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한 적을 것으로 추정됨
- 유네스코 회관을 등록문화재로 지정한다면, 고층 철근 콘크리트조 건축물로는 첫 사례가 될 것이고, 이는 추후 고층건축물 또는 현대건축물을 문화재로 지정함에 있어 또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등록문화재 지정에 앞서 비슷한 시기, 비슷한 구법이 사용된 다른 건물들에 대한 기초연구(전수조사 및 목록화, 유형분류, 구법의 역사적 전개과정 등)를 수행하여, 유사 사례들이 가지는 가치를 판별하기 위한 기준과 지침을 정립해 놓을 필요가 있음
- 유네스코 회관은 현재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거대규모의 건축물로 외관의 복원과 유지관리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건축물의 어떤 부분에 가치가 있는지를 파악하여, 그에 따른 선택적인 유지보수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음
- 커튼월 공법,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사용된 건축물의 보존원칙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만한 자료로 미국 내무성(The Secretary of the Interior)에서 배포하고 있는 기준(Standards for the treatment of historic properties)이 있음. 이 문서는 역사적 건축물을 다루는 네 가지 태도(preservation, restoration, rehabilitation, reconstruction)를 제시하고, 각각의 태도에 상응하는 유지보수기준을 요소별(조적조, 목조, 금속, 지붕, 창문, 현관, 커튼월, 구조시스템, 설비시스템, 실내마감, 대지)로 제시하고 있음. 추천하는 방식(recommended)과 추천하지 않는 방식(not recommended)을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고가 될 만함. 이에 관한 별도의 자료를 본 의견서에 첨부하였음
- 유네스코 회관은 현대 건축물의 ‘빌딩시스템’이 도입되는 시기에 준공된 건축물로, 기계설비의 측면에서도 시대성을 간직하고 있음. 특히 기계실에는 준공당시 설치된 비상발전기가 남아 있는데, 해당 기계, 설비가 노후화 되었을 시 유지관리 방안에 대한 방침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붙임2>

유네스코 회관 조사보고서('09.11.3)

1. 명 칭 : 유네스코 회관

2. 용 도 : 업무시설/관람집회시설 등

3. 소재지 : 서울시 중구 명동2가 50-14

4. 소유자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 현소유자 주소 : 서울시 중구 명동2가 50-14

5. 건축물 개요

- 설계자 : ○○○○ ○ 시 공 자 : 풍전산업(豊田産業)
-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 철골조 ○ 준 공 일 : 1967년(1959착공)
- 대지면적 : 1,345.8㎡
- 건축면적 : 1,152.23㎡
- 연 면 적 : 13,367.1㎡
- 층수, 높이 : 지하1층, 지상13층(물탱크실 포함/높이 51.38m)

6. 조사자 의견

가. 건축양식 및 주요특징

- 건축양식 : 1960년대에 건립한 우리나라 근현대 건축물로서 메트로 호텔, 구 명동성모병원 등과 함께 커튼월공법으로 지은 중요한 건축물임
- 주요특징
 - 중앙코어 형식, 중앙 공급 냉난방설비 등은 당초 호텔로 계획하였다가 재정적 어려움으로 업무시설로 바뀐 흔적 등 건립과정에서 발생한 변화가 잘 남아 있음
 - 옥상의 물탱크실, 기계실 등 부속시설도 건립당시 원형에 가깝게 잘 간직하고 있음

나. 연혁 및 수리기록

- 연 혁
 - 1959.4 : 유네스코회관 기공식
 - 1962.7 : 유네스코 회관 상량식 거행
 - 1967.2 : 유네스코 회관 준공
 - 1974년 : 한일은행으로부터 유네스코 회관 관리권 인수
 - 2003년 : 회관 옥상에 생태공원 조성 “작은누리”
- 수리기록
 - 10여년 전 외벽에 샌드스톤 뿔칠
 - 1997.12월 화재로 인해 11층 전소되어 복구
 - 내부는 입주자들에 의해 부분적으로 수리

7. 소유자(관리자) 의견(동의/부동의 등)

- 오래된 창호로 인한 열손실 때문에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함.

8. 조사자 의견

<문화재위원 ○○○>

가. 문화재 보존여건

-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외벽의 콘크리트 마감부분에 일부 피복이 떨어져 나가는 정도의 노화 현상은 보이고 있으나 구조적 및 마감상태는 대체로 안정적으로 보임
- 보존·활용 여건 및 주변환경
 - 현 상태대로 보존하면서 사용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임
- 보존가치 또는 보존 필요성이 있는 부분(특정부분)
 - 전체 외관형태 유지와 외벽(알루미늄 커튼월 부분 및 측면 콘크리트조 벽면)
 -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설비와 창호

나. 등록(지정) 등 가치 의견

- 구 명동성모병원 이후 본격적으로 알루미늄 커튼월로 시공된 최초의 건물로 기술사적인 의미가 높으며, 명동지역을 상징하는 몇 안 되는 근현대 역사적 건축물로서 상징성과 근대주의(모더니즘)건축으로서의 건축사적 가치가 높다.
- 다만 준공 후 43년밖에 지나지 않아 등록기준 연한인 50년에 미달하고 당장 멸실, 또는 훼손의 우려가 없으므로 등록시기에 대한 형평성 등의 고려가 필요하다.

<문화재전문위원 ○○○>

가. 문화재 보존여건

-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외벽의 콘크리트 마감부분에 일부 피복이 떨어져 나가는 정도의 노화 현상은 보이고 있으나 구조적 및 마감상태는 대체로 안정적으로 보임
- 보존·활용 여건 및 주변환경
 - 현 상태대로 보존하면서 사용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임

나. 등록(지정) 등 가치 의견

- 시기적 특징을 잘 나타내는 커튼월의 기술적 측면이 있다고 생각함.
- 커튼월이 지니는 기술사적 의의, 건축주의 외장 리모델링 계획 등을 고려하면 문화재 등록을 통하여 보존함이 타당하지만, 상기 건축물이 지니는 의의에 못지 않게 유사한 시기에 건축된 의미 있는 건축물을 문화재로 등록하여야 하는 상황이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최선의 대안은 건축주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사회적 소명을 고려하여,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할 경우 미국의 Lever House(New York, 별첨자료 참고)처럼 커튼월의 의장적 특성을 유지하면서 디테일에 대한 개선을 통해 성능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함.
- 보존가치 또는 보존 필요성이 있는 부분
 - 외부 의장적 특성(커튼 월, 서향차폐 디자인, 옥상부 디자인 등)을 유지 보존할 것
 - 건축주가 추진 중인 리모델링 과정에서, 커튼월, 서향 입면, 옥상부 외부 디자인 등 의장적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부의 기술적 성능을 개선하는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커튼월 전경

옥상부 근대적 디자인과 노후된 외관

○ 기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미국의 Lever House(New York)는 유네스코 회관과 같이 미국 최초의 커튼월 (1948, Pietro Belluschi's Equitable Building in Portland, Oregon) 건축물은 아니지만, New York이라는 지역이 지니는 장소성이나 상징성 그리고 고층건물 계획사에서 공개공지 제공 등의 의미를 매우 높게 평가하여 1983년 New York City의 Landmark Preservation Commission(LPC)에 의해 뉴욕시 랜드마크로 지정되고 이후 수복적 재생과정에서 커튼월의 원형적 모습을 보전하면서 단열 성능을 개선한 사례임.

<문화재전문위원 ○○○>

가. 문화재 보존여건

○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외벽의 콘크리트 마감부분에 일부 피복이 떨어져 나가는 정도의 노화 현상은 보이고 있으나 구조적 및 마감상태는 대체로 안정적으로 보임

○ 보존·활용 여건 및 주변환경

- 현 상태대로 보존하면서 사용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임

나. 등록(지정) 등 가치 의견

- 유네스코 회관은 건축가 배기형에 의한 우리나라 초기의 커튼월 공법으로 지어진 한국현대건축사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 건물이라고 할 수 있다. 최초의 커튼월로 이루어진 건물은 김정수의 명동 성모병원이지만 이는 수공업으로 알미늄을 접어서 시공한 것이고 유네스코회관에서 비로서 제품이 생산되어 커튼월 공법이 본격화 되었다고 하겠다.

- 이와 함께 지어진 지 40여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보더라도 명동에서 유네스코 활동의 본부로서 수려한 외관으로 간직하고 있다. 즉 커튼월 공법으로 지어진 초기 건축으로서 뿐만 아니라 창호 및 커튼 월의 세부 디자인이 훌륭해 주변의 다른 건물들을 압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건물이 준공한지 43년이 되어 등록문화재의 등록요건이 50년이 되지 않아 아직까지는 시급하게 등록시키지는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 보존가치 또는 보존 필요성이 있는 부분

- 11월 3일 조사시 유네스코 회관을 관리하는 담당자에게 물어본 결과 특별히 창호 커튼월을 수리하거나 바꿀 계획이 아직까지는 없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등록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 다만 지붕의 파라펫 부분의 일부 탈락 현상이 있어 이에 대한 보호 및 보수가 필요하다.

10.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안 보고

가. 보고사항

문화재 정책 환경의 변화와 국제사회 문화재 분류체계에 부합하도록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안을 보고합니다.

나. 추진 배경

-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변화된 문화재 정책 환경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 필요
 - (국제기준) 유네스코 유산 분류체계와 국내 분류체계가 상이하여 일관된 기준 필요
 - * (국내) 유형문화재(국보·보물), 무형문화재, 기념물(사적·명승·천연기념물), 민속문화재(유네스코) 세계유산(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 무형유산, 기록유산
 - (명칭한계) ‘문화재(財)’ 용어가 확장된 문화재 정책범위를 포괄하는데 한계 내포
 - * 일본의 문화재보호법(1950년 제정)을 원용, 과거 유물의 자산적 성격이 강함, 자연물과 사람을 ‘문화재’로 표현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지적, ‘문화유산’ 용어와 혼용 등 명칭 변경 필요성 제기

다. 추진 경과

- ('22.1월초) 문화재 분류체계 개선 내부TF 구성 및 회의 개최 [개선(안) 마련]
- ('22.1월말)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 지자체 의견수렴 회의
 - * 과거 2005년, 2008년, 2017년에 문화재 분류체계 개선 논의(연구)가 있어 왔음.

라. 주요 내용

-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안) 보고
 - 개선 필요성, 분류체계 및 지정·등록체계 개선안 등

마. 향후 계획

- ('22.2월)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회별 개선(안) 보고(의견수렴)
 - *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 대상 서면 의견수렴 병행
- ('22.3월) 문화재 분류체계 개선 정책토론회 개최
 - 문화재위원회·무형문화재위원회 합동 분과위원장단 회의 보고
- ('22.下) 분류체계 개선안 반영, 국가유산기본법(가칭) 제정안 마련

※ 별도자료 ‘문화재 분류체계 개선(안) 설명자료’ 참고

바.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출석 9명 / 원안접수 9명

11.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처리 보고

가. 보고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사적 「서울 대한의원」 CCTV설치를 위한 현상변경 허가 신청 등 4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나. 처리내용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 결과	처리 일자
사적 서울 대한의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p><서울 대한의원 현상변경(cctv 설치)></p> <p>(1) 허가 받는 자 : 서울대학교병원</p> <p>(2) 허가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28-21 ○ 내 용 : cctv 설치(총3대) - 후문 외부 캐노피 상부(1대) - 동쪽 화단(2대, 높이 약3.6m 폴대 1개 설치) <p>(3) 허가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1.24. ~ 5.31. <p>(4) 참고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현지조사 의견 <p><문화재위원회 ○○○, 문화재전문위원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적 서울 대한의원 주변에 서울대 병원 시설물이 늘어난 관계로 통행인 및 방문객을 관찰할 cctv 증설이 요구되는 시점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판단됨 - 벽면 천공 없이 기존 건물 하부 통풍구를 통해 배관·배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경미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외부에 신규로 설치하는 폴대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cctv 폴대와 유사하게 제작·설치가 필요함 	허가	'22.1.24
사적 구 군산세관 본관 (제545호)	전북 군산시	군산시장	<p><열린관광지 조성 사업></p> <p>(1) 허가 받는 자 : 군산시장</p> <p>(2) 허가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위치 : 군산시 장미동 1-4 ○ 내 용 - 보행로 단차 제거 및 개보수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정비 - 화장실 개보수(3개소) - 휴게공간 조성(쉼터 테이블 등) 	조건부 허가	'22.11.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 결과	처리 일자
			<p>(3) 허가(수행)기간 : '22.2.11.~8.31.</p> <p>(4)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의견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차 없애고 통행편의 : 현재의 포장 재료와 색상 등과 동일하게 처리하여 이질감 없게 함 ○ 주차장 : 기존의 시설물들이 장애인과 휠체어 통행에 지장 주지 않도록 이동로의 유효폭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유의 ○ 화장실 : 현행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에 맞추어 화장실을 마련하는 사안으로, 현존 건물의 규모 내에서 기성제품 가설 구조물을 설치함으로써 경관과 기능을 저해하는 요소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휴게공간 : 계획대로 시행하도록 함 <p>(5) 허가 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로 단차 제거 시 현재의 포장 재료 및 색상 등과 동일하게 처리 ○ 주차장 기존의 시설물들이 장애인과 휠체어 통행에 지장주지 않도록 이동로의 유효폭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유의 ○ 관광안내센터 화장실은 추후 군산 내향 역사문화공간 정비시 철거 조치 		
<p>사적 서울 독립문 (제32호)</p>	<p>서울 서대문구</p>	<p>서울 특별시장</p>	<p><코로나19 가설 선별진료소 및 대기소 설치></p> <p>(1) 허가 받는 자 : 서울특별시</p> <p>(2) 허가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위치 :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941 일원 ○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테이너 8개동(각 3×6m) - 몽고텐트 2개동(각 3×3m), 8개동(각5×5m) - 터널식 천막 30m × 38m <p>(3) 허가(수행)기간 : '22.2.14.~12.31.</p> <p>(4) 허가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사용)기간 만료 전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원상복구 후 완료신고토록 함(다만, 시설의 운영 필요성이 있으며,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허가를 받아 기간연장 가능) <p>(5) 사적 「영은문주초」관련 소관과(보존정책과)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검사에 필요한 임시 가설물 설치로 사적 영은문주초의 보존 관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됨 	<p>조건부 허가</p>	<p>'22.2.14</p>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 결과	처리 일자				
사적 구 서울역사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 특별시장	<p><구 서울역사 주변 난간 재정비 허가사항 변경허가></p> <p>(1) 허가 받는 자 : 서울특별시장</p> <p>(2) 변경허가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봉래동2가 122-17번지 일원 ○ 내 용 : 서울로 7017 난간 재정비 ○ 상세내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기 허가</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간 재정비(높이증가) - 구간길이 : 약120m - 난간높이 : 1.4m → 2.0m - 재질 : 폴리카보네이트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변경 허가</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간 재정비 - 구간길이 : 약120m - 난간설치 : 2.2m ※ 1.4m 기존난간 철거 - 재질 : 접합강화유리(상부), 철망(하부) </td> </tr> </table> <p>(3) 허가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21.11.9.~'22.5.31. ○ (변경) '21.11.9.~'22.10.31. <p>(4) 참고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현지조사 의견 <p><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안에 대비하여, 경관 측면에서 개선된 것으로 판단됨 - 구조적 안정성(풍압 등)에 대해 검토한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기 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간 재정비(높이증가) - 구간길이 : 약120m - 난간높이 : 1.4m → 2.0m - 재질 : 폴리카보네이트 	변경 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간 재정비 - 구간길이 : 약120m - 난간설치 : 2.2m ※ 1.4m 기존난간 철거 - 재질 : 접합강화유리(상부), 철망(하부) 	변경 허가	'22.17.
기 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간 재정비(높이증가) - 구간길이 : 약120m - 난간높이 : 1.4m → 2.0m - 재질 : 폴리카보네이트 								
변경 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간 재정비 - 구간길이 : 약120m - 난간설치 : 2.2m ※ 1.4m 기존난간 철거 - 재질 : 접합강화유리(상부), 철망(하부) 								

다.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출석 8명 / 원안접수 8명